



한인교육연구

Journal of Korean-American Education

2017년 교육 연구 주제

함께 꿈꾸며 도약하는 한국어 교육

한국어 교육 연구

한국 역사/문화 교육 연구

한국어 온라인 교수학습 및 교육 자료 소개

이미지 메이킹

NAKS

The National Association for Korean Schools

재미한국학교협의회

우리 아이들은 **꿈**이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은 **미래**가 있습니다.
그 미래를 우리가 **함께** 하겠습니다.

NAKS 3대 중점 사업

교사의 역량과 저변 확대

표준화된 교육과 운영 지침서

한국어 교육의 현지화



재미한국학교협의회 NAKS

The National Association for Korean Schools

뿌리 깊은 나무는 바람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한인교육연구

Journal of Korean-American Education

2017년 교육 연구 주제
함께 꿈꾸며 도약하는 한국어 교육

한국어 교육 연구
한국 역사/문화 교육 연구
한국어 온라인 교수학습 및 교육 자료 소개
이미지 메이킹

NAKS

The National Association for Korean Schools
재미한국학교협의회

Contents



NAKS

The National Association for Korean Schools
재미한국학교협의회

낙스의 설립 및 목적.....	4
------------------	---

교육 연구 주제 : 함께 꿈꾸며 도약하는 한국어 교육

〈한국어 교육 연구〉

송철의	언어 변화와 어문규범, 그리고 한국어 교육.....	9
권재일	언어와 문화, 그리고 한국어 교육.....	21
백봉자	어린이 한국어 수업에서 의사소통.....	29
정호성	한국어 어문 규정의 이해.....	40
김경령	교포 아동 학습자, 계승언어 학습자(Heritage Language Learner)의 언어 습득에 대해.....	63

〈한국 역사/문화 교육 연구〉

박현모	견습왕 시절 세종이 발휘한 ‘품의(稟議) 리더십’.....	75
황정하	인류 최고의 발명품, 금속활자 인쇄..... 『직지』는 금속활자 발명국 코리야의 증거물	82
임정은	재외동포의 한국 역사학습을 위한 교육 콘텐츠 개발.....	90

〈한국어 온라인 교수학습 및 교육 자료 소개〉

정혜선	국립국어원 온라인 한국어교수학습센터 기능 및 구체적 활용 방안 소개.....	99
김혜민	국립국어원 개발 한국어 교육 자료 소개.....	110



〈이미지 메이킹〉

김경호 대인관계 역량강화 및 갈등해소를 위한..... 121
 이미지 메이킹(Image Making) 전략

〈기고문〉

신문규 북미지역 한국어 교육과 발전과제..... 137

NAKS 및 14 지역협의회 창립 연혁..... 141

역대 이사회 임원..... 142

역대 협의회 임원진..... 143

역대 학술대회 및 총회 개최지..... 145

낙스의 설립 및 목적 / Mission Statement

The National Association for Korean Schools (NAKS)

재미한국학교협의회는 미주에 있는 1,000여 주말 한국학교의 연합체이다. 한국어, 한국문화 및 역사 교육의 개발과 육성, 한국에 대해 올바른 인식과 이해를 통한 긍지 함양, 교육정책에 대한 건의와 협조 추구 등 한인 차세대들에게 올바른 정체성과 긍지를 심어주는 종합 한인 교육기관으로서 1981년에 창립된 이래 현재 미국 연방 정부에 비영리단체(501(c)(3) EIN #52-1596204)로 등록되어 있으며 미국 전역에서 1,000여 개의 회원 학교들이 함께 2세들의 미래 교육을 위한 사업을 하고 있다.

본 협의회는 미국의 전 지역을 지역별로 나누어 전국 협의회 산하 14개의 지역협의회를 두고 있으며, 각 지역협의회는 소속 한국학교의 발전과 교사들의 교육 전문성 향상 그리고 2세들을 위한 효과적인 한국어 및 역사문화 교육을 위하여 다양한 자체 행사를 하고 있으며 전국 협의회와 교육 행사 및 교사 연수 그리고 교육 정보에 관하여 상호 협조하고 있다.

산하 14개 지역 협의회로는 남서부 지역 (휴스턴), 뉴잉글랜드 지역 (보스턴), 동남부 지역 (애틀랜타), 동북부 지역 (뉴욕), 동중부지역 (필라델피아), 미시간 지역 (디트로이트), 북가주 지역 (샌프란시스코), 서북미 지역 (시애틀), 워싱턴 지역 (D.C.), 중남부 지역 (인디애나폴리스), 중서부 지역 (시카고), 콜로라도 지역 (덴버), 플로리다 지역 (마이애미), 그리고 하와이 지역 (호놀룰루) 등이 있다.

Mission Statement

The National Association for Korean Schools (NAKS) cultivates the development of strong bonds of friendship among Korean Schools and instruction in Korean language, culture and history. It is an organization operating with the

goal of nurturing and educating Korean-American in the U.S. Its objective is to instill pride in Korean-American through a proper knowledge and understanding of Korea, and of its culture, history, and language. Its other objective is to examine and influence the educational policies and practices of the Ministry of Education in Korea and the Department of Education in the U.S. to benefit Korean-American.

Structure and Operation

NAKS was established in 1981 in Washington, D.C. and is currently spread across the fifty states of the U.S. NAKS unites over one thousand Korean schools and is recognized by the Federal Government as a non-profit educational organization(501C-3, EIN #52-1596204). The association is composed of a general assembly, a meeting of officers, a board of directors, and a council of presidents representing NAKS' fourteen regional chapters that collaborate to achieve its stated objectives. While maintaining a close relationship with the national body, each region implements activities to continually improve and aim for excellence in the education its local Korean schools provide.

NAKS' Goal

- Young Korean-American Education Serve regional chapters, local Korean schools, and Korean-American societies
- Training of Teachers both first generation Equip them with necessary Korean language, history & culture education
- Nurture & Training for the 1.5 and 2nd Generation Teachers Help them to recognize their heritage and identity as Korean-American and to network with others Korean school teachers: Equip them for other 2nd generation Korean-American Students

NAKS' Events & Activities

- Intensive Teacher Training Program
- Annual Conference and General Assembly
- Publish a Journal of Research in Korean Education for teachers
- Support NAKS Member Schools- More than 1,000 Regional Korean schools in the U.S.
- Sending the qualified instructors to each regional chapter's own conference (14 Regional Chapters)
- Support for Regional Chapter's Teacher Conference
- Develop & Publish Teaching Materials and Assessment/Measurement System
- Annual SAT Korean Pilot Test
- Develop & Publish Hangeul Textbooks (7 books total so far)
- Develop & Publish books for Korean History and Culture
- Develop & Publish SAT Korean Workbook
- Education of 2nd Generation of Korean-American
- Educational Curriculum Contest for Korean Schools
- Speech Contest for the Korean-American Students
- Writing Contest for the Korean-American Students
- Publish Annual White Paper

ORGANIZATION

NAKS is an organization of weekend Korean schools covering 50 states and Samoa. About 1000 schools are organized under 14 regional chapters.

REGIONAL CHAPTERS

New England Chapter: MA, NH, VT, RI, ME
 Northeast Chapter: NY, NJ
 Mid-Atlantic Chapter: PA
 Washington D.C. Chapter: Washington, D.C., MD, VA
 South East Chapter: GA, NC, SC, AL, TN
 Florida Chapter: FL
 Michigan Chapter: MI, Northwest Ohio
 Midwest Chapter: IL, WI, MN, IA, MO, KS, NE, ND, SD
 Midsouth Chapter: IN, OH, KY
 Colorado Chapter: CO, WY

Southwest Chapter: TX, OK, AR, MS, LA
 Northwest Chapter: WA, OR, ID, MT, AK
 Northern California Chapter: Northern CA
 Hawaii Chapter: HI, Samoa

NAKS Present & Future

- Develop Textbooks of Korean Language, Culture and History
- Develop Teaching & Training Material for Teachers
- Install the Pride as the 2nd Generation of Korean-American through Proper Knowledge and understanding of Korea and its Culture, History and Hangul, the Korean Language.
- Promote Collaborative Relationships among 1,000 Korean Schools in United States.

Membership Qualifications

- Institutional Member:
Must complete the application form and pay the school membership fee to local chapter. Can participate and vote in the General Assembly.
- Individual/Private Member:
Must have represented a Korean School for three years, or must have taught in a Korean School for five years, or must have contributed service as an officer in NAKS for two years, or must have devoted himself or herself to Korean education research and Korean studies.

Benefits for Member

- Free subscription of NAKS' Journal of Research in Korean Education
- Free subscription of annual NAKS Report
- Discount on Korean language textbook series created and published by NAKS
- Discount on registration fees for attending NAKS' annual conference Subsidized lodging when attending NAKS' annual conference
- Access to a network of experts in the field of Korean-American education



한인교육연구
Journal of Korean-American Education

한국어 교육 연구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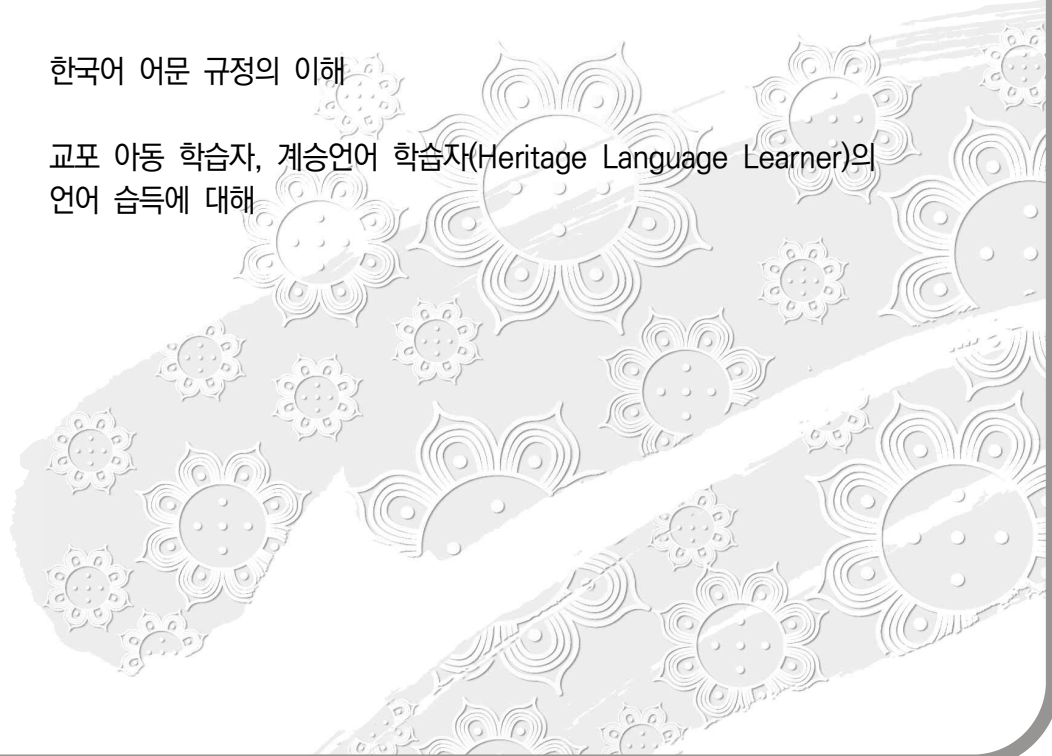
송철의 언어 변화와 어문규범, 그리고 한국어 교육

권재일 언어와 문화, 그리고 한국어 교육

백봉자 어린이 한국어 수업에서 의사소통

정호성 한국어 어문 규정의 이해

김경령 교포 아동 학습자, 계승언어 학습자(Heritage Language Learner)의
언어 습득에 대해



언어 변화와 어문규범, 그리고 한국어 교육

송철의

국립국어원장

1. 머리말

시간이 흐르면 모든 것은 변한다. 언어도 시간이 흐르면 변한다. 그러나 언어의 변화는 대체로 매우 점진적이어서 일반 사람들은 언어가 변한다는 사실을 잘 인식하지 못한다.

한편 어문규범이란¹⁾ “언어생활에서 따르고 지켜야 할 공식적인 기준”인데, 이 어문규범은 어문생활의 질서를 위해서 인위적으로 제정된 규정이다. 인위적으로 제정된 것이기 때문에 이 어문규범은 저절로 변하지는 않는다. 현실 언어에 비해서는 고정적이다. 그래서 흔히 어문규범은 보수적이라고 말한다.

현실 언어는 변하는데, 어문규범은 보수적이므로, 어문규정이 제정되고 나서 시간이 많이 흐르면 현실 언어와 어문규범 사이에는 괴리가 생기게 마련이다. 이런 경우 현실 언어의 변화를 어문규범에 어느 정도 반영시킬 것인가? 이것이 어문정책 담당자들에게는 고민거리가 아닐 수 없다. 현실 언어와 어문규범의 괴리는 한국어 교육자들에게도 고민스러운 일일 수 있다.

이 글에서는 이런 문제들을 불규칙 활용의 변화와 체언어간말 자음(군)의 단순화 현상을 중심으로 간략하게 살펴보고자 한다.

2. 현행 한글 맞춤법과 역사적 표기

현행 한글 맞춤법은 잘 알려져 있는 바와 같이 1933년 ‘한글 맞춤법 통일안’이라는 이름으로 제정되었다. 그 이후 소소한 수정이 있었고, 1988년에 재정비되면서 그 명칭도 ‘한글 맞춤법’으로 바뀌었다. 그러나 표기법의 근간은 여전히 그대로 유지 되었다.

1) 한국어 어문규범에는 네 가지가 있다. ‘한글 맞춤법’, ‘표준어 규정’, ‘외래어 표기법’, ‘국어 로마자 표기법’

‘한글 맞춤법 통일안’을 제정하는 과정에서 기본 원칙으로 삼았던 것 중의 하나는 현실 언어와 부합하지 않는 역사적 표기(다른 말로는 ‘관습적 표기’)는 배제하고 언어 현실에 부합하는 표기를 하자는 것이었다. 즉 역사적으로 변화가 일어나서 발음이 바뀐 것은 바뀐 발음대로 표기하자는 것이었다. 그래서 ‘긔차’로 표기하던 것을 ‘기차’로, ‘셔울’로 표기하던 것을 ‘서울’로, ‘녀름’으로 표기하던 것을 ‘여름’으로, ‘도션’으로 표기하던 것을 ‘조선’으로 표기하기로 했던 것이다.

그러나 ‘한글 맞춤법 통일안’에서도 역사적 표기가 완전히 사라지지 않는 않았다. 극히 일부이기는 하지만 역사적 표기가 남아 있는 것이다. 역사적 표기의 예로서는 [ㄷ]로 소리나는 것을 ‘ㅅ’으로 표기하기로 한 것²⁾(뎃저고리, 무룻, 얼핻)과 소위 ‘ㅅ’불규칙 용언의 어간말음을 ‘ㅅ’으로 표기하기로 한 것(짓고, 굿고)을 들 수 있다. ‘뎃저고리’의 ‘뎃’이나 ‘무룻, 얼핻’에서의 ‘ㅅ’ 받침은 늘 [ㄷ]로만 발음되기 때문에 ‘ㅅ’으로 적어야 할 아무런 이유도 없다. 이들을 ‘ㅅ’으로 적기로 한 것은 [ㄷ]로 발음되는 받침을 ‘ㅅ’으로 표기해온 표기의 전통을 받아들인 것에 불과하다. ‘한글 맞춤법 통일안’의 표현을 빌리자면 ‘在來의 버릇을 따라’³⁾ 그렇게 표기하기로 한 것에 불과한 것이다. 18, 19세기의 한글 표기법에서는 받침 ‘ㄷ’을 ‘ㅅ’으로 적는 강한 경향이 있었다. ‘받고, 듣고, 믿고’를 ‘봣고, 뎃고, 밋고’로 표기했던 것이다.

ㅅ-불규칙 활용의 경우도 사정은 비슷하다. ‘한글 맞춤법 통일안’이 제정될 당시에 ‘짓다’는 [진고, 진는, 지으니, 지어서]와 같이 발음되었다. 이러한 발음 현실을 바탕으로 표기를 하였다면 ‘짓다’의 활용형 표기는 ‘진고, 진는, 지으니, 지어서’와 같이 표기했어야 한다. 그러나 ‘한글 맞춤법 통일안’은 ‘짓고, 짓는, 지으니, 지어서’와 같은 표기를 채택하였다. 그리고 문법서들에서는 ‘짓다’류를 ㅅ-불규칙이라고 명명하였다. ㅅ-불규칙 용언들의 어간말음을 ‘ㅅ’으로 표기하게 된 데에는 두 가지 이유가 있었다고 여겨진다. 첫째는 여기서도 표기의 전통, 혹은 표기의 관습을 버리지 못했기 때문이다. 이들 용언의 어간말음은 현대한국어에서 어떤 경우에도 [시]로 발음되는 경우가 없다. 그런데도 이들 용언어간의 어간말음을 ‘ㅅ’으로 표기한 것은 이들 용언어간 말음의 받침을 늘 ‘ㅅ’으로 표기해온 전통이 있었기 때문이다. 둘째는 이들 용언어간 말음을 현실 발음을 고려하여 ‘ㄷ’으로 표기하게 되면 한국어에 ㄷ-불규칙 활용이 두 가지가 있게 되므로 이를 피하기 위해서 이들 용언어간 말음을 ‘ㅅ’으로 표기할 필요가 있었다고 할 수 있다. 현실 발음대로 ‘짓다’를 ‘진다’로 표기하게 된다면 ‘진다’도 ㄷ-불규칙이 되는데, ‘듣다’와 같은 기왕의 ㄷ-불규칙과는 불규칙 활용의 양상이 다르므로 이 둘을 구별해 주어야 한다.

2) 한글 맞춤법 통일안 제1장 제4절, 한글 맞춤법 제7항

3) 한글맞춤법통일안 제6항 참조.

- (1) 듣다 : 듣고 듣는 들으니 들어 들었다 (ㄷ-불규칙 1)
 질다 : 질고 질는 지으니 지어 지었다 (ㄷ-불규칙 2)
 믿다 : 믿고 믿는 믿으니 믿어 믿었다 (규칙 활용)

‘한글 맞춤법 통일안’은 전통적인 표기법과는 달리 현실 발음을 대폭 반영한 표기법이었다. 당시의 사람들은 우리말 표기를 현실 발음과 일치시키는 것이 표기법의 혼란을 바로 잡을 수 있는 중요한 관건 중의 하나라고 여겼다. 이러한 인식은 개화기부터 있었던 것인데, 현대 한글 맞춤법의 근간을 마련한 주시경은 우리말을 현실 발음대로 표기하되, 문법에 맞게 표기하는 것이 표기법의 혼란을 방지할 수 있는(혹은 표기법을 통일할 수 있는) 길이라고 믿었다. 그것은 물론 매우 타당한 생각이었다. 그렇지만 실제 맞춤법 규정을 만들 때에는 부분적으로 현실 발음을 따르지 않고 역사적 표기를 받아들인 경우가 있었던 것이다.

3. 불규칙 활용의 변화와 한글 맞춤법

한글 맞춤법을 제정하는 과정에서 불규칙 활용의 표기를 어떻게 할 것인가는 중요한 논란거리의 하나였다. 현대 한글 맞춤법의 근간을 마련한 주시경은 불규칙 활용의 경우조차도 본음을 밝혀 어간을 고정시켜 표기하려 하였다. ‘추워, 지어, 우는, 흘러’를 ‘츄어, 짓어, 울는, 흐르어’로 표기하려 하였던 것이다. 그리고서는 ‘츄-’의 ‘ㅄ’, ‘짓-’의 ‘ㅅ’, ‘울-’의 ‘ㄹ’은 실제로는 발음되지 않으니까 그 ‘ㅄ, ㅅ, ㄹ’에 사선을 그어 이 ‘ㅄ, ㅅ, ㄹ’이 발음되지 않는다는 것을 표시하려 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맞춤법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불규칙 활용은 소리 나는 대로 표기하는 것이 합당하다는 주장이 제기되었고, ‘한글 맞춤법 통일안’에서 이를 받아들여지게 되었다. 최현배도 최현배(1930)에서는 불규칙 활용을 인정하지 않다가 최현배(1934)에서 한국어 용언의 불규칙 활용을 인정하고서 불규칙 활용을 11가지로⁴⁾ 정리하여 제시했다. 그런데 ‘한글 맞춤법 통일안’에서는 불규칙 활용을 8가지만 언급하였다.

(2) 제3장 제4절 변칙 용언

- ① 어간의 끝 ㄹ이 ㄴ ㅂ 과 ‘오’ 우에서 주는 말 (‘ㄹ’불규칙)⁵⁾

4) 이때까지는 우-불규칙에 대한 인식은 없었다.

5) 불규칙 명칭은 필자가 써 넣은 것임.



- ② 어간의 끝 ㅅ이 홀소리(母音) 우에서 줄어질 적 (‘ㅅ’불규칙)
- ③ 어간의 끝 ㅎ이 줄어질 적 (‘ㅎ’불규칙)
- ④ 어간의 끝 ㄷ이 홀소리 우에서 ㄹ로 변할 적 (‘ㄷ’불규칙)
- ⑤ 어간의 끝 ㅂ이 홀소리 우에서 ‘우’나 ‘오’로 변할 적(‘ㅂ’불규칙)
- ⑥ 어미 ‘아’나 어간의 아래에 오는 ‘았’이 ‘여’나 ‘였’으로 날 적(‘여’불규칙)
- ⑦ 어미 ‘어’와 어간 아래에 오는 ‘였’이 ‘러’나 ‘렸’으로 날 적(‘러’불규칙)
- ⑧ 어간의 끝 음절 ‘르’의 다음에 어미 ‘어’와
어간 아래에 오는 ‘였’이 올 적에 ㄴ가 줄고 ㄹ이 ㄹㄹ로 날 적(‘르’불규칙)

소위 으-불규칙 활용은 제5장 ‘略語’⁶⁾ 부분에서 다루었다. ‘크--+어→커, 크--+었다→켰다’를 준말 형성으로 본 것이다. 거라-불규칙 활용과 너라-불규칙 활용은 하나의 활용형(해라체 명령형)에서만 문제가 되는 아주 특수한 것들이어서 맞춤법 규정 속에 포함시킬 필요는 없다고 판단했던 듯하다.

우-불규칙 활용을 처음 언급한 것은 박창해(1946)이었다(고영근 1983:69). ‘푸다’ 한 단어에 해당되는 불규칙 활용이라서 불규칙 활용 논의에서 간과되어 오다가 박창해(1946)에 이르러 발견이 된 듯하다. 최현배(1934)에서 11가지로 정리되었던 한국어 불규칙 활용에 우-불규칙이 추가됨으로써 불규칙 활용이 12가지로 늘어났다. 우-불규칙은 ‘한글 맞춤법 통일안’을 ‘한글 맞춤법’으로 명칭도 개정하면서 그 내용도 수정 보완한 1988년에 이르러서야 맞춤법 규정에 포함되었다. 맞춤법이 보수적이라는 것을 보여 주는 한 예가 아닌가 한다. ‘한글 맞춤법’에선 종래 ‘준말’항에서 다루었던 으-불규칙 활용도 불규칙을 다루는 조항으로 가져왔다. 그리고 으-불규칙과 우-불규칙을 하나의 항목으로 묶어서 다루었다.

(3) 한글 맞춤법 ‘제18항의 4’ 어간의 끝 ‘ㄴ, ㄹ’가 줄어질 적

푸다 : 퍼 뼉다, ㄲ다 : ㄲ 뼉다, ㄲ다 : ㄲ 뼉다

한글 맞춤법과 현실 언어 사이의 괴리를 보여 주는 또 하나의 예는 ‘그러다’류 동사와 관련된 것이다. 지금까지 한국어 문법서들에서 불규칙의 종류는 대개 12가지라고 기술되어 왔다. 이는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최현배(1934)에서 제시된 11가지에 박창해(1946)에서 새로이 제시한 우-불규칙이 추가된 숫자이다.

그런데 20세기 중반에 들어서서 한국어에 또 하나의 불규칙 활용이 발생하였다. ‘그러다’류 동

6) 略語(약어) = 준말

사들의 활용이 이에 해당한다. 규칙 동사인 ‘서다, 건너다’와 ‘그러다’의 활용양상을 비교해 보면 다음과 같다.

(4) 서다 :	서고	서는	서니	서면	서	서서	섰다
건너다 :	건너고	건너는	건너니	건너면	건너	건너서	건넜다
그러다 :	그러고	그러는	그러니	그러면	그래	그래서	그랬다

‘서다, 건너다, 그러다’는 모두 어간이 모음 ‘ㅓ’로 끝나는 동사들인데, 위의 (4)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이들 동사 어간에 모음어미가 결합될 때 ‘서다, 건너다’는 규칙 활용을 하지만, ‘그러다’는 규칙 활용을 하지 않는다. ‘그러다’가 규칙 활용을 하는 동사라면, 그 어간에 모음어미가 결합할 때의 활용형은 ‘그러, 그러서, 그랬다’로 나타나야 하는데, 그렇지 않은 것이다. 따라서 ‘그러다’는 불규칙 활용을 한다고 볼 수밖에 없다.

그러면 이 ‘그러다’류를 무슨 불규칙이라고 해야 할 것인가? 필자는 어간말음 ‘ㅓ’가 ‘ㅐ’로 바뀐다고 보고서 송철의(2004)에서 이들을 어-불규칙이라고 명명하였다.⁷⁾

오늘의 관점에서 보면 ‘그러다’류는 ‘그렇다’류와 마찬가지로 분명히 독자적인 단어들이다. ‘그렇다’류가 ‘그리하다’류로부터의 발달형이라면, ‘그러다’류는 ‘그리하다’류로부터의 발달형이다. 다만, ‘그렇다’류의 발달과정은 어렵지 않게 규명되는데, ‘그러다’류의 발달과정은 그렇게 투명하지는 못하다는 차이는 있다. 그렇지만 오늘날의 한국어에서 ‘그러다’류가 독자적인 단어들이라는 사실을 부인할 사람은 없을 것이다.

이처럼 ‘그러다’류는 분명 독자적인 단어들이고 불규칙 활용을 하는데, ‘한글 맞춤법’에서는 이들에 대한 언급이 없다. ‘한글 맞춤법’에서뿐만 아니라 한국어 문법서들에서도 이 어-불규칙에 대한 언급은 최근까지 없었다. 왜 그랬을까? 이는 아마도 ‘그러다’류가 독자적인 지위를 확보한 것이 최근의 일이기 때문일 것이다. 필자가 살펴본 바에 따르면 ‘그러다’류를 독자적인 동사로 인정하기 시작한 것은 도수희(1965)인 것 같다. 도수희(1965)에서는 ‘그렇다’류를 대형용사(代形容詞)로, ‘그러다’류를 대동사(代動詞)로 설정할 것을 주장하면서 ‘그러다’류가 독자적인 동사로서의 활용을 보여 준다는 것을 확인시켜 주었다. 그 이후 한국어의 대용언(代用言)에 대한 연구가 활발해지면서 ‘그러다’류를 독자적인 용언으로 설정해야 한다는 주장들이 제기되었고, 배주채(1995)에서 ‘그러다’류의 활용 양상 및 사전적 처리에 대한 종합적 검토가 이루어졌다. 그리하여 《표준국어대사전》(1999년)에 이르러서는 ‘그러다’류가 독자적인 항목으로 등재되고 이들이 불규칙 활용을 한다는 사실이 발음 항목에서 제시되었다⁸⁾. 그러니까 ‘그러다’류는 1990년대에 와서야 그

7) ‘그러다’류가 ‘어’불규칙이라는 것을 처음 제시한 것은 일본에서 1993년에 간행된 《朝鮮語辭典》(油谷幸利 外 編)이었다. 배주채(2003)에서도 ‘그러다’류를 ‘어’불규칙으로 설명하였다.

독자성이 인정되고, 새로운 종류의 불규칙 활용을 한다는 것이 인정된 셈이다. 사정이 이러했으니 1933년에 제정된 ‘한글 맞춤법 통일안’이나 1988년에 개정된 ‘한글 맞춤법’에 어-불규칙이 반영될 수는 없었던 것이다. 그러나 언젠가는 이 어-불규칙도 ‘한글 맞춤법’에 반영이 되어야 할 것이다. 어-불규칙을 맞춤법 규정에 반영한다면 ‘한글 맞춤법’ 제18항에 다음과 같은 내용이 추가될 것이다.

(5) 10. 어간의 끝 ‘ㄴ’가 ‘ㄷ’로 바뀔 적

그러다 : 그래, 그랬다

이러다 : 이래, 이랬다

저러다 : 저래, 저랬다

4. 체언어간말 자음의 변화와 표준 발음법

현재 한국어에서는 체언어간말 자음이 단순화되는 변화의 큰 흐름이 있다. 어간말의 자음군(子音群)은 단자음(單子音)으로, 격음(거센소리)은 평음(예사소리)으로 단순화되는 변화가 진행되고 있는 것이다. 단어에 따라서는 변화가 완료된 듯한 경우도 있다.

먼저 어간말 자음군을 가지는 경우부터 살펴 보기로 하자.

(6) ㄹ : ㄹ, ㅎ, ㅈ

ㄹ : 여덟

ㅂ : 값

이들 어간말 자음군을 가지는 체언에 모음조사가 결합되면 어간말의 두 자음이 모두 발음되고, 자음조사가 결합되면 두 자음 중 한 자음만 발음되는 것이 표준 발음이다.

(7) ㅎ : ㅎ이[흘기], ㅎ을[흘글] / ㅎ과[흑파], ㅎ도[흑또]

ㄹ : ㄹ이[달기], ㄹ을[달글] / ㄹ과[닥파], ㄹ도[닥또]

여덟 : 여덟이[여덜비], 여덟을[여덜블] / 여덟과[여덜과], 여덟도[여덜도]

값 : 값이[갑씨], 값을[갑쓸] / 값과[갑파], 값도[갑또]

8) ‘그러다’ 항목의 발음정보 난에 ‘[그래, 그러니]’와 같은 활용형이 제시되었다.

서울말에서 자음군을 가지는 체언에 자음조사가 결합될 때에는 발음상의 문제가 거의 발생하지 않는다. 그런데 모음조사가 결합될 때에는 발음상에서 적지 않은 문제가 발생한다. 잘 알려져 있는 것처럼 모음조사가 올 때에도 두 자음 중 한 자음만 발음하는 경우들이 많이 나타나기 때문이다. 예를 들자면 ‘흙이’를 [흘기]로 발음해야 하는데 [흐기]로 발음한다든가, ‘닭을’을 [달글]로 발음해야 하는데 [다글]로 발음하는 예들이 많은 것이다. 그 양상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속의 발음).

- (8) 흙 : 흙이[흐기], 흙을[흐글]
 닭 : 닭이[다기], 닭을[다글]
 여덟 : 여덟이[여더리], 여덟을[여더를]
 녀 : 녀이[너기], 녀을[너글]
 값 : 값이[가비], 값을[가블]

위의 (8)과 같이 발음하는 것은 어간말 자음군을 가지는 체언어간들이 단자음을 가지는 어간으로 변화(재구조화)해 가고 있기 때문이다.

- (9) 닭>닥, 흙>흑, 여덟>여덜, 녀>넉, 값>갑

체언어간말 자음의 변화는 어간말음이 격음인 경우에도 일어나고 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ㄷ’은 ‘ㄱ’으로, ‘ㅍ’은 ‘ㅂ’으로, ‘ㅊ, ㅌ’은 ‘ㅅ’으로 변하는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 것이다. 어간말음이 격음인 체언의 예들을 몇 개씩 들어 보면 다음과 같다.

- (10) ㄷ : 부엌
 ㅌ : 걸, 밑, 발, 솥, 팔
 ㅍ : 무릎, 숲, 앞, 옆, 오지랖, 잎, 형겅
 ㅊ : 꽃, 낮, 돛, 몇, 빗, 솟, 옷

이들 체언어간에 모음조사가 결합되면 어간말음이 제 음가대로 발음되는 것이 표준발음이다.

- (11) 부엌 : 부엌이[부어키], 부엌을[부어쿨]
 솥 : 솥이[소치], 솥을[소틀]



무릎 : 무릎이[무르피], 무릎을[무르플]

꽃 : 꽃이[꼬치], 꽃을[꼬출]

어간말음이 격음인 체언의 경우에도 자음조사와 결합할 때에는 발음상에 별다른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모음조사와 결합할 때에 문제가 발생한다. 모음조사와 결합할 때 (11)과 같이 발음하는 것이 표준발음인데, 다음과 같이 발음하는 경우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12) 부엌 : 부엌이[부어기], 부엌을[부어글]

솔 : 솔이[소시], 솔을[소슬]

무릎 : 무릎이[무르비], 무릎을[무르블]

꽃 : 꽃이[꼬시], 꽃을[꼬슬]

위의 (12)와 같이 발음하는 것은 ‘부엌, 솔, 무릎, 꽃’이 각각 ‘부엌, 솟, 무릅, 꽃’으로 변화해가고 있기 때문이다.

(13) 부엌>부엌, 솔>솟, 무릎>무릅, 꽃>꽃

이는 앞에서 살펴 본 어간말 자음군을 가지는 체언들의 변화와 같은 성격의 변화이다. 두 자음이 하나의 자음으로 줄어드는 것이나 격음이 평음으로 변하는 것은 다 같이 복잡한 것에서 단순한 것으로 변하는 변화(단순화)라고 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현대한국어에서는 체언어간말 자음들이 단순화되는 방향으로 변화를 겪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같은 어간말음을 가진 단어들이라도 단어에 따라 변화의 정도는 다르다. 예컨대 어간말음이 ‘ㅍ’인 ‘무릎, 오지랴, 앞, 옆’의 경우 ‘무릎’과 ‘오지랴’는 ‘무릅’, ‘오지랍’으로의 변화가 거의 완료되어 가지만, ‘앞, 옆’은 그렇지 않은 것이다. 참고로 2004년도의 조사 결과를 보이면 다음과 같다.

(14) 무릎	: 무릎이[무르비] 58.4%,	무릎에[무르베] 63.1%
오지랴	: 오지랴이[오지리비] 74.7%,	오지랴에[오지라베] 65.25%
앞	: 앞이[아비] 5.6%	앞에서[아베서] 5.4%
옆	: 옆이[여비] 7.15%	옆에서[여베서] 5.35%

‘앞, 옆’에 대한 최근의 조사결과 보고가 없어서 단정적으로 말하기는 어렵지만, 적어도 서울말에서는 ‘앞이’를 [아비]로 발음하거나 ‘옆이’를 [여비]로 발음하는 경우가 아직은 거의 없는 것 같다. 그러니까 ‘앞’과 ‘옆’은 거의 변화를 입지 않은 것이다.

한국어의 체언어간은 근대한국어 시기(17세기-19세기)에 이미 어간말 ‘ㄷ’이 모두 ‘ㅅ’으로 변하는(‘ㄷ’말음 어간이 ‘ㅅ’말음 어간으로 변화되는) 큰 변화를 겪은 바 있다.

(15) 못(釘)ᄃᆞ, 붓(筆)ᄃᆞ, 벗(友)ᄃᆞ, 곳(處)ᄃᆞ

이러한 변화는 ‘ㄷ’ 받침을 갖는 체언의 모든 단어에서 예외없이 일어났기 때문에 현재의 한국어에는 체언으로서 어간말음이 ‘ㄷ’인 단어가 없다. 그래서 외래어를 받아들일 때에도 어간말음이 ‘d, t’인 단어를 음차(音借)하여 받아들일 경우에는 그 ‘d, t’를 ‘ㄷ’이나 ‘ㅌ’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ㅅ’으로 받아들이는 것이다. ‘robot’을 ‘로봇’이나 ‘로봣’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로봣’으로 받아들인 것은 이런 이유 때문이다. 로봇이[로보시], 로봇을[로보슬]

근대한국어 시기에 어간말 ‘ㄷ>ㅅ’ 변화를 겪은 한국어 체언은 현대한국어 시기에 와서는 어간말 자음의 단순화라는 큰 변화를 겪고 있다. 그런데 이러한 변화들은 체언어간에서만 나타나고⁹⁾ 용언어간에서는 나타나지 않는다. 한국어에서 자립형식인 체언어간과 비자립형식인 용언어간은 역사적인 변화에서도 이런 차이를 보인다는 점이 흥미롭다.

5. 언어 변화와 어문규범

앞에서 한국어 불규칙 활용의 변화 몇 가지와 체언어간말 자음의 변화에 대하여 살펴 보았다. 이런 예들을 통해서 한국어가 현대에 들어 와서도 계속 변화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다. 그런데 이런 변화들은 한국의 어문규범이 제정된 뒤에 나타난 변화들이어서 어문규범에 반영되지 못하였고, 그로 인해 어문규범과 현실 언어 사이에 괴리가 생기게 되었다.

물론 이들 변화 중에 어떤 것은(예컨대 어-불규칙이 새로 생겨난 것) 어문규범에 반영되지는 못했지만, 그 변화가 표준적인 것으로 받아들여져서 별다른 문제를 야기하지 않는다. ‘그러다’ 같은 경우, 불규칙 활용을 하는 동사이므로, 이 동사가 모음계어미와 결합할 때에는 소리나는 대로 적는다는 규정이 있어야 할 것이나 아직은 맞춤법 규정 속에 그런 규정은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경우에는 이 동사의 모음계어미 활용형을 ‘그래, 그래라, 그랬다’와 같이 표기하는 것을 누

9) ‘ㄷ>ㅅ’ 변화는 부사 ‘못’에서도 일어났다. 못>못

구나 당연한 것으로 여기고 있으며, 규범에 따른 표기인 것으로 인식을 하고 있다. 그래서 이런 변화들은 언젠가 어문규범(한글 맞춤법)에 반영하기만 하면 되는 것이다. 이들은 어문규범과 현실 언어 사이의 괴리를 보여 주는 것들이기는 하지만, 국민들의 어문생활에서 문제를 야기시키지는 않는다. 어문규범에는 해당 규정이 없지만, 언중들이 암묵적으로 현실 언어 상태를 표준적인 것으로 받아들이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비해 체언어간 말음이 단순화되어 가는 변화는 어문규범에 받아 들이기가 어려워져서 어문규범과 현실 언어 사이에 괴리가 생기게 할 뿐만 아니라 표준발음에 큰 문제를 야기시키고 있다. 언중들이 일상 언어생활에서 표준발음법에 어긋나는 발음을 하게 만들고 있기 때문이다.

6. 언어 변화와 한국어 교육

어느 나라든 자기 나라 언어를 외국 사람들에게 가르칠 때에는 표준어를 가르친다. 표준어는 온 국민이 공통으로 사용하는 언어이면서, 인위적으로 잘 다듬어진 언어이기 때문이다. 외국어를 배우는 사람도 역시 그 외국어의 표준어를 배우려고 한다. 그 나라에서 널리 통용되는 언어는 표준어일 것이기 때문이다. 여기서 표준어란 규범에 맞는 언어를 말하는 것으로서 ‘표준 발음법’에 맞게 발음하는 것까지를 포함한다.

한국어 교육을 담당하는 교원들도 한국어를 가르칠 때에는 한국어의 표준어를 가르치려고 할 것이다. ‘한글 맞춤법’에 맞게 글을 쓰고, ‘표준 발음법’에 맞게 발음하도록 가르치려고 할 것이다.

그러나 한국의 국어 교육에서 표준 발음 교육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고등 교육을 받은 사람들조차도 흔히 저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은, 표준발음법에 어긋나는 발음을 하는 경우가 많다. 한국어 교육에 종사하는 분들도 학생들을 가르칠 때에는 다음의 (16)이나 (18)과 같이 발음해야 한다고 가르치면서 자신의 일상 언어생활에서는 (17)이나 (19)와 같이 발음하는 경우가 대부분이 아닐까 생각된다. 교육 현장에서도 자신은 표준발음법대로 발음한다고 생각하면서 실제로는 입에 익은 평소의 발음으로 말을 하는 경우도 있을 듯하다. 필자가 스스로 경험한 바에 의하면 그렇다.

- (16) 흙이[흙기], 흙을[흙글]
 닭이[달기], 닭을[달글]

(17) 흙이[흐기], 흙을[흐글]
 닭이[다기], 닭을[다글]

(18) 부엌이[부어키], 부엌을[부어쿨]
 무릎이[무르피], 무릎을[무르플]
 꽃이[꼬치], 꽃을[꼬출]

(19) 부엌이[부어기], 부엌을[부어글]
 무릎이[무르비], 무릎을[무르블]
 꽃이[꼬시], 꽃을[꼬슬]

따라서 한국어 교육을 담당하는 사람들은 평소에 다른 사람들의 말과 발음은 물론이고 자신의 말과 발음도 스스로 잘 관찰해 볼 필요가 있다.

참고문헌

- 고영근(1983), 《국어문법의 연구》, 탑출판사.
 국어연구소(1988), 《한글 맞춤법 해설》.
 국립국어원 편(1999), 《표준국어대사전》, (주)두산동아.
 국립국어원(2004), 《2004 표준 발음 실태 조사 3》.
 국립국어원(2016), 《한국어의 발음 현황 조사》.
 도수희(1965), {그러나,그리고…/그러니,그러면…} 等 語辭攷, 《한국언어문학》 3, 한국언어 문학회.
 박창해(1946), 《쉬운조선말본》, 계문사. (역대한국문법대계 1-65)
 배주채(1995), ‘그러다’류의 활용과 사전적 처리에 대하여, 《한일어학논총》 (남학 이종철 선생 회갑기념논총), 국학자료원.

- 배주채(2003), 《한국어의 발음》, 삼경문화사.
- 송철의(1995), 곡용과 활용의 불규칙에 대하여, 《진단학보》 80, 진단학회.
- 송철의(1996), 우리말 발음의 문제점과 그 극복 방안, 《한글사랑》 창간호, 한글.
- 송철의(2004), ‘ㅎ’불규칙과 ‘어’불규칙에 관련된 몇 가지 문제, 《조선어연구》 2, 조선어 연구회 (일본).
- 송철의(2010), 《주시경의 언어이론과 표기법》, 서울대학교출판문화원.
- 유필재(2001), 서울지역어의 음운론적 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이기문(1970), 《개화기의 국문연구》, 일조각.
- 이익섭(1992), 《국어표기법연구》, 서울대학교출판부.
- 이희승(1959), 《한글맞춤법통일안강의》(수정판), 신구문화사.
- 정경재(2015), 한국어 용언 활용 체계의 통시적 변화, 고려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 조선어학회(1933), 한글맞춤법통일안, 한성도서주식회사. (한국역대문법대계 3-20)
- 최명옥(1988), 불규칙동사의 음운현상에 대하여 : li-, la-, ε(jə)-, h- 불규칙동사를 중심으로, 《어학연구》 24-1, 서울대학교 어학연구소
- 최현배(1930), 조선어의 품사분류론, 《조선어문연구》 (연희전문학교 문과연구집 제1집), 연희전문학교출판부. (한국역대문법대계 1-44)
- 최현배(1934), 《중등조선말본》, 동광당서점.(한국역대문법대계1-43)
- 최현배(1937), 《우리말본》 (초판), 연희전문학교출판부.
- 최현배(1955), 《우리말본》 (김고 고친 판), 정음사.
- 한수정(2014), 불규칙용언의 활용형 연구, 부산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油谷行利 外 編(1993), 《朝鮮語辭典》, 小學館.
- (참고문헌은 지면 관계상 본문에서 언급된 논저만 정리하였다.)

언어와 문화, 그리고 한국어 교육

권재일

서울대학교 언어학과 교수

1. 언어와 문화

언어는 우리의 생각과 느낌을 전달하는 수단이다. 그러나 언어는 단순히 그러한 수단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를 사용하는 사람들의 정신세계를 형성하는 구실도 한다. 그래서 한 국가나 민족은 공통된 언어 구조에 이끌려 공통된 정신과 생각을 가지게 되고 고유한 문화를 형성한다. 그러므로 언어는 이를 사용하는 국가 또는 민족, 그리고 그 문화와 밀접한 관계를 맺는다. 한국어도 한민족의 얼을 기르면서 한국 문화를 형성하는 데 매우 중요한 구실을 맡아 왔다. 그래서 우리는 한국어의 가치를 높이 인식하고 이를 올바르게 가꾸어갈 필요가 있다.

언어와 정신은 매우 밀접한 관계에 있다. 일찍이 17세기 한국의 정치가이며 소설가인 서포 김만중은 그의 서포만필(西浦漫筆)에서 다음과 같이 기술한 바 있다. 사람의 마음이 천지를 움직이고 귀신에도 통할 수 있듯이, 그 마음이 입 밖으로 나온 말 역시 그러한 힘을 가질 수 있다는 뜻이다.

사람의 마음이 입으로 나오면 말이 되고, 말에 가락이 붙으면 가시문부(歌詩文賦)가 된다. 진실로 말 잘하는 사람이 있어 각각 그 말에 따라서 가락을 붙이면 곧 죽히 천지를 움직이며 귀신에도 통할 수 있는 것이다. (허웅 1981, 「언어학」에서)

근대 한국의 대표적인 언어학자 주시경 선생 역시 언어와 정신, 언어와 국가는 매우 밀접한 관계가 있음을 제시한 바 있다. 말은 그 겨레에 모두 공통이고, 그리고 말의 구조는 그것을 쓰고 자라는 사람들의 정신을 좌우하는 힘이 있어서 한 나라 사람들은 대체로 비슷한 생각 방식을 가진다고 하였다.

말은 사람과 사람의 뜻을 통하는 것이라. 한 말을 쓰는 사람과 사람끼리는 그 뜻을 통하여 살기를 서로 도와 줌으로 그 사람들이 절로 한 덩이가 되고, 그 덩이가 점점 늘어 큰 덩이를 이루나니, 사람의 제일 큰 덩이는 나라라. 그러하므로 말은 나라를 이루는 것인데, 말이 오르면 나라도 오르고, 말이 내리면 나라도 내리나니라. 이러하므로 나라마다 그 말을 힘쓰지 아니할 수 없는 바니라.

글은 말을 담는 그릇이니 이지러짐이 없고 자리를 반듯하게 잡아 굳게 선 뒤에야 그 말을 잘 지키나니라. 글은 또한 말을 담는 기계니 기계를 먼저 닦은 뒤에야 말이 잘 닦아지나니라. 그 말과 그 글은 그 나라에 요긴함을 이루 다 말할 수가 없으나, 다스리지 아니하고 묵히면 덧거칠어 지어 나라도 점점 내리어 가나니라. (한국 천안에 있는 독립기념관에 세운 「주시경 선생의 말씀비」에서)

서양에서도 흄볼트는 “인간은 언어가 제공해 주는 대로 그 주위에 있는 세계를 인식하며 산다.”고 하였고, 비트겐슈타인은 “언어의 한계가 곧 세계의 한계”라고 하였다. 언어와 정신은 이처럼 밀접한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어서 한 사람의 언어는 그의 사고방식을 결정짓고, 나아가 세상을 인식하는 세계관까지도 결정짓는다고 하였다.

어느 보도 기사 한 토막을 들어보면, 이 기사는 말을 달리하는 나라마다 문화가 다름을 그대로 보여 주는 예이다.

충북 옥천군에 사는 70대의 A씨는 최근 태어난 손자 머리맡에 날카로운 칼이 놓여 있는 것을 보고 소스라치게 놀랐다. 칼은 베트남에서 시집온 며느리가 놓은 것으로 밝혀졌고, A씨는 불같이 화를 내며 며느리를 정신이상자로 몰아붙였다. 반면 며느리는 시어머니가 화를 내는 이유를 도저히 납득할 수 없었다. 고국 베트남에서는 나쁜 기운을 타지 않고 무탈하게 성장하도록 하는 기원을 담아 아기 머리맡에 칼을 놓는 것이 풍습이기 때문이었다. (「연합뉴스」 2006년 4월 25일자 기사 중에서)

한국어에서 내리는 ‘눈’은 하나밖에 없다. 그래서 다양한 눈을 표현할 때에는 ‘눈’ 앞에 수식어를 덧붙인다. ‘함박눈, 싸락눈, 진눈깨비 그리고 낭만의 첫눈’. 그러나 북극 지방의 이누이트어에서는 눈을 대략 스무 가지 이상으로 구분한다. 이를 들어보면 다음과 같은데, 그 지역의 문화와 어휘의 긴밀한 관계를 잘 보여 주는 예이다: akitla 물 위에 떨어지는 눈, aniu 먹는 눈, aput 쌓인 눈, briktila 잘 뭉쳐진 눈, carpitla 얼음으로 유리처럼 변한 눈, kriplyana 이른 아침 푸른 빛 뿜 눈, kripya 녹았다가 다시 언 눈, piirtuq 눈보라, pukak 고운 눈, qanik 내리는 눈, quviq 이글루 만드는 눈덩어리, rotlana 급속히 늘어나는 눈, shlim 눈 찌꺼기, sotla 햇빛과 함

게 반짝이는 눈, tlapa 가루눈, tlapat 조용히 내리는 눈, tlapinti 빨리 떨어지는 눈, tlaslo 천천히 떨어지는 눈, tlaying 진흙 섞인 눈, trinky 그 해 첫눈

알타이어족의 만주통구스어파에 속하는 솔론어에는 순록 명칭이 암수, 털색, 털무늬, 나이 등에 따라 매우 정교하게 나누어져 있다. 순록의 총칭은 *orog*이지만 각각의 이름은 적어도 서른 가지나 된다. 몽골어의 가축 이름도 이처럼 다양하다. 몽골어로 양은 *honi*, 염소는 *yamaa*, 소는 *üher*, 말은 *aduu*, 낙타는 *temee*이다. 그런데 이런 가축들이 한 살 때와 두 살 때 부르는 이름이 서로 다르다. 예를 들어, 한 살짜리 소는 *tugal*이라 부르고 두 살짜리 소는 *byaruu*라 부른다. 또한 가축똥을 부르는 말도 다르다. 양, 염소, 낙타의 똥은 *horgol*이라 하지만 소똥은 *argal*, 말똥은 *homool*이라 한다.

어휘뿐만 아니라 문법도 그 지역의 문화와 밀접한 관계를 맺는다. 예를 들어, 한국어나 영어의 경우, 과거 시제를 표현하는 것이 한 단계밖에 없다. 즉, 모든 과거는 ‘-었-’이나 -ed로 표현한다. 그러나 과거 시제를 여러 단계로 나누어 표현하는 언어가 있어 흥미롭다. 인도 동북부 아삼주에서 사용하는 티베트어의 하나인 미슈미어에는 현재로부터 가까운 과거는 -so로 표현하고, 한참 지난 과거는 -liya로 표현한다. *hã tapẽ thá-so*라 하면 조금 전에 내가 밥을 먹었다는 뜻이고, *hã tapẽ thá-liyà*라 하면 한참 전에 내가 밥을 먹었다는 뜻이다. 아프리카 잠비아에서 사용하는 반투어의 하나인 뱀바어는 더 다양하다. 그저께보다 더 과거일 경우는 -ali-, 어제쯤은 -alee-, 오늘 아침쯤이면 -aci-, 한 서너 시간 전쯤이면 -a-를 동사에 붙여 과거 시제를 표현한다. 이들 언어의 미래 시제도 이렇게 네 단계로 분화되어 있다. 여기서 우리는 언어를 통해 생각하는 방식과 문화의 다양성을 확인할 수 있다.

어떤 민족의 특성을 이해하려면 먼저 문화를 이해해야 한다. 그리고 문화를 이해하려면 그 언어를 먼저 이해해야 한다. 미국의 기술언어학이 성립된 예가 이를 보여 준다. 아메리카 토착인의 문화를 이해하려는 데에서 그들의 언어를 연구하는 방법론을 성립하였다. 또 다른 예를 들어 보면, 어떤 나라가 다른 나라를 식민 지배하려 할 때는 그 민족성을 말살하려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문화를 말살하려 한다. 이때 맨 먼저 하게 되는 것이 바로 언어의 말살이다. 한국이 일본 강점기에 겪은 일이기도 하다. 이렇게 언어와 문화는 매우 밀접한 관계에 놓여 있는 것이다.

2. 한국어와 한국 문화

이제 한국어에 반영된 한국 문화에 대해 살펴보기로 하자. 몽골어 어휘에서 가축 이름의 다양성이 유목문화의 특징이라 한다면, 한국어 어휘에는 농경문화의 특징이 담겨 있다. 영어의 rice

에 해당하는 어휘가 ‘모, 벼, 나락, 볍씨, 쌀, 밥, 뽕, 수라, 진지’ 등으로 다양하게 분화되어 있는 것이 바로 농경문화의 특징이라 하겠다. 반대로 영어의 cupcake, croissant, muffin, waffle, biscuit, roll과 같은 것을 한국어에서는 모두 ‘빵’이라 한다. 물론 ‘빵’이란 말도 서양 외래어이다. ‘삼태기, 소쿠리, 지게, 바지게, 쟁기, 쇠스랑, 호미, 팽이, 곡팽이, 배토팡이, 낫, 갈퀴, 삽, 가래삽, 가래, 고무래, 도리깨, 멩에, 보습, 씨레, 두레박, 용두레, 무자위’와 같은 농기구를 나타내는 어휘가 다양하게 분화되어 발달해 있는 것 역시 한국 문화의 한 특징을 보여 준다.

친족을 일컫는 어휘는 그 말을 쓰는 사회를 잘 반영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사람들이 그들의 친족들을 어떻게 인식하고 갈라짓는가를 잘 말해 준다. 친족명칭 가운데 예를 들어 형제자매를 살펴보면, 말레이어에서는 자기보다 나이가 많은 적든, 남자든 여자든 형제자매를 일컫는 말은 sudarā 하나뿐이고, 영어에서는 남자냐 여자냐에 따라 brother와 sister로 나뉘어 있다. 그런데 한국어는 영어처럼 남녀라는 성별이 기준이 될 뿐만 아니라 여기에다 자기보다 순위인지 손아래인지도 기준이 된다. 또한 부르는 자기가 남자인가 여자인가라는 기준도 있다. 그래서 ‘형, 오빠, 누나, 언니, 동생’ 등으로 분화되어 있어 오랜 전통문화가 언어에 녹아 있는 셈이다.

친족명칭 가운데 하나 더 살펴보자. ‘아버지’를 가리키는 어휘가 영어에서는 father 하나이다. 그러나 한국어에서는 나의 아버지인가 남의 아버지인가에 따라 ‘아버지’와 ‘아버님’으로 나뉘어 있다. 한자어로는 ‘가친(家親)’과 ‘춘부장(春府丈)’으로 나뉘어 있다. 또한 살아 계신가 돌아가셨는가에 따라서도 달리 쓰여, 돌아가신 나의 아버지는 ‘아버님’ 그리고 한자어로는 ‘선친(先親), 선고(先考)’라 한다. 돌아가신 남의 아버지는 ‘선대인(先大人), 선장(先丈)’이라 한다.

한국어에는 색깔 이름 또한 다양하다. ‘검다, 희다, 누르다, 푸르다, 붉다’ 등과 같은 기본 어휘가 있지만, 파생 어휘가 아주 다양하게 발달되어 있다. ‘누르다’만 보더라도 ‘노랗다, 노르께하다, 노르끄레하다, 노르무레하다, 노르스름하다, 노릇하다, 노릇노릇하다, 노르톡톡하다, 노리께하다, 노리끄레하다, 노리무레하다, 노릿하다, 노릿노릿하다, 노리톡톡하다, 누렇다, 누리께하다, 누르끄레하다, 누르무레하다, 누르스름하다, 누릇하다, 누릇누릇하다, 누르톡톡하다, 누르칙칙하다, 섯노랗다, 섯누렇다’ 등과 같이 셀 수 없이 많다. 자연의 다양한 색깔과 그 느낌을 이토록 다양하게 표현하는 언어가 한국어 말고 어디에 또 있을까?

어휘뿐만 아니라 한국어 문법에도 한국 문화가 녹아 있다. 높임법의 예를 들 수 있다. 화자(말하는 사람)가 청자(말듣는 사람)에게 언어내용을 전달할 때에는 여러 의향을 품고 전달하는데, 그 가운데는 화자가 청자나 언어내용 가운데 나타나는 사람에 대하여 높임의 의향을 품고 언어내용을 전달하기도 한다. 이와 같이 화자가 어떤 대상에 대하여 높임의 의향을 가지고 언어내용을 표현하는 것이 높임법이다. 흔히 한국어의 특징을 말할 때 외국어보다 높임법이 발달되어 있다고 할 정도로, 높임법은 한국어의 특징으로 꼽는 문법 현상이다. 이는 한국의 전통 문화에 바탕을 둔 것으로 볼 수 있다.

언어활동에서 전달되는 언어내용은 구체적으로 문장으로 실현되는데, 문장은 서술어와 이 서술어에 관여하는 몇몇 문장성분으로 구성된다. 그러한 문장성분 가운데 서술어와 일차적인 관계를 맺는 것이 주어이다. 문장 가운데 주어로 지시되는 사람이 있을 때, 이를 ‘주체’라 한다. 그리고 주어가 아닌 다른 문장성분들, 즉 목적어나 부사어를 객어라 하는데 객어로 지시되는 사람이 있을 때, 이를 ‘객체’라고 한다. 이렇게 보면, 언어활동에 등장하는 사람은 화자, 청자, 주체, 객체 넷이다. 다음 상황에서 광수는 화자, 동생은 청자, 아버지는 주체, 할머니는 객체이다.

광수가 동생에게 말하였다.

“**아버지**께서 **할머니**를 모시러 가셨어.”

위 상황에서 화자인 광수는 청자인 동생, 주어인 아버지, 목적어인 할머니에 대한 높임의 의향을 여러 문법 장치를 통해 실현하는 것을 볼 수 있다. 화자인 ‘광수’가 청자인 ‘동생’에게 말을 하기 때문에 ‘가셨어’라 표현하였다. 만약 높임의 대상이 되는 ‘어머니’께 말을 한다면, 청자높임의 문법형태 ‘-요’를 붙여 ‘가셨어요’라 할 것이다. 화자인 ‘광수’가 주어인 ‘아버지’를 높이기 위해 ‘가셨어(=가-시-었-어)’라 표현하였다. 주체높임의 문법형태 ‘-시-’를 사용하였다. 만약 주어가 높임의 대상이 아닌 친구라면 ‘갔어(=가-았-어)’라 할 것이다. 이번에는 화자 ‘광수’가 객어인 ‘할머니’를 높이기 위해 ‘모시러’라 표현하였다. 만약 객어가 높임의 대상이 아닌 친구라면 ‘데리러’라 할 것이다. 이와 같이 한국어에서는 화자가 어떤 대상에 대한 높임의 의향을 표현한다. 이렇게 높임법은 화자가 청자, 주체, 객체에 대하여 높임의 의향을 실현하는 문법범주이기 때문에, 높임의 대상에 따라 청자높임법, 주체높임법, 객체높임법으로 체계화되어 한국어에 자리 잡고 있다.

문화를 반영하는 것에는 어휘, 문법 외에도 관용 표현이 있다. 대표적인 관용 표현은 인사말이다. 해가 바뀌면 새해 인사를 나눈다. 세계 어느 나라말이든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라는 인사말로 건강과 부자 되기를 빈다. 아침에 서로 만나고 저녁에 헤어질 때에도 이러한 인사말을 나눈다. 이처럼 인사말에는 상대방의 안녕을 비는 인간의 보편적인 감정이 담겨 있다. 그런데 하루의 시간을 몇으로 나누어 달리 표현하는 인사말도 있다. 영어는 넷으로 나뉘는데, 아침, 점심, 저녁, 밤에 따라 Good morning, Good afternoon, Good evening, Good night 등으로 인사말이 쓰인다. 프랑스어는 셋으로 나뉘는데, 오전, 오후, 밤에 따라 Bon jour, Bon soir, Bon nuit 등으로 쓰인다. 아이슬란드어는 낮, 저녁, 밤으로, 아프리카의 니제르콩고어족에 속하는 월로프어는 아침, 낮, 밤으로 나뉘어 Jamm nga fanaane, yendul ak jamm, fanaanel ak jamm로 쓰이며, 일본어는 아침, 낮, 저녁으로 나뉘어 ‘오하요우, 곤니치와, 고펜와’로 쓰인다. 힌디어는 아침과 밤으로 나뉘어 표현된다. 이러한 시간 구분이 없는 언어에는 베트남어, 아프리카의 니제르콩고어족에 속하는 줄루어 등이 있다. 한국어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안녕?’도 시간 구분

이 없는 유형에 속한다. 그러나 불과 몇 십 년 전만 하더라도 한국어의 인사말에는 상황에 따라 다양하게 표현되었다. 아침에 어른을 만났을 때에는 ‘밤새 편히 주무셨어요?’ ‘아침 잠수셨습니까?’ 등으로 표현하고, 길에서 누구를 만나면 ‘어디 가시는 길입니까?’로 표현하고, 저녁에 어른을 만나면 ‘저녁 잠수셨습니까?’로 표현한다. 이처럼 다양한 상황에서 다양하게 인사말이 분화되어 있었다는 것은 그 당시의 문화를 반영하는 것이라 하겠다. 그러나 요즘은 어느 상황이든 단일하게 ‘안녕하십니까/안녕하세요/안녕?’이라 표현하는 것은 문화가 시대의 흐름에 따라 변화했음을 말해 준다.

3. 문화와 함께 꿈꾸며 도약하는 한국어 교육

한국이 경제적으로 발전하고 한국 문화가 빠른 속도로 외국에 전파되면서 온 세계에서 한국어의 위상이 높아졌다. 한국어 학습자 수도 크게 증가하면서 이에 따라 학습의 목적도 다양하게 전개되었다. 이러한 외국어로서 한국어 교육의 출발은 한국 문화를 이해하는 데에서 출발한다. 따라서 외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한국어 교육은 한국 문화의 이해와 함께 수행되어야 할 것이다.

한국어 교육에서 한국 문화의 이해는 한국어 학습에 직접적으로 도움이 된다. 따라서 문화 내용이 한국어 교육과정과 교육내용에 통합되어 서로 관련을 맺으며 구현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한국어 교육에서 이를 구체적으로 실현하기 위한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문화 이해를 바탕으로 하는 한국어 교육은 어휘, 문법, 관용 표현 등 모든 영역에서 두루 이루어져야 한다. 그 가운데, 예를 들어, 높임법 교육에 대해 살펴보기로 하자. 앞에서도 말했듯이 한국어의 특징을 말할 때 다른 언어보다 높임법이 발달되어 있는 점을 들 정도로, 높임법은 한국어의 특징으로 꼽히는 문법범주이다. 따라서 한국어의 높임법을 정확하게 교육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닐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한국의 문화를 이해하면서 다음과 같은 점에 유념하여 교육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다.

첫째, 청자높임법은 그 실현방법의 차이가 있지만, 어느 언어이든 존재한다. 여러 언어에서 대체로 공손 표현이라는 범주로 존재한다. 공손 표현은 상대방을 높이거나 화자인 자기를 낮추는 방법이다. 따라서 그러한 개념을 도입하여 화자가 청자에 대해 높임의 의향을 표현하는 개념이라는 것을 이해하게 하면서 청자높임법을 교육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우선 비격식체에서 청자 높임의 등급을 둘로 설정하여 [+높임]과 [-높임] 표현이 있음을 교육한다. 그리고 나서 그 다음 단계에 이르러 격식체에서도 청자높임의 등급을 둘로 설정하여 [+높임]과 [-높임] 표현이 있음

을 교육한다. 따라서 다음과 같은 단계로 교육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라 생각한다.

제1단계: 비격식체 [+높임] 표현 (해요)

제2단계: 비격식체 [+높임] (해요)과 [-높임] 표현 (해)의 구분

제3단계: 격식체 [+높임] (합니다/합니까)과 [-높임] 표현 (한다/하니)의 구분

둘째, 주체높임법의 경우인데, 주격조사 ‘-이/가’는 초급 한국어 첫머리에서 교육하여 주격조사에 대한 이해가 다 된 이후 화자가 주체에 대해 높임의 의향을 표현하는 것에 구분이 있음을 교육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그래서 그 단계에서는 주격조사 ‘-이/가’와 ‘-께서’의 대립을 교육한다. 그 다음 단계에서 주체높임동사(예: 있다-계시다, 먹다-잡수시다 등), 높임명사(생일-생신, 말-말씀 등) 사용을 어휘 차원에서 하나씩 교육한다. 따라서 다음과 같은 단계로 교육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라 생각한다.

제1단계: [-높임] 표현 (-이/가)

제2단계: [+높임] 표현 (-께서)과 [-높임] 표현 (-이/가)의 구분

제3단계: 높임동사, 높임명사를 상황에 따라 하나씩 제시

셋째, 객체높임법의 경우인데, 부사격조사 ‘-한테/에게’ 역시 초급 한국어에서 교육하여 그 이후 단계에서 화자가 객체에 대해 높임의 의향을 표현하는 것에 구분이 있음을 교육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그래서 그 단계에서는 부사격조사 ‘-한테/에게’와 ‘-께’의 대립을 교육한다. 그 다음 단계에서 객체높임동사(예: 주다-드리다) 사용을 어휘 차원에서 교육한다. 목적어인 객체에 대해서도 객체높임동사(보다-뵙다) 사용을 교육한다. 따라서 다음과 같은 단계로 교육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라 생각한다.

제1단계: [-높임] 표현 (-에게/한테)

제2단계: [+높임] 표현 (-께)과 [-높임] 표현 (-에게/한테)의 구분

제3단계: 높임동사, 높임명사를 상황에 따라 하나씩 제시

넷째,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한국 문화를 바탕으로 높임법의 개념, 그리고 그 유형을 이해하게 하여, 위에서 제시한 여러 단계를 고려하여 교육해야 하는 것이다. 즉, 청자높임법의 비격식체의 대립, 격식체의 대립에 대한 교육을 먼저하고, 다음으로는 주격조사의 대립, 주체높임어미, 부사격조사의 대립, 그리고 어휘적 차원에서 개별 동사나 명사의 대립과 같은 순서로 교육하면 바람직할 것이다.

이처럼 언어를 이해하기 위해서 문화의 이해는 필요한 과제이다. 그리고 이들은 한국어 교육은

매우 밀접한 관계에 놓여 있다. 이 점이 바로 외국인을 위한 한국어 교육에서 고려해야 할 중요한 할 과제라고 믿는다.

한국어는 한국의 정신, 한국의 문화를 담고 있는 그릇이다. 한민족의 정신을 가장 잘 담고 있는 것이 한국어이다. 한국의 가장 확실한 문화유산 또한 한국어이다. 한국어가 단순히 의사소통의 도구로서 뿐만 아니라, 문화소통의 기능을 다하도록 문화와 함께 꿈꾸며 도약하는 한국어 교육이 되어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국립국어원 (2010), 국제 통용 한국어교육 표준 모형 개발, 국립국어원.

권재일 (2012), 한국어 문법론, 태학사.

권재일 (2013), 세계 언어의 이모저모, 박이정.

권재일 (2015), '한국어 문법범주와 한국어 교육', 한국(조선)어교육연구 10, 중국한국(조선)어교육연구학회.

김종택 (2017), '언어와 문화', 그리고 역사, 한글 새소식 2017년 8월호, 한글학회.

김중섭 (2015), 한국어 교육의 이해 (수정증보판), 도서출판 하우.

어린이 한국어 수업에서 의사소통¹⁾

백봉자

한글학회 한국어교육원 원장

1. 어린이의 특성과 한국어 교육

새 학기 시작하는 전 날 밤 교사는 잠을 설치기 일쑤다. 이번 학기 내 학생은 어떤 사람일까, 말썽쟁이는 없을까, 잘 가르칠 수 있을까 하는 고민들이 꼬리를 문다. 준비를 완벽하게 했다 해도 수업을 성공적으로 이끈다는 것이 만만치 않기 때문이다. 마침내 그 날, 교사는 교실 가득 찬 환영 분위기로 안도도 하지만 때로는 비호감의 눈빛과 마주쳐 실망도 한다. 그런데 어린이 교실이라면 한 학기를 예측하기가 쉽지 않다.

어린이에게 수업은 재미있어야 한다. 물론 이 점은 성인 대상에서도 마찬가지다. 그러나 어린이는 주위가 산만하기 때문에 학습에 집중하게 한다는 것이 쉽지 않다. 성인은 이성이 있으므로 분위기를 살피고 인내하려 하지만 어린이는 본능이 우선하기 때문에 흥미 없는 수업은 집중하지 않는다.

어린이는 가르치고 배우는 것에 대한 개념이 희박하다. 더구나 말을 배우겠다는 생각, 특히 한국어를 배워야 한다는 의지가 별로 없다. 이미 알고 있는 단어와 문장을 가지고 의사소통 하는 것으로 만족하고 불편을 느끼지 않는다. 이러한 대상을 놓고 교수-학습을 하기란 쉽지 않다. 따라서 교사는 가르치는 것을 지양하고 어린이 스스로 배우고 말할 수 있게 유도해야 한다. 학습자에게 자극을 주어 반응하게 하고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참여할 수 있게 이끌어야 한다. 교사는 가르치는 사람이 아니라 돕는 이로서 역할을 해야 한다. 돕는 이로서 어떻게 해야 할까를 늘 생각해야 한다.

1) 이 글은 2017년 5월 17일 재외동포재단 한글학교협의회 실무자 설명회(워크숍)에서 대화로 나눈 내용을 정리한 것이다.

우리 옛 어른들은 서너 살 된 아이가 엉뚱한 말을 하거나 숙성한 행동을 하면 “저래 뵈도 속에 영감이 들어앉았다.”는 말을 하였다. 어린이의 지적 수준은 겉으로 보이는 것보다 또 어른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높다. 수업에서 어린이의 지적 수준을 자극하여 도전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야 한다. 인간의 능력이 무한하다는 것은 현대 문명의 발전 양상을 보면 알 수 있다. 마찬가지로 어린이의 능력도 키워 주면 키워 줄수록 그 능력은 더욱 발휘되므로 수준보다 약간 높은 질문과 사고의 유도는 오히려 발전의 자극제가 되어 도전의 기회가 된다. 한국의 역사, 지리, 그리고 정치, 경제, 민족문화와 같은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여 지식을 넓혀 준다.

어린이들의 언어는 대개 초급 단계에 있고 알고 있는 어휘 수나 문법적 지식은 거의 없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어린이들은 언어 지식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고 알고 있는 지식의 활용만으로 만족한다.

어린이 언어 교육에서 어휘와 문법의 난이도는, 인지로 습득하는 성인 학습자와 달리 별로 문제가 되지 않는다. 어린이들은 자기가 알고 있는 적은 수의 어휘만으로도 관심 있는 이야기는 이해한다. 오히려 어린이는 자기가 관심을 가진 사소한 일에서 재미를 발견하거나 스스로 재미를 만들어내는 능력이 있다. 또 사물을 보고 상상하고 환상에 젖는 특성이 있다. 그것으로 기쁨을 얻는다. 이때를 놓치지 말고 그것을 주제로 하여 활용하도록 해야 한다.

어린이는 참을성이 적고 기분에 치우칠 때가 많다. 그러므로 어린이 학습 내용은 반드시 어린이가 관심을 가진 것이어야 어린이에게 의미가 있는 것이 된다. 어린이가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것, 가정이나 학교에서 자주 접하는 소재로 시작하여 확장해 나간다. 그러면서 과제 수행 중심이 되어 배운 것을 실제로 사용할 수 있도록 이끌어 준다.

한국어 교육에서 어린이의 이러한 특성과 욕구를 충족시켜 주는 것은 매우 중요하며 어린이 교육을 성공으로 이끄는 길이다.

2. 원활한 의사소통을 위한 요건

수업에서 어린 학생과 호흡을 잘 맞추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 요즘 어린이는 예전과 달리 웬만한 것에는 흥미를 느끼지 못하고 반응도 보이지 않는다. 원래 어린이는 정제된 분위기를 싫어하는 특성이 있기도 하지만 현대 사회의 자극적인 매체의 영향도 큰 것 같다. 살아서 움직이고 생

동하는 교실 분위기, 교사와 학습자가 일체가 되어 돌아가는 분위기를 만들기 위해서 다음 몇 가지를 생각해 보자.

‘사회적 의사소통’이란 사회적으로 소통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한다. 사회적 상호작용과 사교성 같은 사회적 혜택을 교환하는 행동과 언어적 행동이 ‘사회적 의사소통’을 구현한다고 보는 것이다. 이것은 상호작용하는 두 가지 요인, 즉 의사소통 능력과 언어 능력에 기반을 두고 있다고 한다. 사람은 ‘사회적 의사소통’을 해야 하지만 신체적 장애나 또는 어떤 문제로 언어 능력에 의존하기 어려울 경우에는 상호작용 참여자와 관계를 설정하고, 의사소통의 목적에 맞게, 언어 체계에서의 기반을 활용하여 ‘사회적 의사소통’을 할 수 있다는 것이다.²⁾ 이러한 입장에서 보면 한국어 수업에 온 학습자는 사회적 소통을 하기에는 언어 능력이 부족한 사람이다. 그러므로 상호작용 참여자인 교사 또는 동료 학습자와 관계를 설정해야 한다. 의사소통의 목적으로서 수업 목표를 정하고 문화로 대변되는 세계인의 보편적 지식과 언어 체계 안에서의 화용적 지식을 활용할 수 있게 전략을 짜야 한다. 교사는 특히 학습자를 지배하고 영향을 주는 학습자 문화에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1) 문화가 다르다는 것을 인정한다

언어가 다르다는 것은 문화가 다르다는 것을 의미한다. 한국어 교실은 사회문화적 배경이 다른 사람이 모인 공간이다. 연령, 성장 배경, 학습 경험이 다른 사람이 한국어를 배우기 위해 모인 곳이다. 동포 자녀들이 모인 한글학교 교실은 같은 또래의 같은 문화를 가진 어린이가 모인 공간이 될 수 있지만 교사가 한국인일 때 또는 교사가 한국어를 매개어로 사용할 때 어린 학습자들은 교실이 일상적으로 접하는 현지 학교나 사회와 달라 적응하기 어렵다. 이들에게 외국어인 한국어는 이들의 사회문화적 배경과는 다른 환경에서 태어난 언어이므로 낯선 언어가 될 수밖에 없다. 이 경우에 교사와 학습자가 함께 사회문화적 공감대를 만들고 교사와 학생, 학생과 학생이 공동체문화를 만들어 나아간다면 호흡이 맞는 즐거운 수업을 할 수 있을 것이다.

문화적 배경이 다르다는 것은 감각의 세계가 다르다는 것을 의미한다. 문화는 청각, 시각, 미각, 촉각, 후각에 영향을 주어서 같은 소리도 달리 들리게 하고³⁾ 사물에 대한 평가나 느낌, 가치

2) Rathmann, Christian(2016), “사회적 의사소통”, 『수화언어와 사회적 의사소통』 국립국어원·한국농아인협회 주최 2016 국제학술대회 발표집, 17쪽. 이 자료집에는, “사회적 의사소통은 상호작용하는 두 가지 요인, 즉 의사소통 능력과 언어 능력에 기반을 두고 있다. 의사소통 능력은 지식 기반과 더불어, 1) 복수의 상호작용 참여자와의 관계, 2) 의사소통의 목적, 3) 세계 지식, 4) 언어 체계에서의 지식 기반의 활용을 의미한다. 언어적 능력은 언어 요소의 5차원적(담화, 의미, 구문, 형태, 음운) 지식과 활용, 그리고 화용적 사회언어학적 지식과 활용을 의미한다.”라고 기술하고 있다.

3) 언어권에 따라 동물의 소리를 다르게 표현하는 것이 문화와 언어가 청각에 영향을 준다는 것을 증명하는 한 예이다. 우리는 새 소

관의 기준도 다르게 한다. 따라서 한국어 교실에서는 교사와 학습자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는 학습자와 학습자 사이에 문화적 차이가 있음을 인정하는 자세가 필요하고 같은 사회문화 공동체의 일원이 되려고 노력해야 수업을 제대로 진행할 수 있다.

어린이를 가르치는 교사는 성인 학습자를 가르치는 교사와 다른 면이 나타날 수가 있다. 즉 잘 가르치겠다는 신념이 지나치게 표출되는 경우이다. 그러나 한국어 수업은 가르치는 수업이라기보다 배울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수업이 되어야 하고 교사는 학습자가 이해한 것을 자기의 경험이나 지식과 상호작용하면서 스키마를 활성화해 생산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러한 과정은 어린 학습자의 특성을 알고 그들의 생각을 존중해 주면서 그들에게 맞는 내용과 방법으로 이끌어줄 때 성공할 수 있다. 한국인 교사가 특히 주의해야 할 것은 학생을 일방적으로 자기 문화나 자기의 사고방식에 끌어들이지 않는 것이다. 한국의 전통 문화를 소개하고 적응하도록 해야 하겠지만 어린 학습자에게 거부감을 주면 성공할 수 없다. 하나의 목표를 위해 교사와 학습자가 협력하여 조화로운 공동체 문화를 만들어 갈 때 최고의 수업을 할 수 있는 것이다.

2) 의사소통을 할 수 있도록 신호 체계를 만든다

말이 안 통하는 초급 학습자는 청각을 못 쓰는 농인과 같다. 그러나 교사와 학습자는 사회적 의사소통을 해야 교수-학습이 이루어진다. 그러기 위해서 교사는 언어 이외의 수단을 동원하여 그들만이 통할 수 있는 의사소통 체계를 만들 필요가 있다.

상호작용의 참여자가 공통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언어 이외에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 제일 손쉬운 것이 신체를 활용한 신호 체계의 구축이라고 생각한다. 신체에서 의사소통을 할 수 있는 도구는 눈, 손, 몸이다. 이들을 결합하면 표정, 움직임 등 표현해 낼 수 있는 것이 얼마든지 있다. 담화에서 이들 도구는 담당할 수 있는 기능적 역할이 있으며 이것은 구조적 형식을 갖춘 것이기도 해서 표현이 구체적이고 정확하여 생각보다 활용 범위가 넓다.

첫 시간에 교실에 들어가면 교사는 학습자와 표정으로 인사를 나눈다. 표정의 중심에는 눈이 있고 눈으로 감정을 표현한다. 수업에서 눈으로 무언의 대화를 나누는 것은 자주 있는 일이지만 교사는 의식하지 못할 때가 많다. 눈은 참으로 다양한 표현을 한다. ‘눈웃음, 눈초리’ 등 눈과 관련 있는 어휘가 많은 것만 보아도 눈으로 할 수 있는 상호작용이 다양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리, 개 짖는 소리, 닭 우는 소리를 다르게 표현하고 아침에 만나는 장례 차에 대한 느낌, 김치 냄새, 된장 냄새, 치즈 냄새에 대한 평가, 아이 머리를 만지는 것, 어른 어깨에 손을 올려놓는 것과 같은 타인의 신체 접촉에 대한 느낌도 언어권에 따라 가치를 다르게 말한다. 이것은 문화가 감각에 얼마나 영향을 주는지 말해 주는 예이다.

격려하고, 칭찬하고, 지시하고, 지적하고, 독려한다. 수업이 구체적으로 이루어질 때는 개인과의 눈 맞춤, 전체와의 눈 맞춤으로 수업을 멋지게 진행할 수 있다.

손은 한국어를 가르치는 교실에서 신호 체계를 만드는 데 첫 번째 도구가 된다. 손으로는 세밀한 부분까지 표현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상호작용에 큰 도움이 된다. 외국어 교육에서 교육의 기본은 반복해서 외우고 기억하는 것이다.⁴⁾ 학습자가 어휘나 문법을 기억하지 못하면 그 다음 단계로 나아갈 수 없다. 반복해서 기억할 수 있을 때까지 외운다는 것은 인간에게는 괴로운 일이다. 손은 이러한 과정을 교수할 때 사용한다. 전체가 연습해야 할 때 팔을 벌렸다가 안으로 모은다든지 개인을 시킬 때 손으로 지적하면 시간을 절약하여서 수업을 속도감 있게 진행할 수 있다. 무엇보다도 수업을 끊지 않고 해서 학생의 집중도를 높일 수 있다. 수업을 단절 없이 진행한다는 것은 산만해지기 쉬운 어린이 교실에서 학생들의 집중력을 모으는 데 도움이 된다. 학생들은 합창을 하며 수업에 참여한다는 생각에 자신감이 생기고 교실은 활기를 띄게 된다. 손을 사용하면 수업이 지해롭게 이끌고 나아갈 수 있는 기술을 가진 교사의 수업은 늘 활발하고 생동감이 넘친다.

손짓뿐 아니라 몸짓도 의사소통을 위한 도구로 사용할 수 있다. 손짓이나 몸짓에 감정을 넣어서 교사는 학생과 감정의 범위를 공유한다. 그러기 위해서 교사는 항상 학생을 바라보고 얘기하고 학생은 교사를 쳐다보며 교감한다.

교사와 학습자의 신호체계는 교실 수업의 약속이다. 이 약속은 학기가 시작되고 곧바로 이루어져야 한다. 교사는 몇 개의 신호를 만들고 그것을 일정한 의미로 사용한다고 알려준다. 의사가 전달되고 소통이 되면 교사와 학습자는 한마음 한 뜻이 되어 목표를 향해 달릴 수 있게 된다.

3. 읽기 교육과 능동적인 참여

어떻게 하면 학습자를 수업에 능동적으로 참여하게 할 수 있을까? 사실 읽기는 학습자들을 수업에 끌어들이기 어려운 언어 기능이다. 교사 혼자 읽어 주고 뜻풀이 하는 식으로 넘기기 쉬운

4) 반복하고 외우기는 청각구두 교수법에서 나온 방법이다. 언어를 구조적인 면에서 문형 중심으로 보고 문장을 반복하여 연습하고 기억하게 함으로써 언어 습득을 하게 하는 방법이다. 이 교수법은 인간의 사고와 창의성을 무시하는 기계적인 방법이라 하여 배척받기도 하였다. 그러나 효과적인 언어 교수법은 학습 대상과 교과 내용, 환경, 그리고 수업의 과정에 따라 여러 교수법을 통합해서 사용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또 입력된 것을 기억해야 생산해 낼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과목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교수법을 제대로 선택한다면 읽기도 말하기처럼 학습자를 얼마든지 참여시킬 수 있다.

다음에서 상호작용 읽기 접근법에 대해 알아보고 학습자들의 참여를 어떻게 유도하는지 살펴보자.

1) 상호작용 읽기 접근법(텍스트 이해 과정)의 개념

상호작용 읽기 접근법은 하향식 읽기 지도법의 발전 형태이다. 상향식 접근법이 의미 해석에 중점을 두고 음운, 형태, 문장의 이해 능력 향상에 노력하는 것과는 달리 이것은 구성주의에 기초를 두고 독자와 텍스트 사이의 상호작용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다.

하나의 텍스트를 구성할 때 필자는 다양한 텍스트를 참고한다. 그리고 필자는 자기의 지식과 경험 그리고 창의적인 생각을 더하여 그 텍스트가 완결된 텍스트가 되도록 노력한다. 하지만 독자는 그 텍스트를 읽을 때 필자의 생각만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은 아니다. 독자는 텍스트를 읽는 과정에서 나름대로 생각과 해석을 하게 된다. 독자의 과거 경험과 지식을 동원하여 그 텍스트와 상호작용을 하면서 해석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하나의 텍스트는 필자와 독자를 통해 여러 단계와 여러 종류의 이해 과정을 거치면서 완성된다고 할 수 있다.

이 과정은 독자의 입장에서 보면 인식하기→해석하기→이해하기 단계로 이루어진다.⁵⁾

인식하기 단계- 텍스트를 사실적으로 파악하는 단계로 낱말, 문장, 담화를 기호로서 있는 그대로 인식한다. 이때 독자는 글을 표면적으로 이해하여 내적 텍스트를 구성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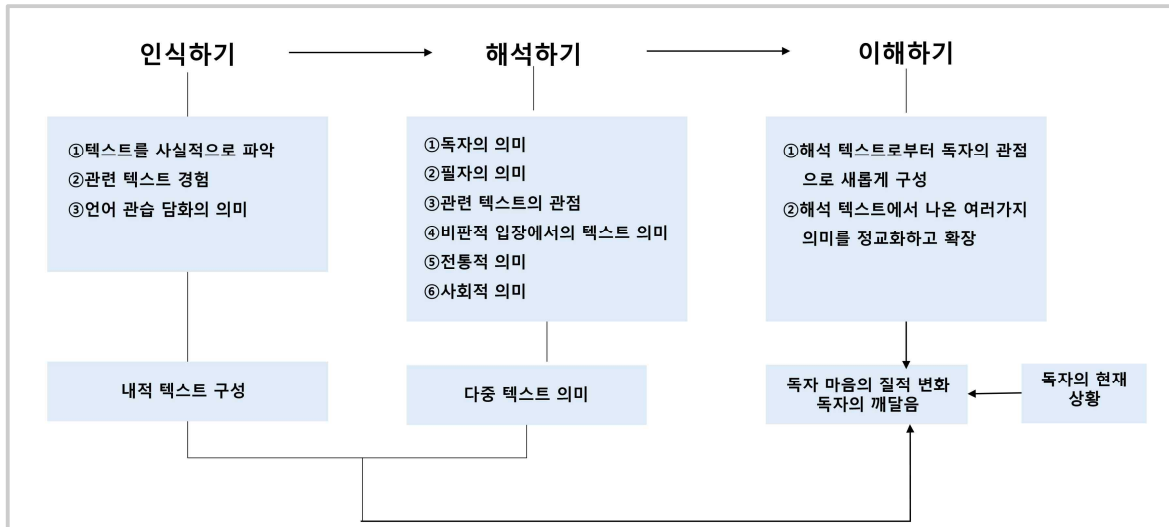
해석하기 단계- 독자는 필자의 의미를 해석함과 동시에 독자 자신의 의미를 찾는다. 다른 텍스트와의 관련성, 비판, 사회문화적 의미로 해석하여 다중텍스트의 의미를 찾는다.

이해하기 단계- 해석 텍스트에서 독자의 관점으로 새롭게 구성한 것을 정교화하고 확장한다.

이렇게 독자는 텍스트 읽기를 통해 여러 단계와 다양한 과정을 거치면서 상호작용을 하고 스스로 자기만의 텍스트를 구성하는 것이다. 그렇게 함으로써 읽기(독서)는 결과적으로 독자가 정서적으로 발전하고 경험을 갖게 하며 인생을 풍요롭게 하고 성숙한 인간으로 성장하는 계기를 마련한다.

5) 백봉자(2013), 『한국어 수업, 어떻게 하는가?』 도서출판 하우, 127쪽.
김도남(2003), 『상호 텍스트성과 텍스트 이해 교육』, 박이정, 159-252쪽.

텍스트 이해 과정⁶⁾



백봉자(2013), 『한국어 수업, 어떻게 하는가?』, 도서출판 하우, 128쪽.

2) 상호작용 읽기 접근법 수업의 예

한국어 교육에서 특히 어린이가 대부분인 한글학교에서 읽기 교재로 텍스트를 정하는 일은 쉽지 않다. 과거 구조주의 중심 교육에서는 어휘와 문법에 관심을 기울였기 때문에 배운 어휘와 문법을 이용하여 교사가 직접 이야기를 만들었다. 어휘와 문법을 극도로 제한하여 만든 이런 자료는 주제와 언어 수준은 학습자에게 맞아 환영을 받았지만 내용이 단순하여 흥미를 끌지 못하였다. 근래에 의사소통 중심의 교수법을 사용하면서는 실제 글이나 문학 작품을 읽기 교육의 자료로 사용하는 경우가 많아졌다. 그러나 실제 자료를 그대로 쓰는 경우에는 어휘 수준과 내용 등 고려해야 할 문제들이 있다.⁷⁾

6) 백봉자(2013), 『한국어 수업, 어떻게 하는가?』, 도서출판 하우, 128쪽.

7) 한국어 교육에서 현대 작품은 사용하기가 어렵다. 한국인의 보편적인 정서가 아닌 내용이거나 표현 때문이다. 특히 어린이 한글학교에서는 학습자의 연령과 맞지 않아 곤혹스러운 경우가 있는 것이 사실이다. 문학적 가치를 인정받고 전통적인 한국인의 사고방식을 담고 있는 작품을 사용하는 것이 안전하다.

한국어 교육에서 읽기 자료로 자주 쓰이는 근대 문학 작품으로는 황순원의 “소나기”, 이문열의 “우리들의 일그러진 영웅”, 주요섭의 “사랑손님과 어머니”가 있다. 그런데 이 작품들을 수업에서 사용해 보면 그리 만족스럽지 못한 것이 사실이다. 그 이유는 학습자의 여러 요인과 맞지 않기 때문이다. 즉 학습자의 연령과 한국어 수준뿐 아니라 내용에 등장하는 한국 사회 공동체에 대한 이해, 자연환경에 대한 경험, 주제와 관련된 학습자의 지식과 경험이 있느냐 하는 것이 이해의 한 요인으로 작용하기 때문이다. 예를 들면, “소나기”의 경우, 연령이 맞을 경우에 학습자의 경험을 떠올리게 하고 자극하면서 흥미롭게 진행할 수 있지만 한국의 초가를 날씨와 자연이 만들어내는 분위기를 모르면 이해하기 어려운 면이 있다. 자세히 묘사되고 있는 풍경이 작품의 맛을 북돋아 주는데 그것이 오히려 읽기를 하는데 걸림돌이 되어 버린다.

“우리들의 일그러진 영웅”은 교실에서 아이들 사이에 일어나는 암투와 왕따가 지금도 존재하기 때문에 이야기가 흥미진진하다. 그러나 이 작품의 바탕에는 한국의 정치사를 꼬집고 있고 그 부패가 어떤 것이었는지 말해 주고 있다. 역시 배경 지식이 문제가 된다. 그렇다고 해서 이 작품을 다루면서 정치사를 말한다는 것은 지나치게 확대하는 측면이 있어 바람직하지 않다.

“사랑손님과 어머니”는 어린이의 시각으로 본 어른들의 세계가 한글학교 초등 반 고학년이나 중등 반 연령의 어린이에게 적당할

여기서는 읽기 자료로 주요섭의 “사랑손님과 어머니”(1935년) 일부분을 선택하여 교수 모형을 보이고자 한다.⁸⁾

수준: 한글학교 중고등반

주요섭 지음 사랑손님과 어머니

(전략) 어느 날은 점심을 먹고 이내 살그머니 사랑에 나가 보니까 아저씨는 그때에야 점심을 잡수셔요. 그래 가만히 앉아서 점심 잡숫는 걸 구경하고 있노라니까, 아저씨가,

“옥희는 어떤 반찬을 제일 좋아하누?”

하고 묻겠지요. 그래 삶은 달걀을 좋아한다고 했더니 마침 상에 놓인 삶은 달걀을 한 알 집어 주면서 나더러 먹으라고 합니다. 나는 그 달걀을 벗겨 먹으면서,

“아저씨는 무슨 반찬이 제일 맛나우?”

하고 물으니까, 그는 한참이나 빙그레 웃고 있더니,

“나두 삶은 달걀.”

하겠지요. 나는 좋아서 손뼉을 짹짹 찌고,

“아, 나와 같네. 그럼, 가서 어머니한테 알려야지.”

하면서 일어서니까, 아저씨가 꼭 붙들면서,

“그러지 말어.”

그러시지요. 그래도 나는 한번 맘을 먹은 다음엔 꼭 그대로 하고야 마는 성미지요. 그래 안마당으로 뛰쳐 들어가면서,

“엄마, 엄마, 사랑 아저씨두 나처럼 삶은 달걀을 제일 좋아한대.”

하고 소리를 질렀지요.

“떠들지 말어.”

하고 어머니는 눈을 흘기십니다.

그러나 사랑 아저씨가 달걀을 좋아하는 것이 내게는 썩 좋게 되었어요. 그것은 그다음부터는 어머니가 달걀을 많이씩 사게 되었으니까요. 달걀 장수 노친네가 오면 한꺼번에 열 알도 사고 스무 알도 사고 그래선 두고두고 삶아서 아저씨 상에도 놓고 또 으레 나도 한 알씩 주고 그래요. 그뿐만 아니라 아저씨한테 놀러 나가면 가끔 아저씨가 책상 서랍 속에서 달걀을 한두 알 꺼내서 먹으라고 주지요. 그래 그담부터는 나는 아주 실컷 달걀을 많이 먹었어요. (후략)

것 같다. 특별할 것 없는 일상을 어린이 말씨로 이야기하고 있어서 무리가 없어 보인다. 다만 지나치게 정적이어서 적극적인 사고를 하는 서양어권 어린이에게는 이해하기 어려운 면이 있다. 왜 아저씨와 엄마는 사랑한다는 고백을 못하고 헤어졌는지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이 나올 수 있다. 여기서 서양과 동양의 사고의 차이를 이해시킨다. 이 작품이 오래되어 학습자와 맞지 않는 부분이 있다는 시각도 있을 수 있다. 그러나 현대 사회에서도 사람은 성격과 환경에 따라 개인차가 나타난다. 사람은 체면과 양심을 중시하는 습성 때문에 쉽게 이기적인 생각을 못하는 경우가 있다.

8) 제시 순서와 수업의 난이도는 교실 상황보다 텍스트 이해 과정을 고려하였다.

인식하기 단계

- 모르는 단어는 교사가 미리 준비하여 프린트로 알려주고 예습하게 한다.(텍스트를 사실적으로 파악)
- 교사는 모르는 말이 있는지 묻는다.
- 학습자의 호기심을 자극하기 위해서 관련 비디오를 보여 줄 수 있지만 전체를 보여주는 것은 읽기에 방해가 된다.
- 인식하기 단계에서 교사는 질문응답으로 학습자를 적극적으로 참여시킨다.
- 교사는 될 수 있는 대로 정답을 주지 않는다. 정답을 준다는 것은 학습자의 사고를 정형화해서 자유로운 사고를 막는 것이 된다.

(텍스트를 사실적으로 파악)

아저씨가 삶은 달걀을 좋아한다고 맞장구를 친 이유는 무엇일까요? 두 가지만 말해 보세요.

아저씨가 빙그레 웃었는데 이 웃음에는 어떤 의미가 있어요?

아저씨가 계란을 좋아한다는 사실을 안 엄마는 어떻게 했어요?

(언어 관습과 담화의 의미)

옥희는 어떤 기분으로 “나는 한번 맘을 먹은 다음엔 꼭 그대로 하고야 마는 성미지요.”라고 말했을까요?

엄마가 “떠들지 말어.”하고 눈을 흘긴 이유는 무엇입니까?

어른들은 왜 옥희가 말을 못하도록 말리는 것일까요?

(관련 텍스트 경험)

황순원의 “소나기”읽어 보았어요?

이 작품과 비슷하지 않아요?

해석하기 단계

- 이 단계에서는 학습자가 자기의 지식과 경험을 활발하게 동원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재미 있는 글이라고 해도 자기와 직접 관련이 없으면 흥미를 느끼지 못한다는 사실을 교사는 읽기와 듣기 같은 이해 교육을 할 때 특별히 유의해야 한다.
- 교사는 학습자 개인의 과거 경험과 지식에 관심을 가지고 있어야 학습자의 스키마를 자극할 수 있다.
- 스키마가 없는 학생에게 스키마를 만들어 줄 수 있는 다양한 예를 미리 준비한다.

- 독자, 필자, 관련 텍스트와 연계하여 비판적 입장에서 다각도로 생각하게 한다.
- 학습자의 지식과 경험을 동원하여 작품을 해석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한다. 이때 교사는 학습자의 스키마를 활성화하도록 노력한다.

(독자의 의미 또는 필자의 의미)

이 작품에서 삶은 달같이 의미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 이 작품이 쓰인 1935년대는 한국이 일제 시대였고 전쟁 중이었으므로 식량이 부족한 가난한 시대였다.

달같은 소품 가는 날이나 생일에나 한 개씩 먹을 수 있는 정도의 고급 식품이었다.

- 사랑의 씨 또는 사랑이라는 생명체를 품은 알
- 달같은 아저씨-옥희, 아저씨-엄마, 엄마-옥희를 연결해 주는 사랑의 매개체 역할을 하고 있다.

(필자의 의미)

필자는 작품 구상 때 달같은 사랑의 매개체로 생각하고 썼을까요?

(전통적 의미)

아저씨와 엄마는 이룰 수 없는 안타까운 사랑을 하였는데 이것을 한국의 전통적 의미로 생각해 보세요.

옛날 한국 사람들은 사랑을 감추고만 살았을까요? 그렇지 않은 이야기를 알고 있어요?

만일 아저씨와 엄마의 사랑이 그냥 계속되었다면 그 당시에는 사회적으로 어떤 비판을 받았을까요?

(사회적 의미)

여러분이 살고 있는 사회에서는 이런 “사랑”을 어떻게 평가할까요?

(관련 텍스트의 관점)

황순원의 “소나기” 에서 사랑의 매개 역할을 한 것은 무엇입니까?

“소나기”가 이 소설과 같은 점은 무엇입니까? 다른 점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읽은 소설 중에 이것과 관련 있는 책이 있어요?

이해하기 단계

- 마무리 단계가 되도록 한다. 토론이나 좌담회를 하면서 자기의 생각을 기탄없이 펼 수 있게 한다.

- 드라마나 연극 등으로 역할 놀이를 한다.
- 현재 자신의 문제에 대해 의미를 부여한다.

여러분이 아저씨, 엄마의 입장이라면 어떻게 했을까요?
 옥희가 할 수 있는 역할에 대해서 이야기해 봅시다.

여러분은 이러한 사랑을 어떻게 생각해요? 동의해요? 찬반으로 나누어서 토론이 되도록 유도한다.
 이들은 어떻게 하는 것이 바람직할까?

현재 여러분에게 이런 일이 생긴다면 어떻게 하겠어요?(성인 학습자에게, 또는 어린이 학습자에게 조심스럽게)

혹시 여러분은 사랑하는 사람이 있는데 말을 못하는 경우는 없어요? 짝사랑하는 사람이 있으면 말해 보세요. 우리가 도와줄게요.(학습자의 현재 상황)

나는(교사는) 한국인의 전통적 이성관(남녀 사이의 사랑)에 장점이 많다고 생각하는데 어때요?
 감정의 노출을 되도록 숨기는 문화는 한국인만이 가진 고급스러운 문화라고 생각하는데 여러분은 어때요?

한복은 몸을 많이 감추는 옷입니다. 속옷을 아주 여러 겹 입는 옷이에요. 아저씨와 엄마의 사랑은 노출을 안 하는 한복과 관련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해요?



한국어 어문 규정의 이해

정호성

국립국어원 어문연구과장

한국어의 문자인 한글은 배우기도 쉽고 활용하기도 쉬운 문자로 알려져 있다. 그런데 수많은 표기·표현의 오류에서 볼 수 있듯이, 어문 규범에 맞게 글을 쓰는 일은 쉽지 않다. 한글이라는 문자는 익히기 쉽지만 한글로 한국어의 어문 규범에 맞게 적는 일은 그리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이다.

어문 규범의 오류 가운데에는 표준어와 지역어를 혼동한 경우도 있고(감기가 {나았다 / *나셨다}), 한글 표기가 잘못된 경우도 있다.(온 세상이 눈으로 {덮였다 / *덮혔다}. 오늘이 {며칠 / *몇 일}이지?) 그리고 일정한 규정에 따라 적어야 하는 외래어의 표기도 사람마다 달리 적어 혼란을 일으키는 경우도 있다.(케이크 / *케익 / *케익) 또한 한국어의 인명·지명 등을 로마자로 표기할 때도 아주 많은 혼란을 보이고 있다.(철수: Cheolsu / *Chulsu / *Chulsoo, 부산: Busan / *Pusan)

이에 한국어의 어문 규범에 어떤 것이 있으며, 각각의 핵심 내용이 무엇인지를 알아보도록 한다. 그리고 어문 규범 가운데 한글 맞춤법의 근간이 되는 원칙이 무엇인지를 파악한 후, 한글 맞춤법 안에서도 흔히들 혼란스러워하는 어형을 중심으로 한글 맞춤법의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기로 한다. 그런 다음에 표준어의 영역에서도 일반 언중들이 혼동하거나 흔히 잘못 쓰는 예들을 살펴보기로 한다.⁹⁾

9) 한국어 어문 규범의 자세한 내용과 해설은 국립국어원의 누리집(www.korean.go.kr) 참조 바람. 또한 온라인 국어문화학교(<http://edu.korean.go.kr>)도 개발하여 강좌를 제공하고 있으므로 이를 활용하기 바람.(한글 맞춤법 20차시, 표준어 규정 13차시, 외래어 표기법 8차시, 로마자 표기법 3차시 등 13개 강좌 운영 중)

I. 한국어 어문 규범의 종류

종류	규정 취지	내용(범위)
1. 표준어 규정	같은 의미를 나타내는 여러 형태의 단어 가운데 어떤 단어를 표준으로 선정할 것인지 원칙을 제시함.	표준어 사정 원칙, 표준 발음법
2. 한글 맞춤법	표준어를 한글로 어떻게 표기할 것인지에 대한 원칙을 제시함. 띄어쓰기를 포함하고 있으며, 부록으로 문장부호 규정도 있음.	철자법, 띄어쓰기, 문장부호(부록)
3. 외래어 표기법	한국어의 외래어를 한글로 어떻게 표기할 것인지에 대한 원칙을 제시함. 모두 21개 언어에 대한 표기 세칙이 마련되어 있음.	영어, 독일어 등 21개 언어의 표기 세칙
4. 로마자 표기법	한국어의 표준 발음을 로마자로 어떻게 표기할 것인지에 대한 원칙을 제시함.	국어의 로마자 표기 원칙

1. 표준어 규정

(1) 표준어 사정 원칙

○ 구성: 총칙, 발음 변화에 따른 표준어 규정, 어휘 선택에 따른 표준어 규정 등 모두 26항

○ 총칙

- 제1항 표준어는 교양 있는 사람들이 두루 쓰는 현대 서울말로 정함을 원칙으로 한다.
- 제2항 외래어는 따로 사정한다.

- 예: · 부추/분추/정구지/술/줄/줄/소풀/세우리/염지 → 부추
 · 정지/벽/부석/부수개/정제간 → 부엌
 · 칩간/정낭/통시/통구시 → 변소
 · 강남콩/*강남콩, 사글세/*삭월세, 둘째/*두째, 으레/*으레
 · 나팔꽃/*나발꽃, 살갱이/*삼갱이, 오뎅이/*오뎅이/*오펅기

※ 복수 표준어

가엸다/가염다, 여쭙다/여쭈다, 가뭄/가물, 만큼/만치, 멀찌감치/멀찌가니/멀찍이, 판전/판청, 모쪼록/아무쪼록, 벌레/버리지(‘벌거지/벌러지’는 비표준어임), 보조개/볼우물, 우레/천둥, 의심스럽다/의심쩍다 …… (표준어 규정 제26항 참조)

(2) 표준 발음법

○ 구성: 총칙, 자모음의 발음, 음의 길이, 받침의 발음, 음의 동화, 경음화, 음의 첨가 등 모두 30항

○ 총칙

- 제1항 표준 발음법은 표준어의 실제 발음을 따르되, 국어의 전통성과 합리성을 고려하여 정

함을 원칙으로 한다.

○ 예: 눈:보라, 말:씨, 밤:나무

밟는[밤:는], 입고[일꼬], 늑지[늑찌] / 색연필[생년필], 눈요기[눈노기]

옷 입다[온닙따], 잘 입다[잘립따] / 금융[금농/그똥], 검열[검:넌/거:멜]

※ 맛있다[마딤따/마신타], 멋있다[머딤따/머신타] - 둘 다 허용

2. 한글 맞춤법

○ 구성: 총칙, 자모, 소리에 관한 것, 형태에 관한 것, 띄어쓰기, 그 밖의 것 등 모두 57항 및 문장 부호(부록)

○ 총칙

- 제1항 한글 맞춤법은 표준어를 소리대로 적되, 어법에 맞도록 함을 원칙으로 한다.
- 제2항 문장의 각 단어는 띄어 씀을 원칙으로 한다.
- 제3항 외래어는 ‘외래어 표기법’에 따라 적는다.

○ 예: 〈한글 맞춤법〉 며칠/*몇일, 아니요/아니오, 만듭/*만듬, 설거지/*설겅이, 얇따랴다/얇다
랴다

웬지/*웬지, 돼요/*되요, 가져라/*갓어라, 나무꾼/*나뭇꾼, 솔직히/솔직이

〈띄어쓰기〉 김철수/ *김 철수, 떠났는지 몰랐다 / 떠난 지 한 달 지났다.

나만의 비밀 / 두 달 만에 / 집채만 한 고래 / 형만 한 아우 없다 / 읽을
만하다

비 오는데 뭐 하고 있니? / 비 오는 데가 없다

〈부록-문장 부호〉 1988년 이후 26년 만에 개정됨.

※ 2014. 10. 27. 문장 부호 용법 보안을 위한 ‘한글 맞춤법 일부개정안’ 고시(문화체육
관광부)

주요 변경 사항	이전 규정	설명
가로쓰기로 통합	세로쓰기용 부호 별도 규정	그동안 세로쓰기용 부호로 규정된 ‘고리점(.)’과 ‘모점(.)’은 개정안에서 제외. ‘낫표(「, 『』)’는 가로쓰기용 부호로 용법을 수정하여 유지.
문장 부호 명칭 정리	‘.’는 ‘온점’ ‘,’는 ‘반점’	부호 ‘.’와 ‘,’를 각각 ‘ 마침표 ’와 ‘ 쉼표 ’라 하고 기존의 ‘온점’과 ‘반점’이라는 용어도 쓸 수 있도록 함.
	‘〈〉, ≪≫’ 명칭 및 용법 불분명	부호 ‘〈〉, ≪≫’를 각각 ‘ 홑화살괄호 , ‘ 겹화살괄호 ’로 명명하고 각각의 용법 규정.
부호 선택의 폭 확대	줄임표는 ‘……’만 사용	컴퓨터 입력을 고려하여 아래에 여섯 점(……)을 찍거나 세 점(…, …)만 찍는 것도 가능하도록 함.
	가운뎃점, 낫표, 화살괄호 사용 불편	- 가운뎃점 대신 마침표(.)나 쉼표(.)도 쓸 수 있는 경우 확대. - 낫표(「, 『』)나 화살괄호(〈〉, ≪≫) 대신 따옴표(‘ ’, “ ”)도 쓸 수 있도록 함.
조항 수 증가 (66개→94개)	조항 수 66개	소괄호 관련 조항은 3개에서 6개로, 줄임표 관련 조항은 2개에서 7개로 늘어나는 등 전체적으로 이전 규정에 비해 28개가 늘어남. ※ (조항 수): [붙임], [다만] 조항을 포함함.

※ 개정안의 자세한 내용은 국립국어원 누리집 참조 바람.

3. 외래어 표기법

- 구성: 표기의 기본 원칙, 표기 일람표, 표기 세칙, 인명·지명 표기의 원칙
- 표기의 기본 원칙
 - **제1항** 외래어는 국어의 현용 24 자모만으로 적는다.
 - **제2항** 외래어의 1 음운은 원칙적으로 1 기호로 적는다.
 - **제3항** 받침에는 ‘ㄱ, ㄴ, ㄷ, ㄹ, ㅁ, ㅂ, ㅅ, ㅇ’만을 쓴다.
 - **제4항** 파열음 표기에는 된소리를 쓰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제5항** 이미 굳어진 외래어는 관용을 존중하되, 그 범위와 용례는 따로 정한다.
- 예: 슈퍼마켓/*수퍼마켓, 케이크/*케익/*케이, 테이프/*테이프/*테입, 워크숍/*워크샵/*워크
샵, 파리/*파리
윈도/*윈도우, 옐로/*옐로우, 하이라이트/*하일라이트, 로터리/*로타리
파일/*화일, 패밀리/*훼미리, 프래시/*후레쉬, 프라이/*후라이, 파이버/*화이버
주스/*쥬스, 레저/*레저, 텔레비전/*텔레비전, 비잔틴/*비잔틴, 조스/*쥬스, 주얼리/*쥬
얼리
초콜릿/*쵸콜릿, 차밍/*차밍, 찬스/*찬스, 벤처/*벤처, 메사추세츠/*메사츄세츠, 포춘/*
포춘

4. 국어의 로마자 표기법

- 구성: 표기의 기본 원칙, 표기 일람, 표기상의 유의점 등 모두 12항.
- 표기의 기본 원칙
 - 제1항 국어의 로마자 표기는 국어의 표준 발음법에 따라 적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제2항 로마자 이외의 부호는 되도록 사용하지 않는다.

〈모음〉

ㅏ	ㅑ	ㅓ	ㅕ	ㅡ	ㅣ	ㅞ	ㅟ	ㅛ	ㅜ	
a	eo	o	u	eu	i	æ	e	œ	wi	
ㅗ	ㅛ	ㅝ	ㅠ	ㅙ	ㅚ	ㅜ	ㅟ	ㅑ	ㅓ	ㅡ
ya	yeo	yo	yu	yæ	ye	wa	wæ	wo	we	ui

〈자음〉

ㄱ	ㄲ	ㅋ	ㄷ	ㄸ	ㅌ	ㅍ	ㅂ	ㅃ	ㅍ	
g k	kk	k	d t	tt	t	b, p	pp	p		
ㅈ	ㅉ	ㅊ	ㅅ	ㅆ	ㅎ	ㄴ	ㅁ	ㅇ	ㄹ	
j	jj	ch	s	ss	h	n	m	ng	r, l	

- 예: 독립문[동님문] Dongnimmun 속리산[송니산] Songnisan 백마[뱅마] Baengma
 대관령[대괄령] Daegwallyeong 왕십리[왕심니] Wangsimni 종로[종노] Jongno
 학여울[항녀울] Hangnyeoul 깃잎[깐닙] kkaennip 뱃머리[뱌머리] baenmeori
 팔당[팔땅] Paldang 압구정[압꾸정] Apgujeong
 강원도 강릉시 옥천동 Gangwon-do Gangneung-si Okcheon-dong
 서울시 성북구 석관동 Seoul-si Seongbuk-gu Seokgwan-dong
 경포대 해돋이 Gyeongpodae haedoji

※ 다만, 체언에서 ‘ㄱ, ㄷ, ㅍ’ 뒤에 ‘ㅎ’이 따를 때에는 ‘ㅎ’을 밝혀 적는다.

목호[무코] Mukho 집현전[지편전] Jiphyeonjeon

식혜[시케] sikhye 낙화암[나과암] Nakhwa-am

※ 예외: 이름에서 일어나는 음운 변화는 표기에 반영하지 않는다.

한글 표기	발음	옳은 표기	틀린 표기
한복남	[한봉남]	Han Boknam (Han Bok-nam)	*Han Bongnam
한봉남		Han Bongnam (Han Bong-nam)	—
홍빛나	[홍빈나]	Hong Bitna (Hong Bit-na)	*Hong Binna

II. ‘한글 맞춤법’의 원리

〈한글 맞춤법 제1항〉

한글 맞춤법은 **표준어**¹를 **소리대로 적되**², **어법에 맞도록**³ 함을 원칙으로 한다.

- (1) **한글 맞춤법의 대상**: 한글 맞춤법은 표준어를 올바르게 표기하는 규범이다. 즉 한글 맞춤법은 방언(지역어)이 아니라 표준어를 그 표기의 대상으로 삼는다는 뜻이다.
- (2) **한글 맞춤법의 원칙**: 표준어를 표기하는 원리는 두 가지다. 첫째, 표준어는 소리 나는 대로 적는다는 것이다. ‘가’는 ‘가’로 적고 ‘나’는 ‘나’로 적는다. ‘[꼬치]’, ‘[꼰만]’, ‘[꼬또]’로 소리 나는 표준어는 ‘꽃이/꼬치’, ‘꽃만/꼰만/꼰만’, ‘꽃도/꼰또/꼬또’ 등으로 적을 수 있다.
- (3) **어법에 맞도록 함**: 그러나 소리 나는 대로만 적을 경우 ‘花’를 의미하는 단어가 ‘꽃/꽃/꼰/꼰’과 같이 여러 형태가 되어 언어생활이 혼란스러워지고 독서의 능률도 떨어지게 된다. 하지만 ‘꽃’으로 형태를 고정하여 ‘꽃이’, ‘꽃만’, ‘꽃도’와 같이 적으면 의미를 파악하기가 쉬울 것이다.
 - ㄱ. 꼬치, 꼬츰, 꼬또, 꼰만 / 갑씨, 갑쓸, 갑또, 감만 / 흘기, 흘글, 흑또, 흥만
 - ㄴ. 꽃이, 꽃을, 꽃도, 꽃만 / 값이, 값을, 값도, 값만 / 흙이, 흙을, 흙도, 흙만

또한 소리대로만 적기로 한다면 [반드시]로 소리 나는 ‘반듯이[直]’와 ‘반드시[必]’의 구별이 표기상 불가능하지만, ‘반듯하다’와의 관련성을 따져 ‘반듯이’와 ‘반드시’로 나누어 적으면 표기에 따라 의미를 구별할 수 있게 된다. 이와 같이 ‘어법에 맞도록 함’이란 어떤 한 단어의 원형을 고

려하여 표기에 반영한다는 의미이다.

그러므로 한글 맞춤법에서 가장 근간이 되는 원칙은 어떤 단어의 원형을 고려하여 표기에 반영하는 일이다. 어떤 말을 표기할 때 그 모양과 의미가 유사한 말이 있는지를 살펴보고 서로 관련지을 수 있다면 원형을 살려 쓰고 그렇지 않다면 소리 나는 대로 쓰게 된다. 예컨대 [깨끄시 사용해라]에서 [깨끄시]라는 말은 ‘깨끗하다[깨끄타다]’와 관련이 있으므로 그 원형인 ‘깨끗’을 고려하여 ‘깨끗이, 깨끗하다’로 적을 수 있다. 그러나 [지그시 누르다]에서 ‘슬며시 힘을 주는 모양’을 의미하는 [지그시]라는 말은 같은 의미로 쓰이는 ‘지긋지긋, 지긋하다’ 등과 같은 관련 단어를 찾을 수 없다. 즉 이 말의 원형이 되는 유사한 어형을 찾아볼 수 없는 것이다. 그러므로 이 말은 그 원형을 고려하지 않고 소리 나는 대로 ‘지그시’로 적게 된다. 한편, [나이가 지그시 든 노인]의 [지그시]는 ‘나이가 비교적 많아 듬직하다’의 의미로 쓰이는 ‘지긋하다’가 있으므로 그 원형을 밝혀 ‘지긋이’로 적는다. 숲 반듯이~반드시, 지긋이~지그시, 짓궂다~애꿎다, 돋보기~돋자리, 몇 월~며칠

Ⅲ. 한글 맞춤법 익히기

1. 백분율 / *백분률(한글 맞춤법 제11항)

한자어 ‘렬, 률’은 모음이나 ‘ㄴ’ 받침 뒤에 올 때는 ‘열, 율’로 적는다. 그 외의 경우와 외래어 다음에는 ‘렬, 률’로 적는다.

한자	사용 환경	한자음	예
率 律 栗 慄	ㄴ을 제외한 자음이나 외래어 다음	률	출석률, 결합률, 성공률, 굴절률 숫률(shoot率), 영률(Young率) 법률(法律), 음률(音律), 악률(樂律), 생률(生栗)
	모음, ㄴ 받침 다음	율	실패율(失敗率), 분해율(分解率), 백분율(百分率), 참가율(參加率) 규율(規律), 불문율(不文律), 전율(戰慄), 선율(旋律), 평균율(平均律)
列 列 劣 烈 裂	ㄴ을 제외한 자음이나 외래어 다음	렬	격렬(激烈), 극렬(極烈), 열렬(熱烈) / 결렬(決裂), 멸렬(滅裂) / 졸렬(拙劣), 용렬(庸劣) / 행렬(行列), 정렬(整列), 병렬(並列)
	모음, ㄴ 받침 다음	열	선열(先烈), 치열(熾烈) / 균열(龜裂), 분열(分裂) / 우열(優劣) / 계열(系列), 대열(隊列), 반열(班列)

2. 아니요/아니오(한글 맞춤법 제17항)

☞ ‘아니’라는 형태를 가지는 말에는 세 가지가 있다.

구분	품사	용례
① 아니	부사	○ 밥을 아니(안) 먹다 ○ 아니(안) 슬프다
② 아니	감탄사	○ 밥 먹었니? → 응 / 아니 ○ 점심 드셨어요? → 예 / 아니요(아뇨)
③ 아니다	형용사	○ 철수는 학생이 {아니야/아니오/아닙니다……}

①의 ‘아니’는 그 문장에 쓰인 서술어의 의미를 부정하는 부사이다. 이 ‘아니’는 줄어들어 ‘안’으로도 쓰인다. ②의 ‘아니’는 긍정·부정을 물어보는 의문문(판정 의문문)에 대한 대답으로 쓰이며 감탄사로 분류된다.(이 ‘아니’는 ‘안’으로 줄어들 수 없다.) ③의 ‘아니다’는 예에서 볼 수 있듯이 해체의 어미 ‘-야’, 하오체의 어미 ‘-오’, 합쇼체의 어미 ‘-ㅂ니다’ 등의 어말 어미와 관형사형 어미 ‘-(으)ㄴ’과도 결합할 수 있는 형용사로 쓰인다.(이 ‘아니다’ 역시 ‘안’으로 줄어들지 못한다.)

위에서 보면 우리가 부정의 대답으로 사용하는 것은 ②의 ‘아니’(감탄사)인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므로 부정의 대답으로 쓰는 [아니요]라는 말은 감탄사 ‘아니’에 해요체의 보조사 ‘요’가 결합된 ‘아니요’로 적어야 함을 알 수 있다. “다음 문제에 ‘예/아니요’로 대답하시오”와 같은 문장에서는 ‘아니요’를 써야 한다. ‘아니요’는 줄어서 ‘아뇨’가 되기도 한다.

3. 마라 / 말아라(한글 맞춤법 제18항)

☞ ‘말다’에 ‘-아(라)’의 명령형 어미가 결합한 ‘말-아라/말-아’는 ‘마라/마’로 줄어든 형태만 표준어로 인정해 왔으나, 2015년에 ‘말아, 말아요, 말아라’도 복수표준어로 인정되었다(2015. 12.). ‘-(으)라고’가 결합할 경우에는 ‘말라고’가 된다.

- ㄱ. 못된 짓은 하지 **말아/마라/마.** ㄴ. 어머니께서 불량 식품은 먹지 **말라고** 당부하셨다.
 ㄷ. 그런 말은 하지 **말아요.** ㄹ. 밤새우지 **말란** 말이야.

4. 퍼레지다 / *퍼래지다(한글 맞춤법 제18항)

☞ ‘ㅎ’ 발음을 가진 색채 형용사들은 어미가 결합할 때 어간과 어미가 모두 변화하는 불규칙 용언이다. 활용할 때는 모음 조화에 따라 어미 ‘-어/-아’가 선택된다. 그러므로 ‘퍼렇다’에 모음으로 시작하는 어미가 결합되면 ‘퍼렇- + -어 → 퍼레’, ‘퍼렇- + -으니 → 퍼러니’ 등으로 활용하고, ‘하얏다’는 ‘하얏- + -아 지다→하애지다’, ‘허영다’는 ‘허영- + -어 지다→허예지다’와 같이 활용한다.

기본형	-고	-지	-(으)ㄴ	-(으)니	-어/아	-었/았-	-네
까말다	까말고	까말지	까만	까마니	까매(지다)	까맸다	까맄네/까마네
꺼덜다	꺼덜고	꺼덜지	꺼먼	꺼머니	꺼메(지다)	꺼맸다	꺼믄네/꺼머네
빨강다	빨강고	빨강지	빨간	빨가니	빨개(지다)	빨갸다	빨강네/빨가네
별경다	별경고	별경지	별건	별거니	별게(지다)	별갸다	별경네/별거네
파랗다	파랗고	파랗지	파란	파라니	파래(지다)	파랴다	파랑네/파라네
퍼렇다	퍼렇고	퍼렇지	퍼런	퍼러니	퍼레(지다)	퍼렷다	퍼렇네/퍼러네
하얏다	하얏고	하얏지	하얀	하야니	하애(지다)	하언다	하얏네/하야네
허영다	허영고	허영지	허연	허여니	허예(지다)	허언다	허영네/허여네
말강다	말강고	말강지	말간	말가니	말개(지다)	말갸다	말강네/말가네
멀절다	멀절고	멀절지	멀건	멀거니	멀게(지다)	멀갸다	멀절네/멀거네

5. 따라 / *따아 / *따뤄(한글 맞춤법 제18항)

☞ ‘물을 잔에 □□ 먹다’의 □에 들어갈 말은 ‘따라’이다. 이 말의 기본형은 ‘따르다’이므로 ‘*따아’나 ‘*따뤄’가 될 수는 없다. ‘따르다’는 ‘따라라(따르- + -어라)’, ‘따라서(따르- + -어서)’, ‘따랐다(따르- + -었다)’와 같이 활용한다. ‘(시험을) 치르다’도 ‘치러(치르- + -어)’, ‘치렀다(치르- + -었다)’처럼 활용한다. 일부에서는 ‘*치루고, *치뤄, *치뤘다’로, 심지어는 ‘*칠렀다’처럼 쓰고 말하기도 하나 이들은 모두 잘못이다. 또한 ‘김치를 담갔다’를 ‘*김치를 담뤘다’로, ‘문을 잠갔다’를 ‘*문을 잠뤘다’로 잘못 쓰는 경우가 많다. ‘담그다, 잠그다’는 모음으로 시작하는 어미가 결합되면 ‘담그- + -어/아 → 담가’, ‘잠그- + -어/아 → 잠가’와 같이 활용하므로 ‘문을 잠가라, 김치를 담가 먹었다’와 같이 적어야 한다.

기본형\어미	-고	-지	-니?(의문)	-어/아	-(어/아)서	-었/었다	-(으)ㄴ
따르다	따르고	따르지	따르니?	따라	따라서	따랐다	따른
치르다	치르고	치르지	치르니?	치러	치러서	치렀다	치른
담그다	담그고	담그지	담그니?	담가	담가서	담갔다	담근
잠그다	잠그고	잠그지	잠그니?	잠가	잠가서	잠갔다	잠근

- ㄱ. 시험을 {치른/*치룬} 후 집안에 잔치를 {치렀다/*치뤘다}.
- ㄴ. 어머니께서 김치를 {담가/*담귀/*담아} 주셔서 우리는 {담글/*담굴/*담을} 필요가 없다.
며칠 전에 김치를 {담갔다/*담궜다/*담졌다}.
- ㄷ. 현관문을 먼저 {잠근/*잠군} 후에 안방 문을 {잠가라/*잠귀라}.

6. 아니꼬워 / *아니꼬와(한글 맞춤법 제18항)

㉮ ㅂ변칙 용언에 모음 어미가 연결될 때는 어간 말음의 ‘ㅂ’이 ‘ㄴ’로 바뀌므로, ‘안타깝다’, ‘가깝다’, ‘아니깝다’ 등은 ‘*안타까와’, ‘*가까와’, ‘*아니꼬와’가 아니라 ‘안타까워’, ‘가까워’, ‘아니꼬워’ 등으로 적는다. 다만 ‘곶-[麗]’, ‘돕-[助]’과 같은 단음절 어간에 어미 ‘-아’가 결합되어 ‘와’로 소리 나는 것은 ‘-와’로 적는다. 그러므로 ‘곶-’과 ‘돕-’은 ‘고와, 고왔다’와 ‘도와, 도왔다’처럼 적는다.

기본형	-고	-지	-어	-었다	-(으)니	-(으)ㄴ
가깝다	가깝고	가깝지	가까워	가까웠다	가까우니	가까운
자랑스럽다	자랑스럽고	자랑스럽지	자랑스러워	자랑스러웠다	자랑스러우니	자랑스러운
안타깝다	안타깝고	안타깝지	안타까워	안타까웠다	안타까우니	안타까운
곶다	곶고	곶지	고와	고왔다	고우니	고운
돕다	돕고	돕지	도와	도왔다	도우니	도운

7. 있음 / *있슴(한글 맞춤법 제19항)

㉮ ‘있음’은 ‘있-’에 명사형 어미 ‘-(으)ㅁ’이 결합된 것이므로 ‘있슴’이 아니라 ‘있음’이 옳다.

‘먹- + -(으)ㄴ’일 때는 ‘*먹슴’이 아니라 ‘먹음’인 것과 마찬가지로. 예전에 쓰던 ‘있습니다, 먹습니다’의 ‘-읍니다’를 현행 맞춤법에서 ‘-습니다’로 적기로 한 사실에 끌려 ‘있음’, ‘없음’을 ‘*있슴’, ‘*없슴’으로 적는 경우가 있지만 이는 잘못이다. 다음에 용언에 명사형 어미 ‘-(으)ㄴ’이 결합하여 명사형을 만드는 경우를 모두 살펴보도록 한다.

구분	환경	결합형	용례
규칙 용언의 명사형	모음	-ㅁ	감, 구름, 남, 버림, 봄, 예쁨, 줌, 씌, 품, 흐름
	ㄹ		갈, 걸, 기웁, 깊, 낡, 뛰어듐, 만듐, 베품, 살, 앞, 얹, 엮
	ㄱ, ㅋ	-음	먹음, 막음, 작음, 속음 / 깎음, 낚음, 속음
	ㄴ		안음, 신음
	ㄷ		견음, 뜯음, 민음, 받음, 뵈음
	ㄹ		감음, 검음, 남음, 념음, 담음, 더듬음, 숨음
	ㅂ		잡음, 뒤집음, 뵈음, 입음, 씹음, 줍음
	ㅅ, ㅆ		벗음, 빚음, 빼앗음, 솟음, 웃음, 씻음 / 있음
	ㅈ, ㅊ		긋음, 꽃음, 낫음, 맞음, 맺음, 잦음, 젖음, 짓음, 찢음, 찢음 / 좇음, 좇음
	ㅌ		갈음, 말음, 발음, 뵈음, 붙음, 얹음, 열음, 질음, 흘음
	ㅍ		값음, 값음, 높음, 덮음, 엮음, 싹음, 짚음
	ㅎ		날음, 넣음, 놓음, 달음, 딸음, 쌓음, 줄음, 찜음
	겹받침		읽음, 늑음, 뵈음, 뵈음, 얹음, 짚음, 훑음, 꿇음, 싫음
			얹음, 엮음, 꿇음, 많음, 얹음, 편찮음 / 없음
	불규칙 용언의 명사형		ㅂ불
ㅎ불		빨감(⟨빨강다), 멀검(⟨멀경다), 까맘(⟨까맣다), 누렴(⟨누렇다)	
ㄷ불		-음	걸음(⟨걷다), 길음(⟨긴다), 물음(⟨묻다), 불음(⟨붙다), 실음(⟨신다)
ㅅ불			그음(⟨긋다), 나음(⟨낫다), 부음(⟨붓다), 지음(⟨짓다)
어미	어미		먹었음, 보았음, 가졌음, 꿇했음 / 오심, 가심, 편찮으심

8. 덮이다 / *덮히다(한글 맞춤법 제22항)

동사 ‘덮다, 짚다’의 피동형은 ‘덮이다, 짚이다’이다. 형용사 ‘높다’의 사동형은 ‘높이다’가 된다. ‘-히-’는 주로 ‘ㄱ’, ‘ㄹ’, ‘ㅌ’, ‘ㅂ’ 받침을 가진 말에 결합한다. 솟 먹히다, 막히다 / 굽히다, 읽히다 / 넓히다, 밝히다 / 굽히다, 입히다, 잡히다

- ㄱ. 눈으로 {덮인/*덮힌} 경치를 보니 내 근심도 모두 하얗게 {덮였다/*덮혔다}.
아무리 생각해 봐도 {깊이는/*깊히는} 데가 없다.
ㄴ. 담장을 {높였으나/*높혔으나} 아직도 낮으니 더 {높여라/*높혀라}.

9. 더욱이 / *더우기(한글 맞춤법 제25항)

☞ ‘더욱이’, ‘일찍이’, ‘오흘이’는 ‘더욱’, ‘일찍’, ‘오흘’과의 관련성을 고려하여, 즉 원형을 밝힐 수 있으므로 ‘*더우기’, ‘*일찌기’, ‘*오흘기’로 적지 않는다.

한편, ‘**일찍이** 문명을 꽃 피운 나라’와 ‘오늘은 일찍이 일어났다’의 ‘일찍이’는 의미가 구별되지만 어느 경우나 ‘일찍이’로 적는다.

10. 섯노랳다 / *싯노랳다(한글 맞춤법 제27항)

☞ 색채어 앞에 붙는 ‘새-/시-/섯-/싯-’의 구분 방법은 다음과 같다.

색채어의 첫소리		접두사	해당 색채어
자음	모음		
된소리 혹은 거센소리	양성	새-	새빨갳다, 새파랳다, 새까맣다, 새하얗다
	음성	시-	시뻘겋다, 시퍼렇다, 시꺼맣다, 시허얗다
유성음	양성	섯-	섯노랳다, 섯말갳다
	음성	싯-	싯누렇다, 싯덜갳다

결국 색채어 첫소리의 자음이 무성음이냐(새/시) 유성음이냐(섯/싯), 그리고 첫소리의 모음이 양성 모음이냐(새/섯) 음성 모음이냐(시/싯)에 따라 구분된다.



11. 며칠 / *몇일 / *몇 일(한글 맞춤법 제27항)

☞ 한글 맞춤법 제27항의 [붙임] 항목에는 “어원이 분명하지 않은 것은 원형을 밝히어 적지 않는다”라고 하고 예로 ‘골병, 골탕, 며칠’ 등을 들고 있다. 즉 그 어원이 분명하지 않은 것은 원형을 밝혀 적지 않고 소리 나는 대로 적을 것을 명시하고 있다. ‘몇일’이 아니라 ‘며칠’로 적어야 하는 이유를 살펴보자.

- ㄱ. 몇 월 → [며월], 몇 인 → [며딘], 몇 억 → [며억], 몇 원 → [며원], 몇 올 → [며돌]
 ㄴ. 몇 향 → ([면향]) → [며탕], 몇 해 → ([면해]) → [며태], 몇 호 → ([면호]) → [며토]
 ㄷ. 몇 날 → ([면날]) → [면날], 몇 년 → ([면년]) → [면년], 몇 명 → ([면명]) → [면명]
 ㄴ. 몇 일(日) → [며딜]

‘몇’ 다음에 명사가 오면 말음의 ‘ㄷ’은 소위 중화 현상에 의하여 ‘ㄴ’으로 바뀐다. 그러므로 ㄱ과 같이 ‘몇 + 월’은 [며월]이 아니라 [며월]이 되고, ‘몇 + 억’은 [며척]이 아니라 [며억]이 된다. 이는 ‘웃 + 안’이나 ‘꽃 + 위’, ‘날 + 알’이 [오산], [꼬취], [나탈]이 아니라 [오단], [꼬뒤], [나달]로 소리 나는 것과 같은 것이다. 이에 따르면 현대국어 ‘몇 + 일(日)’로 구성된 합성어는 [며딜]로 소리가 나야 한다. 그러나 현대국어에서 [며딜]이라고 하지 않고 [며칠]이라고 말한다는 사실은 이 말이 ‘몇 + 일(日)’의 구성이 아님을 보여준다. 그렇다면 [며칠]이라는 말은 현대국어에서 그 원형을 밝힐 수 없으므로, 한글 맞춤법의 원칙을 따라 소리 나는 대로 ‘며칠’로 적게 되는 것이다.¹⁰⁾

일부에서는 ‘몇일’, ‘몇 일’과 ‘며칠’을 의미를 구분해서 적는 일도 있지만 이는 잘못이다. 어떤 의미이든지 ‘며칠’로 적어야 한다.

- ㄱ. *오늘이 **몇 월 몇 일**이지? (×) → 오늘이 **몇 월 며칠**이지?(○)
 ㄴ. **며칠** 동안 휴가를 다녀왔다. / **며칠**만 시간을 주세요.
 ㄷ. 아흐레에서 엿새를 빼면 **며칠**이 남지?

한편, ‘며칠’은 ‘날’과 결합하여 ‘며칠날’이라는 합성어를 만들기도 한다.(“제사가 5월 며칠날이지?”)

10) ‘며칠’은 옛말에서 이미 ‘며칠~며칠/~몇칠~몇칠’ 등의 형태로 쓰이던 말이었다. 이 말들이 음운변화를 겪어 ‘며칠’로 현대국어에 까지 전해져서 쓰이는 것이므로, 현대국어에서는 ‘며칠’의 원형을 밝힐 수가 없다.

며칠을 설립하리려뇨 《번역박통사(1517) 상:75》

오늘이 몇칠고 오늘이 臘月 二十五日이라 《박통사언해(1677) 중:53》

며칠을 머므로뇨 《박통사언해(1677) 하:41》

12. 며칠날 / *며칠날(한글 맞춤법 제29항)

- ㉮ 끝소리가 ‘ㄹ’인 말과 딴 말이 어울릴 적에 ‘ㄹ’ 소리가 ‘ㄷ’ 소리로 나는 것은 ‘ㄷ’으로 적는다. ‘며칠 + 날’의 구성으로 이루어진 합성어는 [며칠날]이 아니라 [며친날]로 발음되므로 ‘며친날’로 적는다.

합성어의 구성	발음	표기
며칠 + 날	[며친날]	며친날
삼질 + 날	[삼진날]	삼진날
사흘 + 날	[사흔날]	사흔날
술 + 가락	[순까락]	순가락 ¹¹⁾
반질 + 고리	[반질꼬리]	반질고리
설 + 부르다	[설프르다]	설프르다

13. 머릿기름 / *머리기름(한글 맞춤법 제30항)

- ㉮ 한글 맞춤법에서 사이시옷 표기를 하는 이유는 두 명사가 어울려 합성어를 이룰 때 일어나는 소리의 변화를 표기에 반영하기 위해서이다. 두 명사가 어울려 합성어가 되더라도 소리의 변화가 없으면 사이시옷을 받쳐 적지 않는다. 다음에서 사이시옷을 받쳐 적는 조건과 원칙을 살펴보자.

ㄱ. ‘사이시옷’을 표기하기 위한 선결 조건

1. 합성어(명사)의 두 구성 요소 가운데 하나 이상은 고유어일 것.
2. 앞말이 모음으로 끝날 것.

ㄴ. 위의 두 조건을 충족하면서 다음의 음운 현상이 나타나면 ‘ㅅ’을 받쳐 적음.

- ① 뒷말의 첫소리 [ㄱ, ㄷ, ㅂ, ㅅ, ㅈ]가 [ㄱ, ㄷ, ㅂ, ㅅ, ㅈ]로 변할 때(즉, 예사소리가 된 소리로 변할 때)

→ 콧구멍, 콧기름, 콧김, 콧대, 콧등, 콧바람, 콧방귀, 콧병, 콧부리, 콧소리, 콧속, 콧수염,

11) ‘젓가락’은 ‘저(箸) + 가락’ 구성인데, 뒷말 첫소리가 [가]에서 [까]로 변했으므로 사이시옷을 받쳐 적은 예이다.

꽃잔등이, 꽃병, 기댓갑, 대꽃값, 등꽃길, 고깃국, 만듯국, 맥줏집, 머릿돌, 바닷가, 보랏빛, 빨랫줄, 성못길, 시냇가, 장밋빛, 전깃불, 조갯살, 찻잔, 고깃집, 횃집

② 뒷말의 첫소리 ‘ㄴ, ㄹ’ 앞에서 ‘ㄴ’ 소리가 덧날 때

→ 꽃날, 꽃노래, 뱃놀이, 콧물, 콧마루, 뱃머리, 수돗물, 바닷물, 비눗물, 뿔마루

③ 뒷말의 첫소리 모음 앞에서(즉 모음 사이에서) ‘ㄴㄴ’ 소리가 덧날 때

→ 껏잎, 나뭇잎, 베갯잇, 옷잇, 예삿일, 사삿일

ㄷ. 예외(다음의 6개 한자어에서만 ‘ㅅ’ 표기 허용)

곳간(庫間), 셋방(貰房), 숫자(數字), 찻간(車間), 뺨간(退間), 횃수(回數)

※ 6개 단어 이외에 한자로 구성된 단어는 사이시옷을 쓰지 않음.(초점, 대가, 시가, 치과 등)

※ ‘기차간(汽車間, ← 기차+간), ‘전세방(傳貰房, ← 전세+방)’은 한자어 구성이므로 사이시옷을 적지 않음.

ㄹ. 위 ㄱ의 조건을 만족하더라도 ㄴ의 음운 현상이 없으면(즉 소리의 변화가 없으면) ‘사이ㅅ’을 표기하지 않음.

→ 머리말, 머리글, 나무다리, 인사말, 바다지렁이, 쥐뿔, 뒤편, 코웃음, 코뼈, 코피, 코털, 코딱지

ㅁ. 위 ㄴ의 음운 현상이 있더라도 외래어가 포함될 경우에는 사이시옷 표기를 하지 않음.

→ 핑크빛, 피자집, 잉크병, 콜라병, 커피잔 등

14. 디뎠다 / *뉘었다(한글 맞춤법 제32항)

☞ ‘뉘다’는 ‘디디다’의 준말로, ‘뉘고, 뉘자, 뉘게’처럼 자음으로 시작하는 어미는 연결이 될 수 있지만 ‘*뉘어’, ‘*뉘었다’, ‘*뉘으며’, ‘*뉘어서’처럼 모음으로 시작하는 어미는 연결이 될 수 없다. 모음으로 시작하는 어미는 ‘디디다’와만 결합하여 ‘디디어(디뉘), 디디었다(디뉘었다)’로 활용한다. ‘가지다/갖다’도 이와 마찬가지로.

기본형\어미	-고	-지	-니?(의문)	-어/아	-으니	-(으)며	-(으)ㄴ
디디다	디디고	디디지	디디니?	디디어(디터)	디디니	디디며	디딘
덜다	덜고	덜지	덜니?	*덜어	*덜으니	*덜으며	*덜은
가지다	가지고	가지지	가지니?	가지어(가져)	가지니	가지며	가진
갓다	갓고	갓지	갓니?	*갓어/*갓아	*갓으니	*갓으며	*갓은

이와 조금 다른 것으로 ‘머무르다/머물다’, ‘서투르다/서툴다’, ‘서두르다/서둘다’ 등이 있다. ‘머물다, 서툴다, 서둘다’는 모음으로 시작하는 어미 중에서 ‘-어’와만 결합하지 못한다.

기본형\어미	-고	-지	-니?(의문)	-어/아	-(으)니	-(으)며	-(으)ㄴ
머무르다	머무르고	머무르지	머무르니?	머물러	머무르니	머무르며	머무른
머물다	머물고	머물지	머무니?	*머물어	머무니	머물며	머문
서투르다	서투르고	서투르지	서투르니?	서툴러	서투르니	서투르며	서투른
서툴다	서툴고	서툴지	서투니?	*서툴어	서투니	서툴며	서툰

15. 개다 / *개이다(한글 맞춤법 제34항)

㉮ ‘개다’를 ‘*개이다’로 적을 이유는 없다. ‘헤매다/*헤매이다’, ‘목매다/*목매이다’, ‘설레다/*설레이다’ 등도 마찬가지다.

ㄱ. 날씨가 맑게 {개었다(갯다)/*개였다} / 맑게 {갠/*개인} 날씨

ㄴ. {설레는/*설레이는} 마음을 ...

ㄷ. 친구 집을 찾지 못해 골목을 {헤매고/*헤메이고} 다녔다..

ㄹ. 날씨가 갠 / 낯선 도시를 헤맸 / 슬픔에 목뎌 / 기쁨에 설렘

그러나 ‘에다/에이다’와 ‘깃들다/깃들이다’는 서로 의미가 다르므로 구분해서 써야 하는 말이다.

ㅁ. 에다 : 살을 에는 추위(타동사)

에이다 : 살이 에이는 추위(자동사)



- ㅂ. 깃들다 : {영혼이/평화가/어둠이} 깃들다, 조국 산하에 깃든 선열의 호국 정신
 깃들이다 : 새가 둥지에 깃들이다 / 누구나 깃들일 집은 있기 마련이다

16. 되라 / 돼라(한글 맞춤법 제35항)

☞ 용언의 기본형과 활용형이 구별되지 않아 혼란을 겪는 경우이다. ‘되’는 ‘되다’ 용언의 어간 형태이고, ‘돼’는 활용형인 ‘되어’가 줄어든 형태다. 그러나 ‘되~돼’의 발음이 구별이 어려워지면서 동시에 그 표기도 혼란을 겪게 되는 것이다. 하지만 이런 혼란은 한국어 용언(동사·형용사)에는 항상 어미가 하나 이상 쓰여야 한다는 문법 사항(어미의 결합 양상)만 파악하면 간단히 해결할 수 있는 것이다.

‘되다’의 어간 ‘되-’에 자음으로 시작하는 어미가 결합하면 ‘되니, 되면, 되고, 되게, 되지’와 같이 어간형이 그대로 쓰여 활용하게 된다. ‘-(으)니, -(으)면’과 같은 활용어미가 결합될 때에도 ‘되니, 되면’과 같이 어간형이 그대로 쓰이게 된다.

그런데 어간 ‘되-’에 어미 ‘-어’나 ‘-었-’이 결합하면 ‘되어, 되었-’이 되는데, 이 형태들이 다시 줄어들어 ‘돼, 됐-’의 모양으로도 쓰인다.

어간\어미	-게	-(으)니	-(으)면	-는	-르	-어	-어라	-어서	-어야	-어도	-어요	-었다
본말	되게	되니	되면	되는	될	되어	되어라	되어서	되어야	되어도	되어요	되었다
준말	-	-	-	-	-	돼	돼라	돼서	돼야	돼도	돼요	됐다

ㄱ. 되지못한 짓은 하지 말아야 **돼**(되- + -어).

돼먹지 못한 놈 / 막**돼**먹은 인간은 **되지** 마라.

그가 과연 회장이 **될**까/**되었**어(**됐**어)/**되었**네(**됐**네).

어떻게 결정**되어**도(결정**돼**도) 좋다.

얼굴이 안**돼** 보인다. / 그 사람 참 안**됐**군.

공부해도 **돼**요? / 너무 많이 하면 안 **돼**요.

훌륭한 사람이 **되어**라(**돼**라).

ㄴ. 어머니께서는 훌륭한 사람이 **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ㄷ. 열심히 공부하라. 훌륭한 사람이 **되**라(되- + -(으)라).

※ 해

※ 해 먹다 / 하지 마라

※ 할까 / 했어 / 했네

※ 해도

※ 했군

※ 해요

※ 해라

※ 하라고

※ 하라

ㄴ. 선생님, 내일 뵈어요/봬요/*봬요.

이번 명절은 고향에서 쇠어요/썰요/*쇠요?

이 가운데 가장 혼란을 겪는 표기는 ㄴ의 첫 번째 예문과 같이 문장의 맨 끝에 ‘뵈’가 올 경우다.

ㄹ. 하지 말아야 {뵈/되}. / 너 그러면 안 {뵈/되}. / 일 시작해도 {뵈/되}?

ㄹ의 경우, ‘뵈’와 ‘되’ 중 어느 형태를 써야 옳은 표기일까?

한국어에서 용언(동사·형용사)은 언제 어디서나 어미가 하나 이상 결합해야 문장에서 제대로 쓰일 수 있다. 어떤 경우든지 용언이 어미를 제대로 갖추지 않으면 의도를 제대로 전달하지 못하거나 비문이 된다.(반면 조사는 생략해도 문장이 성립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ㄷ. 나(는) 밥(을) 먹-었-지. → 나 밥 {먹었지 / 먹지 / 먹어 / *먹었 / *먹}

ㄸ. 철수(가) 내 손(을) 잡았다. → 철수 내 손 {잡았다 / 잡다 / 잡아 / *잡았 / *잡}

ㄹ. 영희(가) 참 예뻤다네. → 영희 참 {예뻤다네 / 예쁘다네 / 예쁘네 / 예뻐 / *예뻤 / *예쁘}

위 ㄷ~ㄹ의 예에서 볼 수 있듯이 국어의 동사·형용사는 기본형만으로는 문장에서 쓰일 수 없고 하나 이상의 어미가 연결되어야 함을 알 수 있다. 또한 의도한 뜻을 제대로 전달하려면 하나의 어미라도 생략하면 안 되며, 하나의 어미라도 생략하면 의도한 뜻에서 멀어진다는 사실도 알 수 있다. 즉, 국어의 모든 동사·형용사는 어미가 하나 이상 있어야 문장에서 쓰일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ㄹ의 예에서 ‘되’는 어미가 결합하지 않은 어간형이므로 문장의 종결 형태로 쓰일 수 없고, ‘되-’ 어간에 종결형 어미 ‘-어’가 결합하여 줄어든 ‘뵈’가 쓰여야 함을 알 수 있다. ‘너 그러면 안 뵈. 일 시작해도 뵈?’가 옳은 형태이다.

이와 같은 형태로 활용하는 용언에는 ‘봬다, 쇠다, 찌다’ 등이 있다. 쏘 꺾다, 꺾다, 뇌다, 되다, 꺾다(‘모이다’의 준말), 뵈다, 쇠다, 찌다, 죄다, 죄다, 죄다

ㅈ. 내일 뵈어요(봬요). / 만나 뵈어도(봬도) 소용 없어. / 만나 뵈었다(봬다) / 내일 뵈게요.

ㅊ. 이번 설 어디서 쇠어요(썰요)? / 설 잘 쇠어라(썰라) / 명절 잘 쇠었니(썰니)? / 설 쇠고 뵈요.

ㅋ. 햇별을 쪼어요(쪼요) / 빛을 쪼어라(쪼라) / 레이저 광선을 쪼었다(쪼다) / 내리쪼는 자외선

한편, ‘되다’의 활용형 ‘되어’가 ‘돼’로 줄어드는 것은 ‘하다’의 활용형 ‘하여’가 ‘해’로 줄어드는 것과 같은 것이므로 ‘하다’의 활용형 ‘해’가 들어갈 수 있는 자리라면 ‘돼(되어)’가 가능하다. 이 점을 활용하여 ‘되/돼’의 표기를 파악할 수도 있다.

17. 벌에 쏘였다/찌었다(한글 맞춤법 제37항)

☞ 동사의 사동형 혹은 피동형의 준말을 인정하는 것은 바로 한글 맞춤법 제37항에 근거한다. 한글 맞춤법 제37항에서는 “ㄱ, ㅋ, ㆁ, ㄷ, ㅌ로 끝난 어간에 ‘-이-’가 와서 각각 ㅈ, ㅊ, ㄴ, ㄷ, ㄴ으로 줄 적에는 준 대로 적는다.”라고 밝히 ‘쏘이다~찌다’ 모두를 인정하고 있는 것이다.

이 조항을 적용하면 ‘꼬다, 눅다, 뜨다, 보다, 쓰다’ 등에 사동 혹은 피동의 접미사 ‘-이-’가 결합한 ‘꼬이다, 누이다, 뜨이다, 보이다, 쓰이다’ 등은 모두 ‘찌다, 뉘다, 띄다, 뵈다, 씌다’로 줄어들 수 있다. 그러므로 다음과 같은 표기가 모두 가능한 것이다.

- ㄱ. (쏘- + -이- →)쏘이다 ~ 찌다: 벌에 손등을 {쏘였다/찌었다}
- ㄴ. (꼬- + -이- →)꼬이다 ~ 찌다: {몸이/일이} 점점 {꼬였다/찌었다}.
- ㄷ. (눅- + -이- →)누이다 ~ 뉘다: 아이를 침대에 {누였다/뉘었다}.
- ㄹ. (뜨- + -이- →)뜨이다 ~ 띄다: 아침에 눈이 번쩍 {뜨였다/띄었다}.
- ㅁ. (보- + -이- →)보이다 ~ 뵈다: 잘 안 {보여도/뵈어도} 안경은 쓰지 않겠다.
- ㅂ. (쓰- + -이- →)쓰이다 ~ 씌다: 글씨가 {쓰여/씌어} 있는 공책.

18. 어떡해 / 어떻게 / *어떻해

☞ ‘어떡해’는 ‘어떻게 해’가 줄어든 말로 문장을 맺는 서술어이고, ‘어떻게’는 ‘어떻-’에 부사형 어미 ‘-게’가 결합한 활용형으로 다음에 서술어가 와야 한다.

- ㄱ. ‘어떡해’는 ‘어떻게 해’가 줄어든 말. (☞ ‘어떻게 하다’가 줄어들어 ‘어떡하다’가 됨.)
어떡하든 성공해야 해. / 어떡하면 좋아. / 어떡하다 보니 그렇게 되었어. / 나 어떡해? 어떡하지?

어떡하긴? 이제 와서 어쩌하겠어? / 아이들은 어떡하고 있어?

- ㄴ. ‘어떡하다(<어떻게 하다<어떠하게 하다)’와 같은 구성으로 이루어진 말
 이력하다(이렇게 하다), 그럭하다(그렇게 하다), 저럭하다(저렇게 하다)
 → 이력하면 어떡하니? 그럼 그럭해도 돼? 이력하나 저력하나 마찬가지야.

그러므로 ‘이 문제를 *어떡해 풀지?’는 잘못이다. ‘어떻게 풀지?’로 써야 한다. ^쑈 이력하다(이렇게 하다), 그럭하다(그렇게 하다), 저럭하다(저렇게 하다)

19. 깨끗이 / *깨끗히(한글 맞춤법 제51항)

- ☞ 부사의 끝음절이 분명히 ‘이’로만 나는 것은 ‘-이’로 적고, ‘히’로만 나거나 ‘이’나 ‘히’로 나는 것은 ‘-히’로 적는다.

ㄱ. ‘-이’로 적는 경우

- ‘이’로만 나는 것: 가뜩이, 고즈넉이, 그윽이, 깊숙이, 끔찍이, 길쭉이, 멀찍이, 나직이, 두둑이 ...
- ㅅ 받침 뒤: 깎듯이, 깨끗이, 느긋이, 따듯이, 반듯이, 버젓이, 산뜻이, 의젓이
- 형용사 뒤: 가까이, 가벼이, 고이, 괴로이, 날카로이, 쉬이, 새삼스레
- 같이, 굳이, 많이, 적이, 헛되이
- 부사 뒤: 곰곰이, 더욱이, 오뚝이, 일찍이
- 첩어 뒤: 간간이, 겹겹이, 번번이, 일일이, 집집이, 틈틈이

ㄴ. ‘-히’로 적는 경우

- ‘히’로만 나는 것: 극히, 급히, 딱히, 속히, 익히, 작히, 족히, 특히, 엄격히, 간곡히, 까마득히, 머쓱히, 막막히, 똑똑히 등
- ‘이, 히’로 나는 것: 솔직히, 가만히, 간편히, 나른히, 무단히, 각별히, 소홀히, 쓸쓸히, 정결히, 과감히, 꼼꼼히, 심히, 열심히, 급급히, 답답히, 섭섭히, 공평히, 능히, 당당히, 분명히, 상당히, 조용히, 간소히, 고요히, 도저히 등



20. 맞추다 / 맞히다 / 마치다(한글 맞춤법 제55항, 제57항)

☞ ‘맞추다’는 ‘기준이나 다른 것에 비교하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 ‘맞히다’는 ‘맞다’의 사동사로 ‘적중하다’의 의미를 지닌다. 그러므로 ‘답을 맞히다’와 ‘답을 맞추다’는 서로 다른 의미를 지닌 말이 된다. “내가 열 문제 모두를 □□□”라고 할 때는 ‘*맞췌어’가 아니라 ‘맞혔어’라고 해야 한다. ‘마치다’는 “일을 마쳤다”와 같이 ‘어떤 일을 마지막으로 끝내다’의 의미로 쓰인다.

- ㄱ. 이 문제를 맞히는 분께는 상품을 드리겠습니다.
상자 속에 든 것이 무엇인지 알아맞혀 보세요.
이번 시험에서 열 문제 모두를 다 맞혔다.
- ㄴ. 내가 쓴 답과 모범 답안을 맞추어(맞춰) 보았다.
분해했던 부품들을 다시 제자리에 맞추었다(맞췌다).

한편, 예전에 ‘맞추다’와 ‘마추다’는 ‘손발을 맞추다, 입을 맞추다’와 ‘옷을 마추다, 마춤 양복’ 등과 같이 구별해서 썼으나, ‘*마추다’는 더 이상 쓰지 않고 두 의미 모두 ‘맞추다’를 쓰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이전의 표기법을 따른 ‘*안성마춤’도 ‘안성맞춤’으로 써야 한다.

21. -(으)로서 / -(으)로써(한글 맞춤법 제57항)

☞ ‘-로서’는 자격, ‘-로써’는 도구나 수단의 의미로 쓰인다. “나로서는 할 말이 없다”, “학생으로서 본분을 지키자”, “친구로서 나를 욕하다니!”와 “칼로(써) 연필을 깎는다”, “술로(써) 인생을 탕진했다”가 구분된다. ‘-(으)ㄴ으로(써)’와 ‘-므로’도 구분해서 써야 한다. ‘-(으)ㄴ으로(써)’는 ‘써’가 붙을 수 있지만 ‘-므로’에는 붙을 수 없다는 차이가 있다. “그는 부지런하므로 돈을 많이 벌었다”와 “그는 부지런히 일함으로써 돈을 많이 벌었다”가 구분된다.

22. 안치다 / 앓히다(한글 맞춤법 제57항)

☞ ‘안치다’는 기원적으로는 ‘앓다’에서 온 것으로 보이나 그 의미의 관련이 떨어진 것으로 보아 원형을 밝혀 적지 않는다.

- ㄱ. 안치다: 꿰이거나 찢 물건을 솔이나 시루에 넣다. || 쌀을 안치다, 밥을 안치다
 ㄴ. 앉히다: ‘앉다’의 사동형. 즉 ‘앉게 하다’의 뜻. || 아이를 자리에 앉히다

23. 사귀어 / *사겨 / *사구켜

- ☞ “둘이 한번 사귀어 봐”의 ‘사귀어’는 ‘*사겨/*사구켜’로 줄어들 수 없다. 마찬가지로 ‘바뀌어’ 역시 ‘*바껴, *바꾸켜’ 등으로 줄어들 수 없다. 흔히 “언제부터 *사겼니? / 짝이 또 *바졌어?” 등으로 쓰지만 잘못이다. ‘사귀었니, 바뀌었어’로 써야 한다. 숟 지저귀어, 바뀌어, 나뉘어, 뛰어, 쉬어, 야위어, 쥐어, 비취어, 할퀴어, 튀어, 휘어

24. 웬지 / *웬지

- ☞ “오늘은 웬지 기분이 좋아”에서 ‘웬지’는 ‘왜인지’가 줄어서 된 말이므로 ‘웬지’로 적는다. 하지만 “웬 떡이냐”, “이게 웬 날벼락이냐”, “봄인데 웬 눈이 이렇게 많이 오지?”, “웬 사람이 널 찾아왔어”라고 할 때는 ‘웬’으로 적는다. ‘웬’은 ‘어찌 된, 어떠한’을 뜻하는 관형사이다. 숟 웬걸, 웬만하다, 웬만큼, 웬일

25. 이에요 / 이어요

- ☞ ‘이에요’와 ‘이어요’는 복수 표준어로서, 서술격 조사 ‘이다’에 ‘-에요’, ‘-어요’가 붙은 말이다. 다시 ‘-어요’는 어미 ‘-어/-아’에 보조사 ‘요’가 결합한 것으로 ‘하다’ 어간 뒤에서는 ‘-여요’로 실현되고 ‘이다, 아니다’ 뒤에서는 ‘-에요’로 나타나기도 한다. ‘이에요/이어요’의 ‘이’는 서술격 조사이므로 체언 뒤에만 붙는데, 받침이 없는 체언에 붙을 때는 ‘예요/여요’로 줄어든다. 한편 ‘아니다’는 용언이므로 ‘이에요/이어요’가 연결될 수 없고 어미인 ‘-에요/-어요’가 연결되므로 ‘아니에요(아네요)/아니어요(아녀요)’와 같이 쓸 수 있다. ‘아니다’에 ‘이에요’와 ‘이어요’가 붙은 ‘*아니예요’, ‘*아니여요’는 잘못이다.



경우	환경	용례
인명	받침 있는 인명	영숙이 + 이에요 → 영숙이 예요 영숙이 + 이어요 → 영숙이 여요 ☞ 국어에서 자음으로 끝나는 사람 이름을 직접 부르거나 가리킬 때는 접미사 ‘-이’가 붙는다. “영숙이가, 영숙이를, 영숙이도, 영숙이에게, 영숙이는……” 그러므로 우리가 [영수기예요]처럼 말하는 것은 조사 결합체인 ‘이에요’가 ‘영숙’ 다음에 곧바로 결합되는 것이 아니라 ‘영숙이’에 결합되는 것으로 분석하게 된다. 그러므로 ‘영숙이 + 이에요’의 구성으로 파악하여, ‘영숙이 + 예요 → 영숙이예요’로 적게 되는 것이다. ‘책을 읽은 사람은 *영숙이예요’는 잘못된 표기이다.
	받침 없는 인명	영희 + 이에요 → 영희 예요 영희 + 이어요 → 영희 여요
명사	받침 있는 명사	집 + 이에요 → 집 이에요 집 + 이어요 → 집 이어요
	받침 없는 명사	회사 + 이에요 → 회사 예요 회사 + 이어요 → 회사 여요
아니다	형용사 다음	아니 + -예요 → 아니예요(아네요) 아니 + -여요 → 아니여요(아녀요) ☞ ‘*아니예요/*아니여요’는 잘못.

26. 금세 / *금새

☞ ‘어느새, 요새, 그새, 고새, 밤새’의 ‘새’는 ‘사이’가 줄어든 것이지만 ‘금세’는 ‘금시(今時)+에’의 준말이다. ‘새~세’의 발음이 구별되지 않아 혼란을 일으키기도 하지만 이 두 부류는 구성이 다르므로 구별해서 적어야 한다.

ㄱ. 요새 어떻게 지내냐? / 고새를 못 참아서 그만뒀어? / 밤새 비가 내렸네.

ㄴ. 소문이 금세 퍼졌다 / 효과가 금세 나타난다. / 난로가 금세 달아올랐다.

정호성

국립국어원 어문연구과장 pulsa@hanmail.net

교포 아동 학습자, 계승언어 학습자(Heritage Language Learner)의 언어 습득에 대해

김경령

숙명여대 한국어문학부 교수

1. 서론

교포 아동 학습자 그리고 이들이 성장 후 성인이 되어 계승언어 학습자가 된 이후의 언어 발달과 관련된 연구는 축적된 다양한 종류의 언어 데이터를 근간으로 체계적으로 진행되어 왔다. 한국어와 영어, 한국어와 중국어 혹은 일본어를 구사하는 이중언어 구사 아동의 언어 발달 과정에 대한 연구는 때로는 긍정적으로 때로는 부정적인 결과로 나타났다. 학계나 실질적인 교육이 이루어지는 교육 현장에서는 궁극적으로 아동기 때 언어 발달을 도와 이중 혹은 다중언어 구사자로 성장시키는 것에 긍정적인 입장을 취해왔다. 본고에서는 이중언어를 구사하는 아동 학습자의 언어 발달 과정에서 나타나는 특성들 정리하고, 더 나아가 아동 학습자가 성장 후 계승언어 학습자가 되었을 때의 특성 등에 대해서도 논하고자 한다.

2. 이중언어 사용 아동 학습자의 언어 특성

1) 아동의 이중언어 습득 시기

성인 학습자와 아동 학습자의 언어 습득 과정은 다르다. 특히 성인과 아동의 언어 습득 과정을 구분짓는 가설로 언어습득 결정시기(Critical Period in Language Acquisition)를 들 수 있는데 사춘기 이후 뇌구조의 변화에 따라 언어 습득 경로도 바뀐다는 내용이다. 인간의 뇌구조는 언어습득 민감 시기 혹은 결정적 시기라고도 하여 뇌의 생물학적 구조가 일정 시기 이후에 바뀌게

된다(Lenneberg, 1967; Johnson & Newport, 1989). 언어습득 과정을 살펴보면 만 3세에서는 대부분의 음소가 습득되고, 10세 이전에는 어휘와 문법체계가 확립되기 시작하여 11세에서 14세 사이가 되면 발음과 억양이 고착화되는 과정을 겪는다. 학자들은 결정적 시기 이전과 이후의 언어 습득 과정은 다른 과정이며, 아동기 때 충분한 언어 입력이 제공되지 않으면, 이후 언어가 정상적으로 발달 될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극단적인 예이기는 하지만 격리된 채 13세 이후 발견된 Genie라는 소녀에게 연구자들이 언어를 가르치려 했지만 결국 정상적인 언어 수준에 미치지 못하는 결과가 나타나 언어습득결정 시기 가설에 힘을 실어 주었다. 반면 언어습득 결정 시기 이전에 여러 언어를 배우고 훈련하게 되면 성인이 되어 외국어로서 언어를 배우는 것보다 훨씬 더 빠르고 정확하게 습득의 과정을 거치게 되어 이중, 다중언어 구사자로 성장하는 것이 용이하다.

학자들은 외국어 혹은 제2언어 혹은 외국어 습득을 결정적 시기 이전과 이후로 나누어 언어 발달을 살펴보고, 아동기 때의 외국어 혹은 제2언어 습득은 성인이 되어 언어를 배우기 위해 쏟는 노력과 시간, 비용에 비해 현저히 효과적이라는 가설은 꾸준히 설득력을 얻어 왔다.

해외에 거주하는 체류자 혹은 교포 자녀들 가운데의 상당수가 가정 혹은 교회에서는 한국어를 그리고 학교에서는 사회가 요구하는 공식 언어를 습득하게 된다. 아동들에게는 상위 언어적 지식의 양에 차이가 생기기 되는데 실제로 가정에서 한국어를 사용하던 아동도 사회, 즉 학교에서 요구하는 언어를 사용하게 되면서 상위어 혹은 하위어라는 구분을 가지고 언어를 접하게 된다. 아동기 때, 즉 언어습득 결정 시기 이전에 한국어를 배울 기회가 있었던 아동은 중고등 학교 시절 공백기가 있어도 대학에 들어와 다시 한국어를 배우려 할 때 아동기 때의 한국어 습득 경험이 큰 힘이 될 수 있다. 교포 자녀 즉 계승언어자 보여주는 막강한 언어 잠재력에 대한 연구 결과는 이동재(2002)의 연구에서도 잘 나타나 있다. 계승언어 학습자(Heritage learner)란 가정에서 한국 말을 듣고 말하며 자라온 사람들이라고 정의하는데, 통계 자료에 의하면 한국어의 경우 언어 사용에 능통한 최상위 수준의 언어 실력이 되기 위해서는 1320 시간 이상을 공부해야 한다고 밝히고 있다. 이 것을 한 주에 4시간씩 공부하는 것을 기준으로 본다면 11년 이상 걸리는 시간이며 일반 교과 과정에서 다루기에는 매우 많은 양의 언어 학습 시간이다. 계승언어 학습자의 경우 집중적으로 한국어 교육을 받게 되는 경우 신장되는 한국어 능력은 대단한 것으로 짧은 시간 안에 최상위권에 도달할 수 있는 잠재적인 능력을 보유하고 있다. 이는 아동기 때 직접 혹은 간접적으로 한국어 입력이 이루어졌기 때문이다. 이중언어 사용자로 성장하기 위해 아동기 때의 언어 학습은 매우 중요하며 그 효과 또한 놀라울 만큼 지속적이다. 반구편중화가 일어나기 이전에 이루어지는 언어 습득은 놀랄만큼 효율적으로 일어나며 그렇기 때문에 아동기 때 접하는 한국어는 성인이 되어 접하는 것보다 훨씬 빠르고 안정적으로 습득될 수 있다.

2) 아동의 이중언어 습득 과정에서 나타나는 언어전환

아동기 때 두 언어를 사용하게 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언어혼합, 언어전환(code mixing, code switching) 현상은 이중언어 구사자로 성장하면서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현상이다. 언어전환은 매우 조직적이고 체계적으로 일어나는 현상으로 산발적이거나 비체계적으로 일어나지는 않는다. 예를 들면 ‘나는 money가 없어요’ ‘May I have a 물?’ ‘같이 가겠어요? 그런데 where do you want to go?’ 와 같은 형식으로 발화되는데 두 언어 코드가 섞이는 것을 볼 수 있다 (Kim, 2001) 언어전환은 이처럼 문장 안에서 단어 혹은 구의 형태로 섞이거나 문장 전체의 코드가 바뀌는 식으로 나타나는데 이는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일부 교포 부모들은 자녀의 이러한 언어전환 현상에 대해 매우 불안해하고 언어 혼돈으로 해석하여 한국어를 가르치는 것을 중단하거나 혹은 기본적인 한글 정도만 가르치고 더 이상의 고급 한국어를 가르치려는 의지를 보이지 않는 경우가 있다. 언어 전환은 두 언어가 발달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특징으로 불어-영어, 중국어-일본어 등을 구사하는 이중언어 구사자들의 언어 데이터는 수도 없이 발표되었고, 그 과정이 매우 체계적이라는 점 또한 밝혀졌다. 언어 전환은 체계성과 일관성을 가지는데 명사, 동사, 형용사, 부사, 명사구, 동사구, 부사구 등 문법 전 항목에서 체계적으로 일어나고 제약성의 규칙 안에서 일어난다. 이는 아동 학습자들이 이미 두 언어의 문법 규칙을 이해하고, 그 체계 안에서 어휘가 전환되고 있음을 의미하기도 한다.

언어전환은 두 언어의 체계가 발달하면서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언어적 특징과 더불어, 사회언어학적 특징으로 의사소통 전략으로 사용되기도 한다. 이중언어 구사자들 간에 한국어로 대화하다 영어로 코드를 바꾸거나 혹은 반대인 경우 의사소통 과정에서 두 언어 코드를 전략적으로 사용하는 것을 의미한다. 자신이 말하고자 하는 내용을 강조하고 싶거나, 주제를 바꾸고 싶거나, 의견에 대해 부정하고 싶을 때 등 소통 전략으로도 언어전환을 이용하는 것이다. 이는 아동과 성인 모두에게 나타나는 현상이다. 언어 전환을 자유롭게 하는 것에 대해 불안해하거나 언어 혼돈으로 생각하지 않아도 된다.

3) 계승언어 학습자(Heritage Language Learner)의 어휘 습득

제2언어 교육에서 어휘의 역할이 중요함을 재인식하게 되면서 응용언어학 분야에서는 어휘 습득에 좀 더 많은 관심을 가지게 되었고, 학습자들이 어떻게 어휘를 저장하는지에 대해 다각도로 연구하기 시작하였다. 연구자들은 어휘에 대한 지식과 말하기, 듣기, 읽기, 쓰기 등의 언어 기능과 깊은 상관관계가 있다고 밝혔다(Read, 2000; Mochida & Harrington, 2006 등). 어휘의 능숙도가 듣기, 읽기 텍스트에 대한 이해도와 깊은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특히 계승언어 학습자들의 경우 개인마다 가지고 있는 내재적 어휘 지식이 성인 이후 목표어에 대한 언어 학

습을 다시 시작할 때 언어 교수의 효과가 매우 큰 것으로 나타났다. 재외동포 한국어 학습자의 경우 아동기 때 가정에서 한국어를 사용하지만 중고등학교 청소년 시절 일정 기간 한국어 습득이 멈추었다 대학에 들어와서 한국어를 다시 시작하여 배우는 경우를 계승언어 학습자라 말할 수 있다.

Davies(2006)는 대학에 와서 스페인어를 배우기 시작한 계승언어 학습자들 중 초급 학습자들은(receptive learners스페인어를 이해하지만 약간의 구어만 제한적으로 발화하고 말하기가 거의 안 되는 경우) 5000개의 고빈도 어휘 중 60% 정도(약 3000개의 단어)를 알아 듣는다고 했고, 중급 학습자의 경우 90% 정도(intermediate learners, 약 4500개의 단어)를 알아 듣는다고 밝혔다. 이는 계승언어 학습자들이 구어 기능이 미숙하다고 하더라도 잠재적으로 내재된 어휘 지식에 따라 듣기 기능에 차이가 발생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Nation(2006)은 수용어휘와 표현어휘를 구별하여 표현어휘가 수용어휘보다 훨씬 높은 수준의 단어 지식을 필요로 한다고 밝혔다. 어휘 능숙도를 가늠하는 것은 알고 있는 어휘의 양과 맥락 속에서 어휘를 이해하는 이해도의 깊이를 의미한다.

〈표 1〉은 Davis의 계승언어 학습자들의 어휘력과 읽기 텍스트 이해도, 구어 이해도에 대한 상관관계를 정리한 실험 연구에 대한 내용이다. 피험자들은 처음 고빈도 300 개의 단어를 활용하여 추론력을 발휘하게 하는 텍스트 읽기 자료와 사실력을 필요로 하는 읽기 텍스트 자료에서 80%대의 이해도를 보였고, 구어에서는 94%대의 이해도를 보였다. 첫 번째 단계에서 천 개의 단어 지식은 추론력을 발휘하게 하는 텍스트나 사실력을 발휘하게 하는 읽기 텍스트에서 70%대의 정답률을, 구어에서는 80%대의 정답률을 보였다. 하지만 두 번째, 세 번째 단계에서는 각각의 읽기 텍스트 및 구어에 대한 이해도가 현저히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높은 어휘 습득 단계를 요구하는 단계에서 이에 대한 능숙도가 없으면 읽기 텍스트나 구어의 내용을 모두를 이해하지 못하는 것을 의미한다. 한국어 계승언어 학습자의 데이터는 아니지만 스페인어 계승 언어 학습자의 데이터로 간접적으로 어휘력과 다른 언어 기능의 이해도를 가늠할 수 있겠다.

〈표 1. 계승언어 학습자의 어휘력과 읽기 텍스트와 구어에 대한 이해도 상관관계〉

	추론력 읽기 텍스트	사실력 읽기 텍스트	구어
처음 300개 단어	88.2%	89.6%	94.0%
첫 단계 천 단어	76.0%	79.6%	87.8%
두 번째 단계 천 단어	8.0%	6.5%	4.9%
세 번째 단계 천 단어	4.2%	3.5%	2.3%

(Edna, 2016, P 64)

4) 계승언어 학습자(Heritage Language Learner)의 듣기 능력

재외동포 한국어 학습자의 경우 아동기 때 가정에서 한국어를 직접 간접적으로 들을 기회가 부여된다. 중고등학교 청소년 시절 일정 기간 한국어 습득이 멈추었다 대학에 들어와서 한국어 공부를 다시 시작하는 경우에 그렇지 않은 학습자들에 비해 듣기 기능이 매우 뛰어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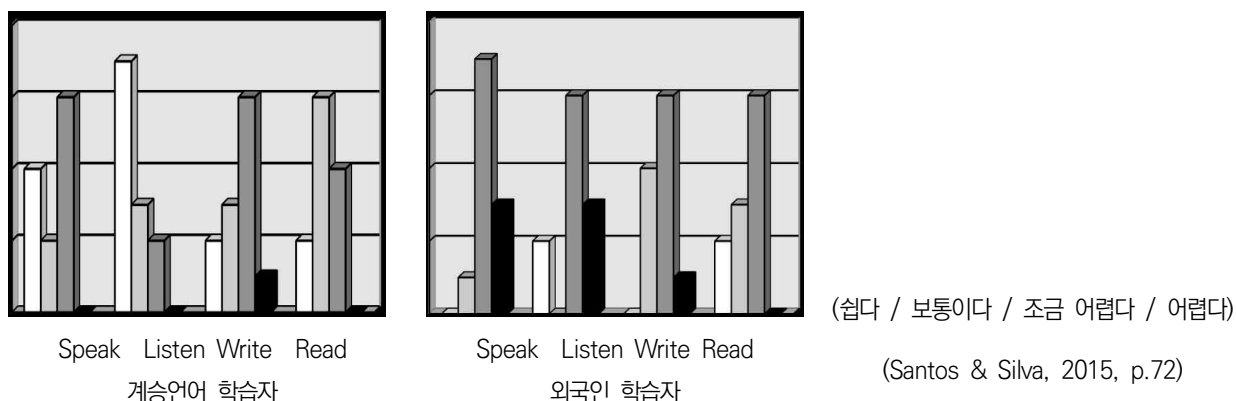
Santos & Silva (2015)는 스페인어와 영어를 사용하는 계승언어 학습자를 대상으로 실험 연구를 진행하였다. <그림 1>은 계승언어 학습자와 그렇지 않은 학습자들이 스페인어를 배울 때 어려움을 느끼는 정도에 대한 답을 언어 기능별로 그래프로 정렬한 내용이다. 계승언어 학습자의 경우 쉽다고 느끼는 언어 기능은 듣기>말하기>쓰기, 읽기 순으로 나타났다. 계승언어 학습자가 아닌 경우 말하기와 쓰기 영역에서 쉽다고 답한 경우는 하나도 없었으며 듣기와 읽기에서 약간 쉽다고 답했으나 계승언어 학습자의 답변과 비교하면 3배 이상의 차이가 나타났다. 그의 연구에서 흥미로운 점은 대학 언어 교재에 나오는 대화문을 듣고 이해하는 과정에서 계승언어 학습자와 그렇지 않은 경우의 학습자 간에 사용하는 듣기 전략도 달랐다는 점이다. 계승언어 학습자는 대화문 전체에 대한 맥락을 이해하고 집중하는 경향성을 보였다. 또한 대화 구조문에서 전달하는 구조 자체에도 민감하였는데 예를 들어 전화 대화문에서 초기 대화가 여행사 직원과의 대화가 시작되는 것을 대화문의 문장 첫 구성에서 빠르게 인지하여, 내용을 이해하는 전략을 사용하였다. 반면 그렇지 않은 학습자는 지엽적인 어휘나 발음, 내용을 알아듣는 데 집중하는 전략을 사용하였지만 결국은 전체 대화 내용을 이해하지 못해 어려움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대화 흐름을 이해하는데 계승언어 학습자가 더 우월한 것으로 나타났다.

계승언어 학습자의 경우 자라는 과정에서 직접 간접으로 들은 계승 언어를 정규 교육 과정에서 배울 때 언어 기능 중 특히 듣기 기능에서 막강한 우월성을 보였다 (Lee & Kim, 2008; Yu, 2008; Xiao, 2006 등). 하지만 계승언어 학습자라 할지라도 그들의 일상에서 접할 수 없는 상황에서의 언어 대화문이 나오면 맥락을 이해하는데 어려워하고 힘들어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정 상황에 대한 대화문의 듣기 이해도는 현저히 낮아졌다. 더 나아가 들은 정보를 이해하고, 취합하여 정리해야 하는 경우 양쪽 그룹 모두 듣기를 힘들어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단순 듣기를 벗어나 비판력이나 추론적 사고를 요하는 경우 과제를 이해하는 데는 두 그룹 모두 힘들어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계승 언어 학습자가 아닌 경우 지엽적으로 단어를 이해하려는데 너무 집중하여 오히려 전체 대화문의 내용을 잘 이해하지 못하는 경향성이 나타났다. 그리고 주요 단어에 대해 자꾸 번역하려는 시도를 했는데 그러다 보니 오히려 이런 과정이 다른 단어들을 폭넓게 이해하는데 방해 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계승언어 학습자들보다 강점을 보인 경우는 문법적 힌트를 빠르게 잡아낸다던가, 연어나 속어를 빠르게 인지하는 것에 대해서는 우월하였다. 본 데이터는 스페인어

계승언어 학습자의 결과이지만 역시 한국어 계승언어 학습자의 언어 기능 발달을 예측해 볼 수 있겠다. 즉 말하기, 듣기, 읽기, 쓰기 기능에서 불균형적인 발달이 일어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래서 미국 대학에서 한국어 수업 시간에 계승 언어 학습자와 그렇지 않은 학습자들이 섞여있는 교실에서 학점에 대한 불만이 생기는 이유가 같은 급수의 언어 교실이라도 계승 언어 학습자의 학습 속도, 듣기 능력 우월 때문에 적절한 평가가 이루어지기 어려운 불만이 생겨 항상 반을 편성할 때 어려움에 접하게 된다. 일부 대학에서는 한국어 계승 언어 학습자를 위한 반을 따로 분반해주기도 하지만 대부분의 대학에서는 그런 구분 없이 반을 구성하기 때문이다.

〈그림 1〉 계승언어 학습자와 외국인 학습자의 언어 기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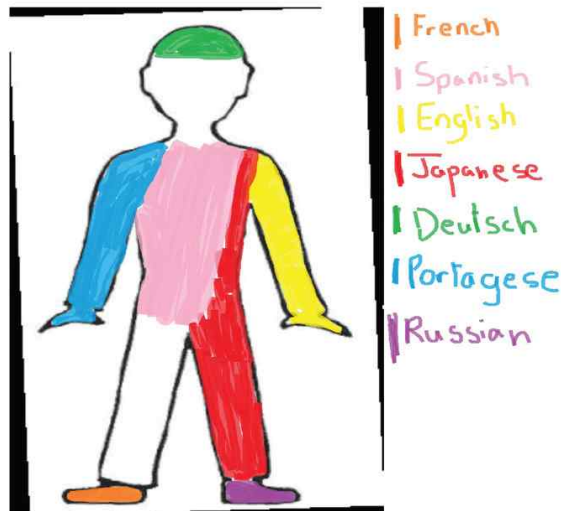


5) 계승언어 학습자의 정체성

이중/다중언어 구사자로 성장한다는 것은 정체성을 부여하는데 단일언어 구사자와는 다르다. 어린 시절부터 여러 언어에 노출되고 이를 습득하는 과정에서 언어뿐만 아니라 문화도 다양한 경로가 흡수되게 된다. 이 과정 속에서 자신은 누구인지에 대한 정체성에 대한 고민은 끊임없이 생기게 된다. 〈그림 2〉는 다중언어 구사 환경에 있는 아동들에게 언어적 정체성과 관련하여 인터뷰를 하면서 그림을 그리게 한 내용이다. 인터뷰에서 한 아동은 스페인어와 불어를 약간 구사할 수 있고, 영어는 자유롭게 구사할 수 있다고 자기를 평가했다. 할머니와 대화할 때 포르투갈어로 잘 말할 수는 없지만 손짓으로는 잘 표현할 수 있다고 답하면서, 영어로 말하지만 생각은 네덜란드어로 한다고 답하였다. 학급에서 제일 친한 아이는 일본에서 온 교포 학생으로 일본어로도 놀이를 할 때 친구의 발화를 따라 하며 이야기한다고 코를 찡긍거렸다. 이를 그림으로 그리라 하니 다음과 같이 표현하였다. 언어적 정체성에 대한 다양한 생각은 이미 아동기 때부터 시작되어 성인이 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안고 가게 되는 문제이다. 그런 면에서 한글학교의 한국어교육과 더

불어 문화 교육이 병행되는 것은 매우 자연스러운 일이며 필요한 교육 과정이라 할 수 있다. 아동기 때 한국어 교육과 더불어 병행되는 문화 교육은 정체성 확립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

〈그림 2. 다중언어 구사 아동이 그림으로 그린 언어 정체성〉



(Roswita, 2014, P.46)

대학에 들어온 이후 교포 학생들은 의외로 자아 정체성에 다시 생각하게 되고 고민하는 것을 많이 보았다. 일리노이 대학에서 한국어 강좌를 수강 신청하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요구 분석 조사에서 기억에 남는 답변 중의 하나는 ‘어머니와 대화 하고 싶어서’ 였다. 이외에 ‘직장을 찾을 때 유리해서’ ‘한국계 교포니까 한국어를 배워보고 싶어서’ ‘학점을 잘 받기 위해서’ 등등의 답들이 나왔지만 그 중 인상에 남는 답변이었다. 아동기 때는 스폰지처럼 언어를 빨아들일 수 있는 무한한 잠재력이 내재된 시기이다. 주말 한글 학교에 보내고, 한국어 책을 보게 하고, 매체를 보여주고, 한국어로 의사소통을 하려는 노력들이 쌓이게 되는 것이 중요하다.

계승언어 학습자들이 한국어를 배울 때 동기는 성공적인 학습을 이끄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도구적 동기는 목표어를 이용하여 취업을 하거나, 전문 지식을 취득하여 경제적 목적을 이루려는 동기이고 통합적 동기는 목표 문화권에 대해 친밀도를 가지고 구성원과도 동화되려는 동기를 의미한다. 흥미로운 사실은 여러 연구에서 통합적 동기를 가진 학습자일수록 장기적으로 즐기면서 언어를 배운다는 점이다(김경령, 2010; Kim, 2009)).

교포 성인 학습자들의 경우 대학에 들어와 각기 다른 동기를 가지고 한국어 과목을 수강 신청하는데 역시 통합적 동기를 가진 학습자들일수록 최고급 수준까지의 한국어 과목에 수강 신청을 하는 경우가 많다. 아동기 때 한국어와 문화 교육이 병행되는 것이 중요한 것처럼 성인이 되어

계승언어 학습자가 된 상태에서도 통합적 동기를 가지고 정체성에 대한 고민을 하면서 한국어 과목에 임하는 경우 훨씬 성공적으로 한국어 습득이 연결되는 것을 볼 수 있다.

3. 결론

본고에서는 이중언어를 사용하는 아동 학습자의 언어적 특성으로 언어 습득 시기, 언어 전환 현상, 계승언어 학습자의 어휘력, 듣기 능력 그리고 정체성 등에 대해 알아보았다. 결론은 아동기 때의 직접 간접적으로 노출되는 한국어는 지속적이고 내재적인 지식으로 자리잡게 된다는 것이다. 설사 한국어 습득이 중단된다 하더라도 성인이 되어 계승 언어 학습자인 경우 그렇지 않은 학습자들보다도 어휘력과 듣기 기능에서 언어를 다시 시작해서 배우게 될 때 그렇지 않은 학습자들보다 훨씬 우월하며, 이 능력이 다른 언어 기능의 발전에도 밀접한 영향을 준다는 것이다. 아동기 때의 한국어 교육은 어떤 측면으로 보아도 매우 중요하며 한국어와 영어 등의 균형잡힌 이중언어 구사자로 성장하기 위해 나타나는 언어 전환의 특성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

참고문헌

- 김경령(2010) 학문목적 유학생들의 독해력 지수와 읽기 전략, 동기 변인들과의 상관관계 연구, 한국어교육, p 25-50.
- 이동재(2002) 외국어로서의 한국어 교수법이 현재와 미래, 국제한국어교육학회, 제12차 학술대회 주제 특강. p 106-124.
- Davies, M. (2006). *A frequency dictionary of Spanish: Core vocabulary for learners*. New York: Routledge.
- Edna Velasquez. (2016) Lexical Competence and Reading Comprehension: A pilot study with heritage language learners of Spanish
- Johnson J.S & Newport. E.L. (1989) Critical period effects in second language learning: The influence of maturational state on the acquisition of English as a second language. *Cognitive Psychology* 21, 1989. p. 60-99.
- Kim K.R. (2001) A study of syntactic and sociolinguistic development of Korean bilingual speakers in America. Ph. D dissertation, University of Illinois at

Urbana Champaign .

- Kim, K.B (2009), "Heritage background, motivation, and reading ability of upper level post secondary students of Chinese, Japanese and Korean". *Reading in a foreign language* 21, ISSN 1539-0578
- Lee, J. S., & Kim, H.-Y. (2008) Heritage language learners' attitudes, motivations and instructional needs: The case of postsecondary Korean language learners. In K. Kondo-Brown & J. D. Brown (Eds.), *Teaching Chinese, Japanese, and Korean heritage language students: Curriculum needs, materials, and assessment* (pp. 159-185). New York, NY & London, United Kingdom: Lawrence Erlbaum.
- Lenneberg, E.C. (1967) Biological foundation of language, New York: John Widely and Sons, pp. 168-181.
- Mochida, A., & Harrington, M. (2006). The Yes/No test as a measure of receptive vocabulary knowledge. *Language Testing*, 23(1), 73-98 doi:10.1191/0265532206lt321oa
- Nation, I. P. (2006). How large a vocabulary is needed for reading and listening? *Canadian Modern Language Review/La Revue Canadienne Des Langues Vivantes*, 63(1), 59-82. doi:10.1353/ cml.2006.0049
- Read, J. A. S. (2000). *Assessing vocabulary*.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 Roswita D. (2014) Exploring Linguistic Identity in Young Multilingual Learners. *TESL CANADA JOURNAL*. V 32.
- Santos, D. & Silva, G. (2015) Exploring Portugues Heritage and Non-Heritage Learner's perceptions of and performance in Listening. *The Canadian journal of applied linguistics*: 18(1), 63-86.
- Yu, W. (2008) Developing a "compromise curriculum" for Korean heritage and nonheritage learners. In K. Kondo-Brown & J. D. Brown (Eds.), *Teaching Chinese, Japanese, and Korean heritage language students: Curriculum needs, materials, and assessment* (pp. 187-209). New York, NY & London, United Kingdom: Lawrence Erlbaum.
- Xiao, Y. (2006) Heritage learners in the Chinese language classroom: Home background. *Heritage Language Journal*, 4(1), 47-56.

김경령

숙명여대 한국어문학부 교수 krkim@sm.ac.kr



한인교육연구
Journal of Korean-American Education

한국 역사/문화 교육 연구

.....

박현모 건습왕 시절 세종이 발휘한 '품의(稟議) 리더십'

황정하 인류 최고의 발명품, 금속활자 인쇄
『직지』는 금속활자 발명국 코리아의 증거물

임정은 재외동포의 한국 역사학습을 위한 교육 콘텐츠 개발



견습 왕 시절 세종이 발휘한 ‘품의(稟議) 리더십’

박현모

여주대학교 교수 겸 세종리더십연구소장

〈세종 실록〉을 읽다 보면 의아한 대목들이 있습니다. 그중 하나는 겨우 20대밖에 안 된 청년 군주 세종이 많게는 20~30년이나 나이 많은 여러 신하들을 휘어잡고 국정을 끌여가는 점입니다. 과도한 선물과 접대를 요구하는 중국 사신이나, 걸핏 하면 ‘대장경 원판’을 달라고 생떼 쓰는 일본 사신들에 대해서 거의 초인적인 인내력을 발휘하다가 마침내 실리를 제대로 챙기는 것도 놀라운 모습입니다.

1. 즉위 초 세종의 품의(稟議) 정치

도대체 세종은 누구에게 그렇게 노련하게 정치하는 법을 배웠을까요? 최근 〈세종실록〉을 돼 읽으면서 발견한 것은 부왕 태종의 존재입니다. 태종은 세종을 낳은 아버지였을 뿐만 아니라, 민무구 형제의 도발로부터 나이 어린 충녕대군(세종)을 보호했으며, 결정적으로 양녕대군 대신 세자의 자리에 앉혔지요. 무엇보다도 그는 세자 교체 66일 만에 전격적으로 세종에게 왕위를 물려주어 새로운 시대를 열게 만들어주었습니다. 한마디로 태종이 없었다면 세종도 존재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 동안 연구자들에 의해 간과된 사실은 왕위를 물려준 태종이 세종에게 한 멘토(mentor) 역할입니다. 물론 약 4년여의 상왕 통치는 세종의 입장에서 볼 때 자존심 상하고 참기 힘든 것일 수 있었습니다. 1418년 8월 10일 세종에게 왕위를 물려주면서 태종은 “주상이 장년(壯年)이 되기 전까지 군사에 관한 일은 내가 친히 듣고 결단할 것[其軍事 予親聽斷]”이라고 말했습니다. “나라에서 결단하기 어려운 일에 대해서는 의정부·육조로 하여금 의논하게 하여 각각 가부(可否)를

진달하게 하여 시행하게 하되” 스스로도 결정권자로서 참여하겠다[參與於可否]며 ‘조건부 양위’를 선언했습니다(〈태종 실록〉 재위18년 8월 10일 자 기사. 이하에서는 ‘태종실록 18/8/10’로 줄여서 표기함).

현직 왕을 ‘정치적 미숙아’로 간주하고 후견인의 역할을 자처한 것이지요. 그런데 ‘나라에서 결단하기 어려운 일[國家難斷之事]’이란 매우 주관적인 것이어서 대마도 정벌 등 ‘군사에 관한 일’은 물론이고, 인사와 재정, 그리고 외교에 관한 일까지 태종이 관여하지 못할 영역은 없었습니다.

세종이 똑똑했던 것은 그렇게 주어진 조건을 부정하거나 무리하게 뒤집으려 하기보다는 오히려 수용하고 즐기는 자세를 보인 점입니다. 왕 자신이 할 수 있는 것은 집현전 학사들과 학문을 토론하고, 부왕의 강무(講武)를 핑계한 사냥에 따라다니는 것뿐이었지만, 그럼에도 세종은 조금도 불만스런 내색을 하지 않았습니다. 불만은커녕 적극적으로 부왕의 거처로 찾아가 아뢰고 의논한 다음 부왕의 뜻대로 결정하였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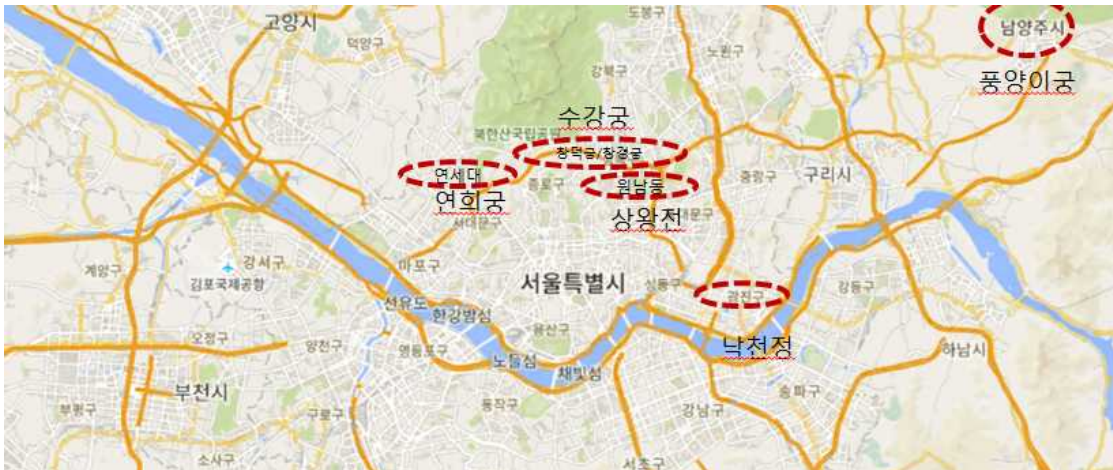


그림1: 세종이 문안 차 찾아가간 태종의 거처(구글지도에 태종의 이궁 표시)

왕위에 오른 지 26일이 되는 1418년 9월 6일부터, 부왕이 사망하기 직전인 1422년 4월 22일까지 3년 7개월 동안 세종은 그야말로 거의 매일 태종께 문안을 드렸습니다[毎日問安]. “임금이 수강궁에 나아가 문안하였다[上詣壽康宮問安]”(세종실록 1/5/8), “이어소에 문안하다”(세종실록 1/12/21), “풍양궁에 문안하다”(세종실록 3/5/9), “임금이 신궁(新宮: 연희궁)에 문안하였다(上朝新宮)”(세종실록 3/5/6), “낙천정에 문안하다”(세종실록 3/8/27) 등 수많은 문안 기사가 그것입니다.

“이 때부터 임금이 매일 궁 안의 길을 이용해 상왕 전에 나아가 문안하였는데, 기거(起居)가 익숙하였다. 임금이 종일토록 있다가 이윽고 돌아오곤 했는데, 일체 사무를 모두 상왕에게 여쭙었다.” - 〈세종실록〉 즉위년 9월 13일

세종이 즉위한 다음 달 무렵의 실록기사인데, 세종은 이 때부터 아예 태종의 거처인 수강궁(지금의 창경궁) 옆 창덕궁으로 이어(移御)하였다고 합니다. 아버지의 영향권에서 도망치려 하기보다 오히려 바짝 다가간 것이지요. 여기에서 ‘궁 안의 길[宮中道]’이란 창덕궁과 수강궁(지금의 창경궁) 사이로 난 길을 가리키는데, 세종의 문안[朝]하는 모습이 이채롭습니다. “종일토록 함께 있다가 돌아오곤 했는데, 일체 사무를 모두 상왕에게 여쭙었다[起居從容 終日乃還 一切事務皆稟焉]”고 하는바, 세종은 모든 결정을 부왕께 품의(稟議), 즉 여쭙고 의논하여 결정을 내린 것입니다.

조선왕조실록

조선왕조실록

▼

문안

신궁에 문안하였다.

442. 세종실록 13권, 세종 3년 10월 20일 기유 3번째기사 / 신궁에 문안하다

신궁에 문안하였다.

443. 세종실록 13권, 세종 3년 10월 21일 경술 1번째기사 / 신궁에 문안하다

신궁에 문안하였다.

444. 세종실록 13권, 세종 3년 10월 22일 신해 1번째기사 / 신궁에 문안하고 태상왕을 모시고 낙천정에 거둥하다

신궁에 문안하고 바로 태상왕을 모시고 낙천정에 거둥하였다.

445. 세종실록 13권, 세종 3년 10월 24일 계축 3번째기사 / 신궁에 문안하다

신궁에 문안하였다.

446. 세종실록 13권, 세종 3년 10월 25일 갑인 5번째기사 / 조치의 일처리에 대하여 책하다

자가 만일 법 세우기 전일지라도, 주장관(主掌官)의 문안(文案)을 받지 못한 자는 모두 공(公)에 속하게 하라 하였는데, 치(致)가 형조 참판이 되어 일(文) 관인(官印)없는 문서.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법이 이미 서 있으니, 경들은 이것...

447. 세종실록 13권, 세종 3년 10월 28일 정사 1번째기사 / 신궁에 문안하다

임금이 신궁에 문안하였다.

448. 세종실록 13권, 세종 3년 10월 28일 정사 3번째기사 / 세자가 신궁에 나아가 태상왕에게 문안하다

세자(世子)가 태상왕을 뵈으려 신궁(新宮)에 나아가니, 태상왕이 잔치를 배설하여 위로하고, 요속(寮屬)들은 문밖에서 잘 먹이었다.

449. 세종실록 13권, 세종 3년 10월 29일 무오 2번째기사 / 신궁에 문안하다

신궁에 문안하였다.

450. 세종실록 13권, 세종 3년 10월 30일 기미 2번째기사 / 신궁에 문안하고 태상왕을 모시고 낙천정에 거둥하다

신궁에 문안하고, 바로 태상왕을 모시고 낙천정에 거둥하였다.

그림2: 〈세종실록〉에서 검색한 용어 "문안"(세종은 '거의 매일' 상왕 태종을 찾아가 상의하고 결정했다.)

2. 정치가 태종의 경륜과 후계자 배려

사실 ‘정치 멘토(Mentor)’라는 측면에서 볼 때, 태종 같은 스승은 드물다고 하겠습니다. 태종은 고려 최고의 교육기관인 성균관에서 공부하고, 당대의 석학 원천석(元天錫)의 가르침을 받아 과거에 합격한(17세) 실력파 군주였습니다.

그는 스물두 살 때인 1388년에 자기보다 25세 연상의 정도전과 손잡고 위화도 회군을 이끌어냈으며(1388년 5월), 혁명에 방해가 되는 인물들, 즉 최영(1388년 12월), 이색(1389년 12월), 정몽주(1392년 4월)를 차례로 제거했습니다. 상황 판단력과 일 추진력이 대단했던 것이지요.

태종은 1392년 7월 아버지를 도와 조선을 건국했고, 마침내 혁명 동지였던 정도전마저 척살하는 등 회군한지 딱 10년 만에 정도전마저 거꾸러뜨리고 마침내 최고 권력자가 되지요(1398년). 한마디로 이방원은 회군(回軍)과 건국(建國)과 즉위(即位)라는 엄청난 정치적 소용돌이를 헤치고 나간 사람입니다.

그런 그가 겪은 수많은 인물 이야기와 정치적 결정과 추진력의 중요성을 청년 군주 세종에게 세세하게 들려주는 실록의 대목은 흥미진진합니다. 역사상 가장 짧은 세자교육 기간(66일)과 책벌레에 불과했던, 그래서 정치권력의 냉혹함이나 국가경영의 복잡 미묘함을 제대로 알지 못했던 세종이, 것처럼 노련하게 정치세계를 헤치고 나갈 수 있었던 비밀을 발견하는 기쁨이 있습니다.

태종은 우선 아들 세종의 건강을 챙기는 일을 했습니다. “주상은 몸이 비중(肥重)하시니 때때로 궁궐 밖으로 나가 놀면서 몸을 존절히 해야 한다[出遊節宜]”면서(세종실록 즉위년/10/9) “강무(講武)”라고 불리는 군사 훈련을 겸한 사냥 동참시켰으며, 모친상을 당해 세종이 큰 슬픔에 빠져 있자 “병이 날까 두렵다”면서 억지로 음식을 먹게 하였습니다(세종실록 2/7/22).

다음으로 태종은 ‘결자해지(結者解之)’의 차원에서 자신이 처벌한 신하들을 복권시켰습니다. 후임자 세종으로 하여금 ‘부왕의 죄인’이라 하여 인재를 못 쓰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세종 재위 2년에 “내가 풀어주지 않으면 주상이 쉽게 용서하지 못할 것”이라면서 홍여방 등을 석방한 일이나(세종실록 2/5/26), 재위4년에 양녕대군 쪽에 줄을 섰다가 유배간 황희를 풀어주고 서울로 불러 올린 일(세종실록 4/2/20) 등이 그것입니다.

흥미로운 것은 태종 자신의 왕비, 즉 원경왕후가 사망했을 때 실용적으로 대처하는 그의 모습입니다. 태종은 세종 재위 2년에 원경왕후의 능을 서울 남쪽 대모산 자락에 조성할 때 종래처럼 능침 옆에 원찰을 지으려는 신하들에게 “이곳은 내가 장차 묻힐 곳인데, 나는 중들이 내 곁에 있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면서 반대했습니다. 불교식 장례 예법도 최소화시켰지요.

태종은 나아가 능침의 석실(石室)을 덮을 돌 뚜껑을 쪼개서 사용하게 했습니다. 그는 “돌 뚜껑을 쪼개서 쓰면 운반하기에는 편리하겠으나, 통돌[全石]처럼 견고하지 못할 것”이라는 세종에게 넓고 두꺼운 통돌을 쓰는 것은 옛날에 없었던 일이며, 무엇보다 운반하다 사람이 죽을 수도 있다고 설득했습니다. 세종이 여전히 망설이자 그는 본인이 직접 돌 캐는 서울 안암동 공사 현장에 가서 석공을 시켜 철퇴로 덮개돌을 쪼개도록 지시했습니다. “문헌을 보면 석실이라고만 되어 있고, 통 돌을 쓰라는 구절이 없다”라고도 말했습니다(세종실록 2/8/17). 능침 작업을 마무리하면서 태종은 자신이 왕실 장례와 관련해 몇 가지 전통을 세웠는데, 그 중 하나가 쪼갬 덮개돌을 사용하게 한 일이라고 회고하기도 했습니다. 불합리한 예법을 뜯어고쳐서 후대 왕들이 곤란을 겪지 않도록 솔선수범한 것입니다.

3. 태종의 멘토 리더십 사례

정치 스승으로서 태종의 역할은 뭐니 뭐니 해도 매우 어려운 상황에서 현명하게 결정을 내리도록 도와준 일입니다. 가령 제2차 대마도 정벌, 즉 무례한 일본 국왕을 징벌하기 위해 다시 군대를 동원할 것인가(세종실록 2/11/1)와 같은 군사적인 문제나, 적휴 등 스님들이 중국으로 건너가 숭불(崇佛)하는 명나라 황제에게 조선의 불교 탄압 사실을 고변했을 때 어떻게 할 것인가(세종실록 3/5/15~19) 하는 외교적인 사안이 발생하면 세종은 곧장 부왕이 머무는 곳에 가서 며칠씩 긴밀히 품의(稟議)하고 대책을 세우곤 했습니다.

그 외에 황희의 정치 복귀 문제나(세종실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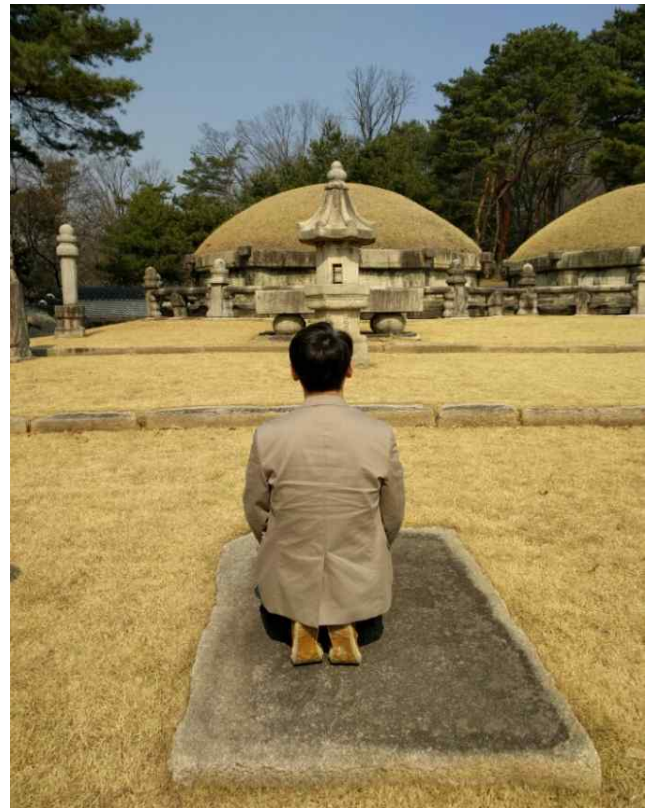


그림3: 서울 대모산 자락의 태종릉(왼쪽)과 원경왕후릉
세종은 태종이 사망한 후에도 이곳에서
부왕께 품의하곤 했다.

4/2/12), 임군례와 같은 한족(漢族) 출신 공신 자녀의 처형 문제(세종실록 3/2/18) 등 까다로운 정치적 사안에 대해 결정을 내릴 때도 세종은 부왕이 머무는 풍양 이궁(지금의 포천 소재)이나 수강궁에서 하룻밤을 자면서 자문을 구하곤 했습니다.

이러한 품의(稟議)정치는 세종에게 가장 어려운 문제, 즉 ‘심은 사건’ 때도 그대로 적용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태종이 자신의 심복 강상인을 희생시켜 가면서 세종의 장인 심온을 제거한 외척 제거 프로젝트였는데, 강상인의 죄가 거론되기 시작한 1418년(세종 즉위 년) 8월 말부터, 심온이 자결하는 그 해 12월 말까지 4개월 동안 세종은 하루도 빠지지 않고 부왕께 “문안”을 드렸습니다. 강상인의 거열(車裂) → 심온의 동생 심정 사형 → 심온의 자결에 이르는 전 과정을 세종은 잘 알고 있었을 뿐더러 부왕의 외척 제거 작업에 공감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보기에 따라선 국왕의 품의(稟議)정치라기보다 상왕의 섭정(攝政)이라고도 할 수 있는 이러한 국정운영은 1419년(세종1년)의 대마도 정벌 때도 그대로 적용되었습니다. 대마도 토벌을 구상하는 단계(세종실록 1/5/13)로부터 정벌 후에 총책임자인 유정현의 승전 보고를 받을 때까지(세종실록 1/7/28) 세종은 부왕의 거처인 수강궁에서 “비밀히 의논[密議]”하고 지시하고 추진하는 합동작전을 펼쳤습니다.

이 즈음의 세종의 모습에 대해서 실록은 “임금이 창덕궁에서 수강궁까지 걸어가서 매일 수강궁에 문안하였는데, 무릇 국가의 대사(大事)나 군무(軍務)에 이르기까지 모두 상왕께 아뢰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때 승지와 병조의 관리들, 의정부의 신하들까지 왕을 따라다니며 ‘품의 정치’를 보필했다고 합니다(세종실록 1/9/4).

인내력의 대왕 세종에게 배울 점

이러한 품의 정치, 즉 세세한 자문을 통해 결정 내리는 세종을 어떻게 보아야 할까요? 무기력하고 의존적인 사람으로 볼 수도 있고, 경험 많은 부왕을 잘 활용한 노력한 사람이라고 할 수도 있겠습니다. 제 생각은 후자입니다.

만약 세종이 부왕의 정치개입을 반대하고 독자적으로 결정하려 했다면, 둘 사이의 충돌은 불가피했을 것입니다. 둘 중 한 사람은 치명적인 상처를 입었을 것이고, 왕실의 체통은 크게 망가졌을 것입니다. 아마도 세종이 양녕이나 정종처럼 자의 반 타의 반으로 자리에서 밀려났을 가능성이 큼니다. 당시 조정의 신하들은 대부분 ‘태종의 사람들’이었고, 무엇보다 군사력을 태종이 쥐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운명의 수레는 순종하는 자는 태우고 가고, 거역하는 자는 끌고 간다”라는 속담이 있습니다. 세종은 ‘끌려가기’보다 ‘타고 가는’쪽을 선택했습니다. 새가 울지 않을 때, 죽이거나 억지로 울게 만들기보다는 ‘울 때까지 기다리는’사람이 세종이었습니다. 그는 가히 ‘인내력의 대왕’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 결과 정치와 효도라는 두 가지 가치를 원만하게 조화시킬 수 있었습니다. “주상이 현명하고도 원숙하기가 참으로 문왕(文王)과 같다.”(세종실록 2/5/16)라는 태종의 칭찬이 그것을 말해줍니다.

마지막으로 리더십의 측면에서 볼 때, 태종과 세종의 관계에서 배울 점은 무엇일까요? 요즘 국가나 기업의 중요한 자리에서 물러난 사람들은 서둘러 책상을 치우는 데 급급합니다. 후임자의 부담을 줄여준다면서 되도록 애써 안 만나려 할뿐더러, 인수인계조차 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후임자 역시 무엇을 새로 시작할 것인가에

만 골똥합니다. 전임자의 경험을 무시하고 쌓아놓은 업적을 부정하기까지 합니다. 중요한 국가 정책이나 회사를 발전시킬 사업이 종종 중단되는 것은 바로 이 때문입니다.

세종은 “일을 잘 하려면 먼저 역사를 보아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역사에는 잘 해서 성공했던 경우와 그렇지 못한 사례가 무수히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세종이 태종에게 했던 것처럼, 그리고 태종이 세종에게 했던 것처럼, 후임자는 겸손하게 배우고 전임자는 진지하고 정성껏 가르쳐주는 ‘품의(稟議) 리더십’이 더욱 간절해지는 때입니다. (끝)

참고문헌

1차 자료 : 〈태종실록〉, 〈세종실록〉

2차 자료 : 박현모. 2014. 〈세종이라면: 오래된 미래의 리더십〉. 서울: 미다스북스.

박현모. 2017. 〈세종의 국정: 견습 왕 세종, 태종이 물려준 정치자산〉. 성남: 한국형리더십개발원.



인류 최고의 발명품, 금속활자 인쇄

『직지』는 금속활자 발명국 코리아의 증거물

황정하

청주 고인쇄박물관 학예연구실장

1. 『직지』는 최초의 금속활자본인가?

인류의 정보 전달 매체는 언어(몸짓, 소리), 문자(필사, 기록), 인쇄(목판, 활자), 전자(컴퓨터, IT 등)미디어 순으로 발전하였다. 이 가운데 가장 혁신적인 미디어는 금속활자의 발명이다. 그 이유는 금속활자로 책을 간행하여 보급함으로써, 지식 정보의 대량 전달이 가능해졌기 때문이다. 이런 정보화의 핵심인 금속활자 인쇄술은 13세기 초, 한국에서 발명되었다. 한국의 금속활자 인쇄 기록은 『남명천화상송증도가』와 『상정예문』에서 찾아 볼 수 있다. 『남명천화상송증도가』는 1239년에 간행한 목판본이 전하는데, 최이의 발문에 ‘금속활자본을 다시 목판으로 새긴다’는 기록이 있다. 이것으로 보아 1239년 이전에 이미 금속활자로 인쇄한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이규보의 『동국이상국집』에 ‘『상정예문』을 금속활자로 28부 인쇄하여 각 관서에 나누어 보관토록 했다’는 기록이 전하고 있다. 그러나 이 두 책은 기록만 전할 뿐, 실물은 전하지 않는다. 그런 가운데 1377(고려 우왕 3)년 7월에 청주 흥덕사에서 금속활자로 간행한 『백운화상초록불조직지심체요절(이하 직지)』은 현재 프랑스 국립도서관에 전하고 있다. 따라서 『직지』는 대한민국이 13세기 초에 금속활자를 발명한 슬기로운 문화민족이라는 것을 입증하는 증거물로서 현존하는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금속활자본이다.

2. 『직지』는 누가 어떻게 만들었는가?

『직지』를 편저한 경한(1298~1374)스님의 호는 백운이며, 어려서 출가하여 불법을 익히고 중국의 석옥청공화상과 인도의 지공화상에게 법을 물어 도를 깨달았다.

백운화상은 제자들에게 선법을 가르치기 위해 그의 제자 범린의 도움을 받아 부처와 조사 스님들이 마음의 본체를 똑바로 가르친 설법의 중요한 절목만을 간추려 상·하권으로 편저하였다. 즉, 팔만대장경과 수많은 조사 어록의 요점을 집약한 선불교에 있어서 최고의 교과서로 평가받고 있다.

백운화상이 입적한 후 스승의 가르침과 뜻을 기리기 위해 석찬과 달잠이 1377년 7월에 충북 청주 흥덕사에서 비구니 묘덕의 시주를 받아 금속활자로 『직지』를 간행하였다.

3. 『직지』는 어떻게 생겼을까?

흥덕사에서 간행한 금속활자본 『직지』의 상권은 현재 전하지 않고, 하권만 프랑스 국립도서관에 전하고 있는데, 총 39장 중 첫 장이 떨어져 없고 38장만 남아 있다.

이 책의 크기는 세로 및 가로가 24.6×17.0cm이고, 인쇄한 판의 크기는 21.0×14.8cm이다. 활자판 상하좌우의 테두리는 단변이며, 행을 구분하는 계선이 있다. 반장의 행수는 11행이며, 한 줄에는 17~20자가 배열되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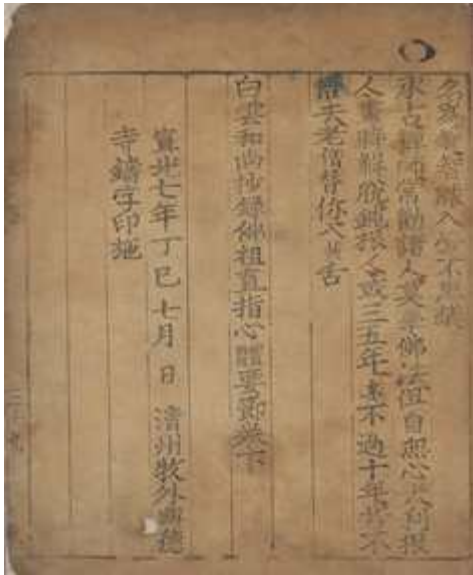
이 책의 특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① 본문 속의 행과 열이 비스듬하여 바르지 않고 삐뚤어져 있으며, 그 중에는 글자가 옆으로 비스듬하게 기울어진 것도 있다.
- ② 찍힌 글자에 묻은 먹의 농도가 짙고 얇음의 차이가 심하게 보이는 글자가 있으며, 흐린 부분은 세필로 덧칠한 흔적이 여러 곳에 보인다.
- ③ 조판시에 상하가 바뀌어 거꾸로 인쇄된 글자도 있고, 탈락된 글자도 보인다.
- ④ 동일 장에 같은 글자의 모양은 서로 다르나, 다른 장에서는 모양이 같은 글자가 있다. 이는 글자를 반복하여 사용한 것이다.
- ⑤ 2개의 인판 틀을 사용하여 조판하여 인쇄하였다.

이상으로 보아 금속활자로 인쇄했다는 간행기록과 함께 인쇄된 상태에 나타나는 특징에서도 금속활자본임을 명확히 하고 있다.

이 책의 마지막 장에는 인쇄년도(1377년 7월)와 인쇄장소(청주 흥덕사), 인쇄방법(금속활자)이 기록되어 있다.





『직지』 마지막 장



『직지』 표지

4. 『직지』가 프랑스로 간 까닭은?

1886년 프랑스와 외교관계가 수립된 이후 초대 프랑스 대리공사로 부임한 콜랭 드 플랑시 (Collin de Plancy : 1853~1922)는 한국에 호기심이 많았던 인물 중에 한 사람이었다. 그리고 궁중 무희였던 리심(이진)과 결혼한 인물로 알려져 있다. 이는 조선에 2번씩 부임한 외교관으로 고서를 비롯한 수많은 한국의 문화재를 수집하였다. 한편 플랑시는 1900년 파리 만국박람회를 개최할 때 한국관을 담당하여 한국을 알리기도 하였다. 이 박람회에 『직지』가 처음으로 공개 전시되었다. 그리고 모리스 꾸랑(Maurice Courant : 1865~1935)은 1901년에 간행한 『한국서지』보유판에 『직지』를 다음과 같이 소개하였다.

3738 백운화상초록불조직지심체요절

1책. 대 8절판(제2권만 있음). C.P. B.N. Coréen 109

이 책 마지막에는 다음과 같은 설명을 적고 있다. “1377년 청주목 외 흥덕사에서 주조된 활자로 인쇄됨.” 이 내용이 정확하다면, 주자, 즉 활자는 활자의 발명을 공적으로 삼는 조선시대 태종의 명(n° 1673)보다 26년가량 앞서 사용된 것이다. 그 외에도 선광 7년이라고 쓴 연대를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 선광이라는 통치 연대의 명칭은 1371년 원조의 왕위 계승을 요구하는 소종에 의해 채택된 것이다.

폴랭 드 블랑시는 1911년에 두르오 경매장(Hôtel Drouot)에서 소장품 883점에 대한 물품 경매가 있었는데, 그 중에 700여 점이 한국 자료였다. 대부분의 고서는 프랑스 국립도서관에서 구입하였다. 그러나 『직지』는 앙리 베베르(Henri Vever ; 1854~1942)가 180프랑에 구입하여 소장하고 있다가, 그의 유언에 따라 외손자 마탱(François Mautin)이 1952년 프랑스 국립도서관에 기증하였다.

1972년 유네스코에서 정한 “세계 도서의 해”를 맞이하여 프랑스 국립도서관에서 ‘책’ 전시회가 열렸다. 이 때 『직지』가 전시되면서 금속활자 발명이 독일의 구텐베르크가 아니라, 한국임이 밝혀지는 계기가 되었다.



폴랭 드 블랑시



모리스 꾸랑



앙리 베베르

5. 『직지』를 간행한 흥덕사 터는 어떻게 찾았나?

프랑스 국립도서관에서 『직지』가 전시된 이후 간행지인 청주 흥덕사를 찾고자 노력하였으나, 그 위치가 확인되지 않았다. 1984년에 청주 운천동 일대 택지 개발공사를 하던 중 절터가 확인되어 1985년에 발굴조사가 진행되었다. 이 절터에서 ‘서원부 흥덕사(西原府興德寺)’라는 글씨가 쓰여 있는 청동 금구 조각이 발견되었다. 『직지』를 간행한 흥덕사의 위치가 확인되어 문화재청에서 사적 제315호로 지정하였다. 이 터를 정비하면서 한국의 옛 인쇄문화를 보전하고, 인류문화 발달사를 조명하는 청주 고인쇄박물관을 1992년에 건립하게 된 것이다.





홍덕사와 청주고인쇄박물관

6. 『직지』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등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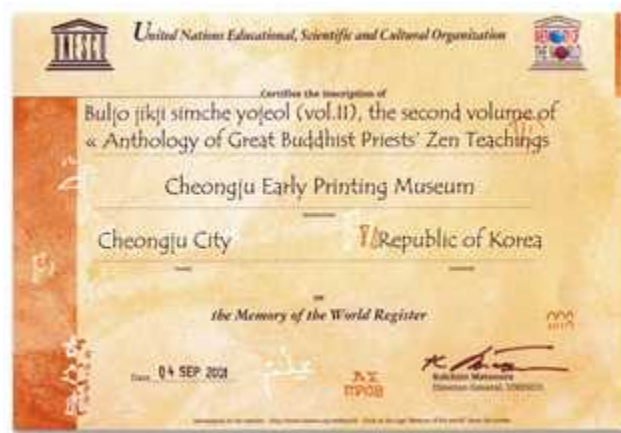
청주 고인쇄박물관과 시민단체에서는 『직지』를 찾는 운동을 전개하기도 하였으며, 한편에서는 『직지』가 가장 오래된 금속활자본이니까 기네스북에 등재하자는 움직임도 있었다. 이에 고인쇄박물관에서는 『직지』의 가치와 위상을 세계적으로 알리기 위하여 1997년에 유네스코 한국위원회와 공동으로 ‘동·서양 고인쇄문화 국제학술회의’를 개최하였다. 이때 유네스코 한국위원회 관계자들과 만나 이야기하는 가운데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프로젝트에 대해 알게 되었다. 유네스코의 유산사업은 세계유산과 세계기록유산이 있다는 것이었다. 세계유산은 1972년에 세계유산 협약을 체결하면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으로 부동산 문화재가 이에 해당되고, 또한 사라져 가는 기록 유산도 관리해야 한다는 필요성이 대두되면서 1993년에 세계기록유산 프로젝트를 만들었다는 것이다. 따라서 직지는 세계기록유산에 등재해야 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직지』가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으로 등재된다면 우수성과 가치를 빠른 시일 내에 전 세계에 알릴 수 있다는 판단 아래, 1998년에 유네스코 한국위원회를 통하여 유네스코 본부에 등재 신청을 하였다. 그러나 유네스코에서는 『직지』가 프랑스 국립도서관에 소장되어 있기 때문에 프랑스와 공동으로 신청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이에 외교통상부와 유네스코 한국대표부를 통해 『직지』가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으로 등재될 수 있도록 프랑스와 협의해줄 것을 요청하였다. 이에 대해 프랑스 국립도서관으로부터 받은 회신은 『직지』를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등재할 필요성을 못 느

킨다는 내용이었다. 따라서 제4차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국제자문위원회에 『직지』는 안전으로 상정조차 할 수 없었다. 유네스코 국제자문위원회는 세계기록유산의 전반적인 프로그램 계획 및 이행에 자문을 제공해주는 조직체로써, 유네스코 사무총장이 선발한 14명의 기록 유산 보존 분야 전문가들로 구성되어있다. 사무총장은 2년마다 정기적으로 국제자문위원회를 소집하는데, 여기에서 기록 유산 등재가 권고된다.

청주시에서는 전략을 바꿔 제5차 국제자문위원회를 청주로 유치하여 유네스코와 자문 위원들에게 『직지』를 홍보하는 것으로 목표를 수정할 수밖에 없었다. 이에 고인쇄박물관과 유네스코 한국위원회 관계자들이 오스트리아 비엔나 회의에 참석하여 청주 유치를 희망하는 신청서를 제출하였으나, 멕시코에서도 신청하여 서로 경합을 벌이게 되었다. 유네스코의 기본 입장은 개최국의 수도를 희망하였다. 즉, 청주는 개최국의 수도가 아니기 때문에 어렵겠다는 반응이었다. 이런 어려운 상황에서 자문위원들과 개별 접촉을 통해 이해와 설득 작업에 들어갔다. 그 결과 2001년 제5차 국제자문위원회 개최지로 청주가 결정되었다.

이 회의를 준비하면서 『직지』를 안전에 상정하였을 경우, 유네스코 규정상 문제점이 없는지, 프랑스 국립도서관의 입장은 어떤지 등을 검토하였다. 프랑스 국립도서관의 입장은 찬성도 반대도 하지 않는다는 것이었다. 그리고 『직지』의 가치를 증명하기 위해 독일 구텐베르크 박물관장으로부터 등재 추천서를 받아 첨부하는 등 다방면에 걸쳐 안전 상정에 대한 노력을 아끼지 않았다. 마침내 유네스코 본부에서는 회의 안전에 『직지』를 포함하게 되었다. 회의 개최결과 『직지』는 구텐베르크 성서와 함께 등재가 권고되었고, 2001년 9월 4일에 청주고인쇄박물관으로 등재되었다.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중에 소장하고 있지 않으면서 등재한 유일한 예이다. 『직지』는 대한민국을 넘어 세계가 인정하는 인류문화유산으로 자리매김한 것이다. 그리고 2004년에 유네스코 직지상(UNESCO Jikji Prize) 제정하여 2005년부터 2년마다 기록 유산 보존·활용에 크게 공헌한 개인 및 단체에게 시상하고 있다.



유네스코 직지상 시상식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인증서 / 『직지』

7. 금속활자 인쇄의 세계사적 의미는?

인류는 의사 전달을 위해 네 번에 걸친 정보혁명을 거쳐 발전하였다. 첫 번째로는 몸짓이나 소리에 약속된 의미를 부여하여 의사를 전달한 것이고, 두 번째는 각종 부호나 문자를 사용하여 기록하기 시작한 것이다. 세 번째로는 금속활자로 책을 간행한 일이며, 마지막이 컴퓨터의 발명을 들 수 있다. 이 가운데 가장 위대한 혁명은 금속활자의 발명을 꼽고 있다. 그 이유는 활자를 이용하여 책을 간행하여 보급함으로써 정보의 대량 전달이 가능했기 때문이다. 이런 정보화의 가장 핵심 기술인 금속활자의 발명은 13세기 초에 한국에서 일어났다. 물론 활자의 원리는 1041년에 중국 북송의 필승(畢昇)에 의해 교니활자(흙 활자)를 만든 것이다. 흙으로 활자를 만들다 보니 인쇄할 때 부서지는 등 반복 사용에 어려움이 생겨 성공하기 힘들었을 것이다.

고려에서는 내란과 외침을 겪으면서 혼란한 사회를 바로잡은 최씨 무신정권기인 13세기 초에 『남명천화상송증도가』와 『상정예문』을 금속활자(鑄字)로 인쇄했다는 기록이 전하고 있으며, 1377년 청주 흥덕사에서 금속활자로 간행한 『백운화상초록불조직지심체요절』이 현재 프랑스 국립도서관에 전하고 있다. 이것은 현존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금속활자본으로 2001년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에 등재되었다. 한국에서의 금속활자 인쇄는 조선시대에 60여 종의 활자를 이용하여 각종 서적을 간행하는데 사용되었으며, 중국과 일본에 영향을 주기도 하였다.

서양에서의 금속활자 인쇄는 독일의 구텐베르크에 의해 『42행성서』를 1453~55년에 걸쳐 180부를 인쇄하였다. 당시 필경사 1명이 성서를 필사하는데 3년이 걸렸던 것에 비하면 획기적인 변화였다. 인쇄 방법은 조판을 하고 잉크를 바른 다음 양피지나 두꺼운 종이를 위에 놓고 인쇄기를 이용하여 앞뒤 양면에 인쇄한다. 한국의 금속활자 인쇄는 인쇄기 없이 행해진 반면 서양에서는

인쇄기가 없어서는 안 된다. 이는 한국의 한지와 유럽의 양피지나 두꺼운 종이의 차이 즉, 특유한 견고성이나 책 제본의 서로 다른 전통이 이러한 기술적 차이를 낳은 것으로 보인다. 구텐베르크의 인쇄술은 당시 이탈리아를 중심으로 전개되었던 르네상스와 유럽 내 대학의 설립 등으로 책의 수요가 폭발적인 증가한데 힘입어 50년 내에 전 유럽으로 인쇄술이 확산되었다.

구텐베르크의 기법은 놀라운 속도로 보급되었다. 1500년에는 종교 서적, 희랍어와 로마의 고전, 과학 서적, 콜럼버스의 신대륙 발견 보고서 등 500,000부 이상의 인쇄된 책이 보급되었을 것이라고 추측된다. 문예부흥을 가속화시킨 것은 구텐베르크 인쇄의 첫 부산물이었다. 구텐베르크 인쇄가 없었더라면 종교개혁 운동도 다음 세기에 이루어진 산업혁명과 시민혁명도 이루어지지 못했을 것이다.

최근 미국 의회 도서관에서는 "세계 보물들: 초기 유물들"이라는 특별 전시회를 개최하면서 한국의 금속활자에 대해 워싱턴 포스트지(紙)에 광고를 했다. 또한 최초의 금속활자는 서구에 널리 알려져 있듯이 1455년 구텐베르크가 아니라 그보다 200년 앞서 한국인에 의해 발명됐다고 소개하였다. 따라서 독일 구텐베르크는 활자를 처음 발명한 발명가라기보다는 인쇄기의 발명가로 기억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 중국의 필승은 교니활자로 활자의 원리를 창안하였다면, 한국은 금속활자를 실용화 단계로 정착하였으며, 독일 구텐베르크는 인쇄기를 이용하여 확산 보급시키는데 기여하였다.

세계 인쇄문화사적으로 밝혀지지는 않았지만, 아마도 한국과 독일은 금속활자에 관한 정보를 교환하였을지도 모른다. 이 당시 동서무역의 교통로였던 실크로드를 통한 서양 전파 즉, 일명 '활자 로드(Type road)'의 가능성을 제기할 수 있을 것이다.



재외동포의 한국 역사학습을 위한 교육 콘텐츠 개발

임정은

독립기념관 학예연구관

I. 머리말

“훌륭한 미국인이 되라. 그러나 한국인의 정신은 잊어서는 안 된다.”

1926년 미국에 머물던 안창호가 한국의 독립운동을 위해 중국으로 떠나면서 당시 11살이었던 첫째 딸 안수산에게 남긴 말이다. 미국에서 자녀를 낳고 길러낸 아버지로서, 한국의 독립을 위해 전 생애를 바친 독립운동가로서, 해외 한인들의 정착과 발전을 위해 노력한 지도자이자 교육자로서 안창호의 경험과 깨달음이 오롯이 담겨있다. 그러기에 미국인으로 살아갈 자녀에게 마지막으로 남긴 안창호의 말은 한인으로서 해외에 살고 있는 동포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한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재외동포들이 ‘한국인의 정신’을 배우고 기억하고자 할 때 도움이 되도록 역사교육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해준다.

재외동포에게 한국의 역사교육이 필요한가에 대한 성찰과 더불어 중요하게 다루어져야 하는 사항은 역사교육이 어떻게 이루어져야 하는가에 대한 방향 논의와 실질적으로 재외동포 사회에서 역사 학습이 가능하도록 교육 환경을 만드는 것이라 생각한다. 독립기념관은 박물관이자 역사교육기관으로서의 특성을 활용하여 재외동포에게 의미 있는 한국역사 교육기회를 제공하고, 재외동포 역사교육에 대해 활발히 논의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었으면 하는 취지에서 해외 한글학교 대상으로 역사교육 콘텐츠¹⁾를 개발·보급하게 되었다.

1) 교육 콘텐츠란 교육을 목적으로 어떤 소재나 내용에 여러 가지 공정과 가치를 더해 만든 결과물을 의미하며, 본 글에서는 주제별 역사수업을 위해 가공된 교사 자료 및 학생 교구재, 기타 진행물품을 일괄적으로 일컫는다.

II. 역사교육 콘텐츠 개발과정과 방향

독립기념관은 1987년 충남 천안에 설립된 기념관으로 ‘외침을 극복하고 민족의 자주와 독립을 지켜 온 우리 민족의 국난극복사와 국가발전사에 관한 자료를 수집, 보존, 전시, 조사, 연구하게 함으로써 민족문화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국민의 투철한 민족정신을 선양하여 올바른 국가관을 정립하는데 이바지하게 한다.’ 라는 설립목적を 가지고 있다. 설립목적에 따라 독립기념관은 국난극복사와 국가발전사 특히 독립운동사에 관한 역사자료를 수집·조사하여 이를 연구하고, 대중에게 전시하고 교육하는 박물관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또한 역사교육기관으로서 민족의 정체성 함양과 나라사랑·평화공존의 역사의식 확산을 목표로 국내외 한민족에게 역사에 대한 흥미와 관심을 불러 일으키고 대상과 수준에 맞게 역사를 가르치고 배울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이에 따라 독립기념관의 교육사업은 크게 독립기념관을 방문하는 관람객을 대상으로 교육프로그램을 개발·운영하는 부분과 매년 계기가 되는 독립운동사 인물·사건, 일제침략 잔재문제 등에 대해 대중의 관심을 높이기 위해 학교 등지에 교육 콘텐츠를 보급하는 부분으로 나뉘어져 있다. 최근 대내외적으로 교육 콘텐츠 보급에 대한 수요가 높아지고 있어 점차 비중이 높아지고 있다. 특히 재외동포들의 교육 콘텐츠 보급 요구는 최근 3년간 꾸준히 있어왔고, 독립기념관은 시범적으로 자료를 지원해왔다. 2014년부터 현재까지 호주광복회에 교육프로그램과 교구재, 교안(학습지도안), 프리젠테이션 자료 등을 제공하여 호주 동포들의 힘으로 청소년 대상의 2박 3일 역사캠프를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한 2016년에는 칠레 한글학교의 요청으로 독립군, 독도에 관한 교수학습자료, 체험활동물을 일괄적으로 제공하여 현장 교사와 동포사회에서 긍정적인 반응을 얻었다. 지원 초기에는 학생이 사용하는 교재와 체험물품만 제공했으나 현지에서의 수업 진행을 위해 교사에게 제공하는 자료도 매우 중요하다는 의견에 수렴하여 점차적으로 역사수업 진행 및 교육 환경 조성을 위한 교수학습자료를 일괄 제공하는 형식으로 발전해왔다. 올해부터는 독립기념관의 전문인력과 자원, 그 동안의 경험을 기반으로 재외동포를 위한 역사교육 콘텐츠 개발·보급사업을 추진하게 되었다.

재외동포 정체성 함양에 도움을 주는 것을 목표로 독립기념관이 콘텐츠 개발 시 중요하게 고려한 사항은 크게 3가지이다.

첫 번째가 소장품을 가지고 있는 독립기념관의 박물관적 특성을 활용하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독립기념관은 관람객이 전시된 소장품(역사자료)을 살펴보면서 역사를 배우고 생각해 볼 수 있도록 하는 ‘전시물(object) 기반 학습’을 중요시한다. 전문가들이 역사자료를 분석하고 정리한 사실을 교육 참가자에게 제시하는 것이 아니라, 학습자가 역사학자처럼 직접 자료를

보면서 역사적 인물이나 사건을 탐구하고 상상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이에 따라 한글학교에 보급될 모든 교육 콘텐츠는 학생들이 역사자료를 살펴보는 활동을 중심으로 개발되었다.²⁾

두 번째는 학습자가 재미있게 역사를 접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재미는 어떠한 활동에 대한 결과나 보상을 기대하지 않고 활동 자체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몰두하려는 정서상태를 말한다.³⁾ 학습자가 활동에 재미를 느끼게 하는 요소에는 관련성, 친밀감, 만족감, 공동체의식, 주인의식, 기대감, 호기심, 유능감, 자신감, 성취감, 도전성, 창의성, 중독성이 있으며 참여, 팀워크, 과제의 복잡성, 격려와 피드백, 경쟁과 모방, 표현도구, 문화예술활동, 실제적 환경, 시간의 적절성, 과정의 용이성, 과제의 복잡성, IT기반 활동, 통합교과, 문화예술활동, 준비와 연습, 체험활동 같은 조건 하에서 재미가 극대화 된다고 한다.⁴⁾ 교육 콘텐츠 구성 시 학생들이 재미있게 역사학습에 참여할 수 있도록 가장 고려했던 요소와 조건은 ‘관련성과 주인의식’, ‘참여와 체험활동’이다. 미주 한인과 관련이 있는 역사자료나 보편적으로 인간사회에서 중시하는 가치를 다루어 학습자가 속한 사회와의 관련성을 높이기 위해 노력했다. 역사학습 활동과 한글학교 학생 간 관계 맺기를 중요하게 생각한 것이다. 또한 체험활동과 역사자료 탐구를 통해 학생들이 수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주인의식을 느낄 수 있도록 구성했다.

세 번째는 교육 대상과 수준에 맞게 역사를 쉽게 가르치고 배울 수 있도록 콘텐츠를 제공하는 것이다.

한글학교는 정규학교가 아니라 자발적인 한인들의 노력으로 만들어진 교육기관이고 학교마다 학생들의 연령, 학년별 비중, 수업환경 및 여건, 교사 역량 등이 각기 다른 특성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특성을 고려하고 콘텐츠 선호도를 파악하기 위해 정규교육과정처럼 일괄적으로 같은 주제를 수준별로 만드는 것보다는 다양한 주제에 맞추어 교육 콘텐츠를 만들고, 교사들이 학교의 상황을 고려하여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뿐만 아니라 주제별로 수업을 할 때 필요한 프리젠테이션, 교안(학습지도안), 역사자료 해제 등으로 구성된 교사자료와 학생이 사용할 교구재를 일괄적

2) 역사자료는 역사를 연구할 때 필요한 재료로 흔히 사료(史料)라고 한다. 학생 교재에는 1차 사료와 더불어 사료가 만들어진 시대적 배경과 상황, 교사 자료에는 1차 사료 분석내용, 1차 사료를 보충할 수 있는 2차 사료, 교안(학습지도안) 등이 담겨 있다. 1차 사료는 동 시대 또는 현장에 있었던 사람들이 직접 보고 듣고 느낀 것을 기록한 편지, 자서전, 사진, 유물 등을 말한다. 2차 사료는 후세 사람들이 작성한 연구나 논문 서적들로 1차 사료를 보충하는 역할을 한다.

3) 흔히 재미와 혼용되어 사용되는 즐거움은 활동에 대한 만족이나 기쁨 같은 특별한 보상을 기대하는 수동적인 정서상태를 말한다.

4) 정준환, <PBL에 나타난 재미에 관한 질적 탐구: 3S-Fun>, 경희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2, pp 83~177.

본 논문에서는 재미가 ‘맥락(context)’, ‘자기목적(autotelic)’, ‘상호작용(interaction)’이라는 기본적인 전제 속에서 13가지 요소와 14가지 조건에 의해 발생하는 것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5) 관련성은 학습과정에서 얻는 지식과 과정, 결과물이 현실세계에 적용할 수 있는 정도를 의미하며, 주인의식은 학습 주체가 ‘나’라고 인식하는 것을 말한다.

으로 제공하여 역사학습을 용이하도록 했다. 다소 해외 한인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여 교육난이도 조정이 미진할 수 있다. 향후 교육 콘텐츠를 활용하는 과정에서 도출되는 한글학교 교사들의 의견을 반영하고, 지속적인 사업 추진을 통해 경험이 쌓여야 해결되는 문제라고 생각한다.

Ⅲ. 역사교육 콘텐츠 구성과 향후 계획

올해 개발하여 보급되는 교육 콘텐츠는 총 5종으로 탐구형 1종과 체험형 4종이다. 그 구성은 <표>과 같다. 탐구형과 체험형 모두 다양하게 관계 맺기가 가능한 역사자료를 학습하도록 구성되어 있다. 학생용 교구재를 살펴보면 학습자의 참여를 유도하는 체험 및 탐구 활동물이 포함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주제에 따라 교사와 학생에게 필요한 교수학습자료들이 일괄적으로 제공된다.

탐구형은 말 그대로 역사자료 탐구에 중점을 준 활동이라면 체험형은 학습과정에서의 체험활동(제작학습)의 비중이 높은 활동이다. 탐구형은 교재 속 역사자료 탐구활동으로 안창호의 삶과 활동뿐만 아니라 미주 한인의 역사와 한국의 독립운동을 이해할 수 있도록 만들어졌다. 수업 진행을 목적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교육 주제와 내용에 대한 교사의 이해와 역량강화가 매우 중요한 유형이다.

체험형은 자료를 통해 자랑스러운 한국의 역사, 삶의 모범을 보인 독립운동가이나 계기가 되는 독립운동 사건, 일제 잔재 등 다양한 시기와 주제의 역사를 간단히 살펴볼 수 있도록 구성되었다. 별도 교사의 지도가 없더라도 학생들이 직접 교재를 보고 체험(제작) 활동을 하면서 학습하는 것이 가능하도록 만들어진 유형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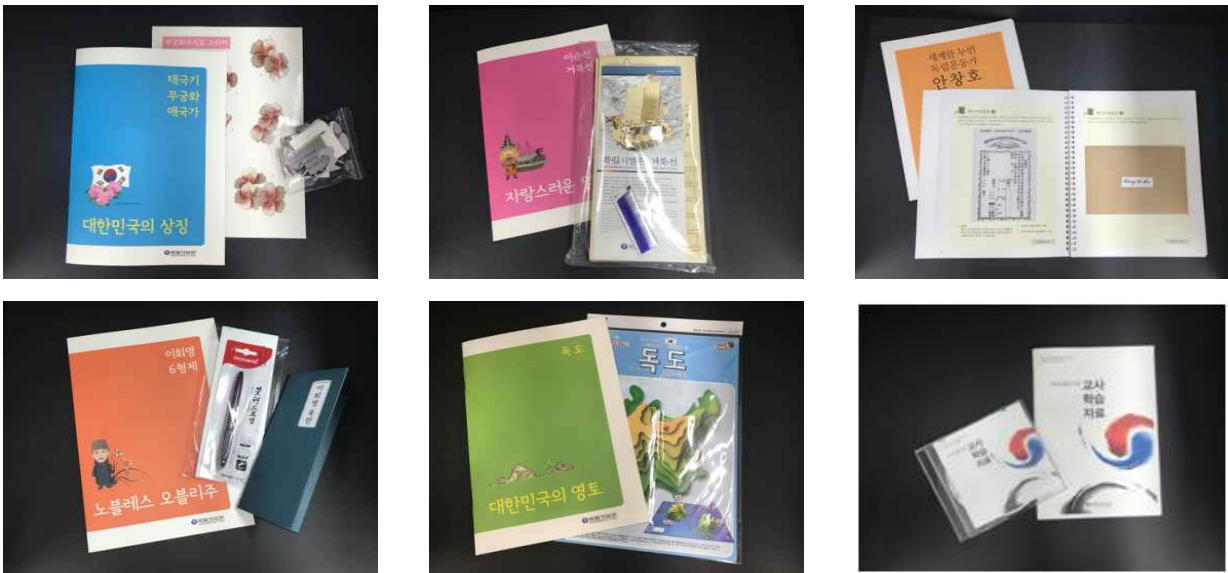
〈표〉 교육 콘텐츠 구성

유형	콘텐츠명 (소요시간)	대상	관련 역사자료	교사자료	학생용 교구재	학교당 신청가능 수량
탐구형	세계를 누빈 독립운동가 안창호 (25'~200')	초 고~ 고등 학생	안창호 자료 (여행권, 흥사단기 등)	동영상, 안창호 열전, 교안, ppt, 시나리오 등	교재 (역사자료활동 14종 포함)	학생 교재 (한, 영) 각 70개 까지
체험형 ①	대한민국의 상징-태극기 (30')	초 고	김구 서명문 태극기	동영상, 교안, 자료 ppt	교재, 김구 서명문 태극기 퍼즐	학생용 교구재 100개 까지
	대한민국의 상징-애국가 (30')	초 고~ 중학생	LA한인청년 연합승리창가대 애국가 합창곡 (1942년 음원)	동영상, 교안, 자료 ppt 음원	교재	
	대한민국의 상징-무궁화 (20')	초 저	남궁억 무궁화 수지도	동영상, 교안, 자료 ppt	교재, 무궁화 수지도 및 스티커	
체험형 ②	자랑스러운 역사-이순신과 거북선 (80'~120')	초고~ 고등 학생	현재의 유년필독 (미주에서는 국민 독본이라 불림)	동영상, 교안, 자료 ppt	교재, 거북선 만들기kit	학생용 교구재 체험형② 30개까지 체험형 ③, ④ 40개까지
체험형 ③	노블레스 오블리주 이회영 6형제 (40'~60')	초고~ 중학생	이회영의 목란 그림	동영상, 교안, 자료 ppt	교재, 목란 족자 만들기kit	
체험형 ④	대한민국의 영토, 독도 (60'~120')	중,고등학 생	독도가 우리 땅인 증거 자료	동영상, 교안, 자료 ppt	교재 및 셀로 판지 돋보기, 독도 모형 만들기kit	

※ 교육대상은 체험(제작)활동 수준에 맞추어 설정된 것으로, 제공되는 학습지도안 및 시나리오 내용을 조정하면 대상에 구매 받지 않고, 다양한 연령의 학생들에게 교육이 가능함.

※ 탐구형과 체험형 ①은 모두 신청할 수 있으며, 체험형 ②~④는 세 가지 중 하나만 신청이 가능함.

※ 교사자료는 신청 콘텐츠와 상관없이 일괄 보급할 예정이며, 동영상(교사자료)은 여건에 따라 제공하지 못하는 유형이 있을 수 있음.



〈그림〉 교사자료 및 학생용 교구재

2017년 7월 초순 현재, 체험형, 탐구형 콘텐츠의 개발과 제작은 모두 완료된 상황이며, 역사수업의 용이성을 위해 탐구형 교재만 영문으로 추가 제작하고 있다. 또한 교사자료인 교안(학습지도안)과 수업용 프리젠테이션의 부족한 점을 보완 중이다.

교육 콘텐츠 개발 못지 않게 중요한 사항이 보급되는 자료를 목적과 의도에 따라 활용할 수 있는 기관에 적절히 배분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평소 한글학교를 지원하고 있는 재외동포재단과 올해 4월 ‘재외동포 정체성을 위한 업무협약’을 추진했고, 재외동포재단은 교육 콘텐츠 사업 안내 및 수혜기관 선정, 자료 배송을 담당하기로 했다. 역사교육 콘텐츠 개발 역량을 가진 독립기념관과 한글학교 지원기관인 재외동포재단이 해외 한인들을 위해 각 기관의 강점을 활용하여 협력했다는 것은 매우 고무적인 일이라 생각한다. 업무협약에 따라 수혜기관을 선정하여 오는 9월 중순까지 콘텐츠가 보급되고, 올해 미국 한글학교 100여 곳에서 자료를 활용하여 한국 역사수업을 진행할 예정이다.

1년이라는 짧은 시간에 교육 콘텐츠 개발 및 제작, 보급과 활용이 모두 이루어져야 했기에 올해는 한글학교 현장 교원들의 의견을 반영할 기회를 마련하지 못했다. 다행히 올해 미주한국학교 총연합회와 재미한국학교협의회 학술회에서 교육 콘텐츠 사업을 설명하는 기회를 얻어 차년도 개발에 관한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차년도에는 체험형의 이회영 6형제 대신 장인환·전명운 의거(110주년 기념) 콘텐츠를, 독도 대신 일본군 ‘위안부’를 다룬 콘텐츠를 개발하려 계획하고 있다. 또한 독립기념관에서 현재 운영하고 있는 ‘나랑 닮은 독립운동가는?’ 프로그램을 재외동포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변형하여 보급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 ‘나랑 닮은 독립운동가는?’은 행동

유형 테스트(DISC)⁶⁾를 해서 나랑 닮은 독립운동가나 인물이 누구인지 알아보고, 나와 같은 유형의 독립운동가에 대해 학습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다. 행동유형 테스트를 매개로 ‘일제강점기 내가 태어났다면, 나와 행동유형이 비슷한 독립운동가처럼 활동했을 것’이라는 가정 아래 추체험⁷⁾을 할 수 있어 학습활동에 대한 흥미를 불러일으키고, 적극적으로 역사자료를 살펴볼 수 있도록 학습동기를 유발하는 데 효과적이다. 이번 학술대회에서는 ‘나랑 닮은 독립운동가는?’을 차년도에 보급할 경우, 현장에서 학습하게 될 유형별 인물 선정에 대해 교사들의 의견을 들으려 한다 또한 탐구형, 체험형 구성에 대한 의견도 수렴할 예정이다. 이러한 소통과 공유의 과정을 통해 역사교육 콘텐츠가 현장에서 활용도와 유용성이 높아져야만 교육 콘텐츠 개발 및 보급이 지속적으로 유의미하게 추진될 수 있기 때문이다.

IV. 맺음말

글쓴이의 경우 기본적인 생명과 재산,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받지 못한 채, 일제 치하에서 고통 받는 민족을 구하겠다고 자신의 삶을 희생한 독립운동가들을 알아가면서 나의 삶을 되돌아보는 기회를 가졌다. 또한 일제강점기 역사를 통해 ‘강한 자가 약한 자를 지배한다’는 양육 강식의 논리가 얼마나 인류를 피폐하게 만드는 지, 평화와 공존이 왜 중요한 가치인지 생각해보게 되었다. 이러한 토대 아래 현재 대한민국 구성원으로서 나의 역할과 삶의 방향을 설정하고, 정체성을 형성할 수 있었다. 사회적 여건과 상황은 다르지만 미국 동포들도 한인들이 미국에 정착했던 초기 과정과 먼 타국에서도 고통 받는 민족을 위해 끊임없이 독립운동을 지원했던 활동을 접하고 그 의미를 생각해봄으로써 정체성 형성에 도움을 얻을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 머리말에서 언급했던 안창호의 말처럼 ‘한국인의 정신을 잊지 않은 훌륭한 미국인’이 되는 데 있어 한국 역사의 학습이 그 기초를 닦으리라 확신한다.

그러기에 이번에 보급하게 될 교육 콘텐츠를 활용한 역사수업이 미국 한글학교 학생들에게 단순히 ‘한국 역사를 배웠다’라는 경험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미주 한인의 역사와 한국의 독립운동에 더 알고 싶다’ 참여와 관심으로 이어질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 그래야만 개개인이 지속적으로 다양한 경로를 통해 역사를 접하면서 한인으로서의 자신의 역할과 위치를 의미화하고 삶의 일부분으로 수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6) DISC는 사람이 태어나서부터 성장하고 생활하면서 여러 가지 요인에 의해 자기 나름대로 일정한 행동을 취하게 된다고 전제하고, 분류한 인간의 행동유형이다. 4가지의 행동유형은 D(Dominance, 주도형), I(Influence : 사교형), S(Steadiness : 안정형), C(Conscientiousness : 신중형)이다.

7) 다른 사람의 체험을 자신의 체험처럼 느낌.



한인교육연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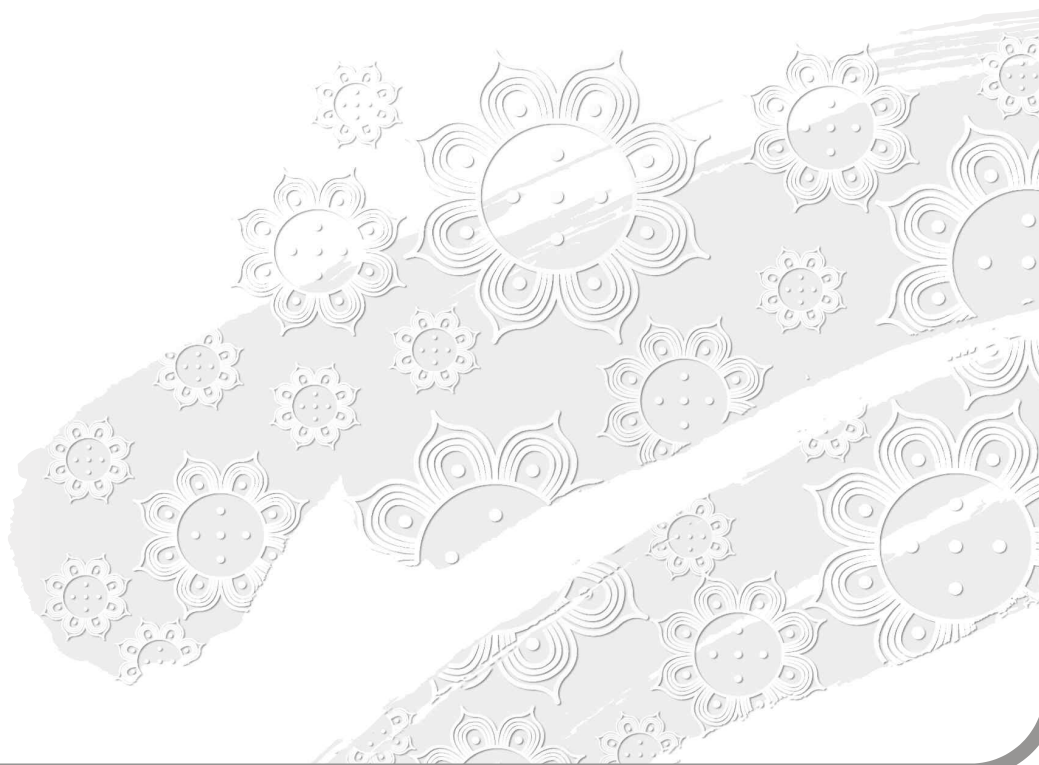
Journal of Korean-American Education

한국어 온라인 교수학습 및 교육 자료 소개

.....

정혜선 국립국어원 온라인 한국어교수학습센터 기능 및
구체적 활용 방안 소개

김혜민 국립국어원 개발 한국어 교육 자료 소개



국립국어원 온라인 한국어교수학습센터 기능 및 구체적 활용 방안 소개

정혜선

국립국어원 한국어진흥과 학예연구사

1. 머리말

국립국어원은 국내외 한국어 교원의 전문성 향상을 위한 종합 사이트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온라인 한국어교수학습센터를 2014년부터 구축하기 시작, 2015년 3월 최초 개통 이후 현재 운영 중이다(<http://kcenter.korean.go.kr/>). 한국어교수학습센터는 시공간·비용의 제약 없이, 한국어 교원의 온라인 연수를 지원하고 다양한 한국어 교육 자료를 제공하며 한국어 교원의 교류·소통의 공간을 제공하고 있다. 한국어교수학습센터에 탑재 중인 자료는 현재까지 동영상 194개, 전자책 84개, 음성 자료 251개, 책자형 문서 자료 146개에 이르며 이 모든 자료들은 모바일에서도 이용 가능하게 하여 접근성을 높였다. 이 글에서는 한국어교수학습센터의 전반적인 소개와 교원들이 가장 많이 활용하는 문법·표현 검색기 시스템을 어떻게 활용해야 하는지 기 개발된 온라인 강의 내용을 중심으로 제시하고자 한다(이 글은 한국어교수학습센터 개발 관련 문서와 문법·표현 검색 바로 알기 온라인 강의(중앙대 양명희 교수, 서울대 안경화 교수가 집필)를 중심으로 작성되었다).

2. 온라인 한국어교수학습센터 소개

한국어교수학습센터는 크게 온라인 연수, 자료나눔터, 정보나눔터, 나눔방, 누리집 소개라는 다섯 가지 기능으로 이루어져 있다. 이를 표로 보이면 다음과 같다.

〈한국어교수학습센터 기능 안내〉

온라인연수	자료나눔터	정보나눔터	나눔방	누리집소개
한국어발음교수법	교수 참고 자료	한국어 관련 소식	공개나눔방	센터 소개
한국어문법교수법	한국어교재	한국어 교원 연수 일정	연수나눔방	국립국어원 소개
한국문화활용교수법	멀티미디어 교육자료	질의응답		이용약관
한국어어휘검색 바로알기	기초연구자료	자료공유		저작권정책
한국어문법표현검색바로알기	교수내용검색			개인정보처리방침
한국어읽기교수법				도로명주소안내
				누리집안내지도

온라인 연수는 총 6개 강좌가 개설되어 있는데 크게 한국어 교수법 강의(발음, 문법, 읽기), 한국 문화 활용 교수법, 바로 알기 과정(어휘 검색, 문법·표현 검색)으로 나뉜다. 국립국어원은 한국어교원 재교육 프로그램을 개발, 매년 연수회를 개최하고 있는데(국내 대학의 한국어 교원을 대상으로 하는 공동 연수회, 사회통합프로그램과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한국어 교원을 대상으로 하는 다문화가족 관련 연수회) 오프라인 연수에서 부족한 부분은 사전 온라인 연수로 보완하고 있다. 어떤 교수 환경에 처해 있느냐에 따라 교원들의 필요와 요구가 다르기 때문에, 온라인 강의 역시 교원의 특성별로 다르게 개발될 필요가 있다. 국립국어원은 향후 국내뿐 아니라 국외 한국어교원의 교수 환경 및 요구를 철저히 분석하여 온라인 콘텐츠를 보강, 국외 교원에게 제공할 계획이다.

자료나눔터는 한국어교수학습센터를 찾는 교원들이 가장 많이 이용하는 기능이다. 한국어교육에 대한 기초 연구 자료와 교수 참고 자료, 교육 자료(멀티미디어, 책자)를 이용할 수 있고 교수 내용도 검색할 수 있다. 한국어 교육 자료는 다문화 배경 자녀, 이주민, 국외 한국어 학습자를 위한 교육 자료로 나뉘며 총 15권의 책자형 교재를 전자책 형태로 볼 수 있다. 국립국어원은 2017년 “결혼이민자와 함께하는 한국어” 1~4권을 전면 개정 중이고, 재외동포 아동을 위한 교육 자료를 개발 중이다. 또한 2018년 다문화가정 자녀를 위한 한국어(KSL) 교육 자료도 개발될 예정이다. 이들 교재 역시 개발이 완료되면 한국어교수학습센터에서 정보 및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교수 내용 검색은 교원들이 현장에서 한국어 교수 시 직접 이용할 수 있는 유용한 자료이다. 한국어 문법·표현 내용 검색은 초급 문법·표현 항목 92개, 중급 문법·표현 항목 113개의 내용을 검색할 수 있다. 어휘 내용 검색은 초급용 어휘 1,835개, 중급용 어휘 3,855개, 고급용 어휘

2,945개로 총 10,635개의 어휘를 검색할 수 있다. 한국어 학습자 말뭉치 검색은 국립국어원에서 2015년부터 수집 및 가공, 구축한 한국어 학습자 말뭉치 자료를 대상으로 어휘, 문법 항목을 검색할 수 있다. 국내외 한국어 학습자를 대상으로 대량 수집하는 한국어 학습자 말뭉치 가공 자료는 한국어 교육 연구자·교원들이 기초 연구, 교수 자료를 개발하는 데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다. 교수 자료 검색은 국어원에서 개발한 교재의 내용을 대상으로 문법 항목별 수업 자료를 구성하는데 필요한 정보를 담고 있다. 해당 문법 항목을 검색창에 넣고 검색하면 관련 교재가 분절된 형태로 제시되어 교수 시 활용할 수 있다.

정보나눔터는 한국어 교육과 관련된 다양하고 유용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기능이다. 한국어 교육 관련 주요 기관의 소식과 기사, 채용 정보 등을 알려주며 국립국어원에서 운영 중인 연수회 정보를 제공한다. 또한 한국어 교육과 관련해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자유롭게 질문할 수도 있으며 교원들이 자료를 공유하는 기능도 마련되어 있다.

나눔방은 한국어 교원 교류의 장으로 한국어교수학습센터에 가입한 사람들이 함께 모여 관심사와 정보를 공유하고 친목을 나누기 위해 마련된 기능이다. 공개 나눔방은 한국어교수학습센터 회원 누구나 자유롭게 개설하고 회원들과 교류할 수 있다. 공개 나눔방에는 한국어교원이 궁금해하는 질문이 올라가 있다. ‘한국어 문법 수업에서 동영상, 사진 자료들을 수업 내용과 어떻게 연계하여 교육할 수 있을까요?’, ‘한국어 쓰기 교육할 때 오류를 수정할 수 있는 방법이 궁금합니다’, ‘한국어 말하기 교수법에서 유창성을 기르기 위한 방법은 무엇이 있을까요?’ 등의 한국어 교원의 실제 고민과 이에 대한 한국어교육 전문가의 답변을 확인할 수 있다. 연수 나눔방은 오프라인 연수회에 참여한 교원들의 모임으로 관리자가 해당 나눔방을 개설하여 참가한 분들을 회원으로 등록한다.

3. 문법·표현 검색기 활용

이 장은 한국어교수학습센터의 여러 기능 중 문법·표현 검색기의 구체적 활용 방안을 기 개발된 온라인 강좌의 내용을 바탕으로 보이고자 한다. 우선 문법·표현 검색 방법을 간단히 소개한 뒤 실제 초급 문법 수업에서 검색 결과를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 제시한다.

1) 문법·표현 검색기 소개

먼저 검색 화면에 찾고자 하는 문법 항목을 넣는다. 가령 ‘-을까’를 검색창에 넣는다면 아래와 같이 검색 결과로 표제어, 예문, 형태 정보, 유사 문법의 정보가 나온다.

문법·표현 내용 검색

홈 > 자료나눔터 > 검색기 > 문법·표현 내용 검색

처음으로 돌아가기 | 통합 검색 | 항목비교표 초급 | 항목비교표 중급 | 중국인 학습자 교수를 위한 도움말 | 일러두기

전체 ☒ 을까

인기검색어 초급 | 중급 | 조사 | 연결어미 | 종결어미

통합 검색

표제어(5)

의미(0)

예문(33)

형태 정보(5)

유사 문법(3)

'을까'(으)로 총 46건 검색

표제어

+ 더 보기

-을까1[종결어미] 초급 토픽 초급 국제 표준모형 초급

-상대에게 제안을 하는 의문형의 종결어미.

-을까2[종결어미] 초급 토픽 초급 국제 표준모형 초급

-추측을 나타내며 질문하는 의문형의 종결어미.

-을까 보다1[표현] 초급 토픽 중급 국제 표준모형 초급

-어떤 행위에 대한 불확실한 의지를 나타내는 표현.

위의 정보 중 표제어가 가장 중요하다. 표제어어의 1), 2)는 뜻풀이 번호인데 '-을까'가 종결어미일 때 주요한 뜻을 두 가지 갖는다는 의미이다. 표제어에 '초급'이라는 말은 '-을까'가 한국어 능력시험인 토픽과 국어원에서 개발한 국제 통용 한국어 교육 표준 모형에서도 초급이라는 것을 의미한다. 이제 표제어 '-을까' 1)을 클릭하여 정보를 더 알아보자.

전체 ☒ 을까

인기검색어 초급 | 중급 | 조사 | 연결어미 | 종결어미

표제어

전체

-을까1[종결어미] 초급 토픽 초급 국제 표준모형 초급

의미와 용법

검기

-상대에게 제안을 하는 의문형의 종결어미.

-(동사에 붙어) 듣는 사람에게 앞으로 할 일을 제안하며 의견이나 생각을 물어볼 때 사용한다.

예문

펼치기

도입

펼치기

형태 정보

펼치기

문장 구성 정보

펼치기

제약 정보

펼치기

확장

펼치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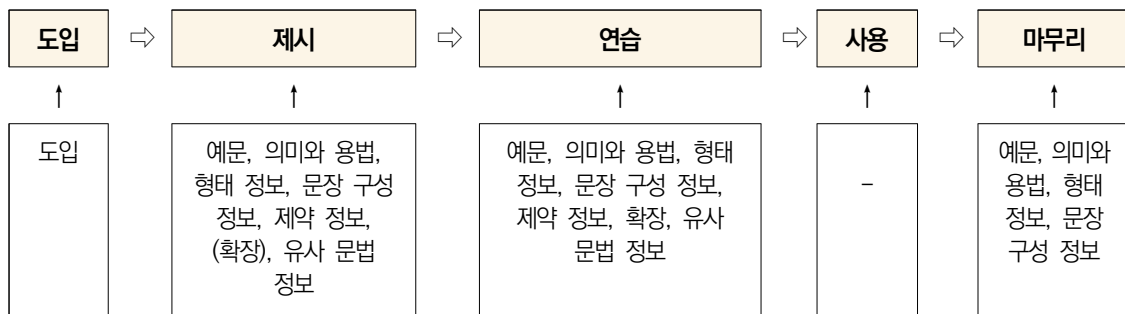
유사 문법

펼치기

‘의미와 용법’은 말 그대로 문법 항목의 의미와 용법을 설명한 것으로 가장 핵심적인 표제어 정보이다. ‘예문’은 해당 문법 항목의 예문으로 한국어 교재의 예문을 만들거나 연습 문제를 만들 때 이용할 수 있다. 대화 예문과 문장 예문으로 나뉘어 제시된다. ‘도입’은 교사가 문법 항목을 도입할 때 참고할 수 있는 내용이 담겨 있다. 한국어 말하기나 듣기가 익숙하지 않은 학습자를 위해 대화 상황을 그림이나 사진으로 함께 제시하면 더 좋다. ‘형태 정보’는 동사, 형용사에 따라, 또는 어간의 받침 유무에 따라 형태가 달라지는 등의 형태 정보를 보여준다. ‘문장 구성 정보’는 문법 항목과 같이 사용되는 어휘를 제시하는 등의 문장 틀을 보여주며 ‘제약 정보’는 문법 항목이 가지는, 주로 오류가 일어나기 쉬운 제약 현상을 설명한다. ‘확장’은 해당 급에서는 가르치지 않지만 더 높은 급으로 올라가면 알아야 하는 문법 정보를 모아놓은 것이다. 가령 해당 문법 항목이 쓰이는 대화에서 화, 청자 사이의 관계를 설명하는 등의 정보를 준다. ‘유사 문법’은 의미가 비슷해서 학습자들이 자주 혼동하는 유사 문법 항목을 쉽게 비교하여 정리한 것이다. 그런데 유사 문법을 비교하여 가르칠 때, 학습자들이 비교되는 유사 문법 항목을 배우지 않았다면 이 방법은 가르치지 않는 것이 좋다.

2) 문법·표현 검색기 활용 방안

이제 앞서 제시한 문법·표현 검색기를 활용하여 구체적으로 어떻게 교수 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는지 보자. 일반적인 한국어 문법 수업은 도입→제시→연습→사용(활용)→마무리 단계로 구성되는데 아래에서 보듯이 각 단계에서 문법·표현 내용의 검색 결과를 사용할 수 있다.(사용 단계에서는 기능과 연계된 둘 이상의 서로 다른 목표 문법이 포함되므로 문법·표현 내용의 검색 결과가 직접적으로 적용되기 어렵다.)



구체적으로 초급 문법 수업에서 문법·표현 검색을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 살펴보자. 먼저 활용 범위를 정해야 하는데, 이때 문법·표현의 용법, 선수 학습된 어휘나 문법·표현, 관련 기능과의 연계 등을 고려해야 한다. 먼저 초급 한국어 문법 수업에서는 한 번에 용법 하나를 다루는 경우

가 일반적이다. ‘-겠-’을 예로 들면 의지와 추측이라는 두 가지 용법이 검색되는데 이 중에서 해당 교육 과정이나 교재의 단원에서 ‘-겠-’이 어떻게 쓰였는지 살핀 후에 한 가지 용법의 검색 결과를 수업 시간에 다룬다. 문법 수업에서는 선수 학습되거나 그 단원에서 학습된 어휘나 문법·표현 등을 최대한 활용한다. 특히 초급 학습자에게 학습 부담을 주지 않도록, 선수 학습되지 않았거나 교육과정에서 뒤에 나오는 어휘나 문법·표현 등은 목표 문법을 다룰 때 함께 사용하지 않는다. 추측의 ‘-겠-’의 경우 검색 결과의 예문을 활용하되, 학습자의 언어 숙달도를 크게 넘는 문법인 ‘-는 것’이 쓰인 ‘그 배우가 나오는 것을 보면 영화가 재미있겠다’ 등의 예문은 사용하지 말아야 한다. 학습자의 숙달도는 검색기의 등급 정보를 활용하면 알 수 있다. 의사소통식 접근법으로 진행되는 대부분의 한국어 수업에서는 문법이 기능과 연계된다. 그러므로 약식 교수 요목인 교재 구성표의 기능과 해당 단원의 활동 등을 검토하여 기능과 연계되는 목표 문법의 용법을 확인해야 한다. 예를 들어 ‘좋겠어요, 속상하겠어요, 재미있었겠어요’와 같이 ‘공감을 표현하기’ 기능과 연계되어 문법이 제시된 경우라면 해당 용법으로 형용사와 결합하는 ‘-겠-’을 집중적으로 활용해야 한다.

활용 범위를 정한 뒤에는 구체적으로 위의 도입 → 제시 → 연습 → 사용 → 마무리의 단계에서 어떻게 문법·표현 검색기를 활용하는지 보자.

① 도입

한국어 문법 수업에서 도입은 목표 문법을 노출하는 단계로 학습자의 배경 지식이 활성화하고 학습자로 하여금 문법에 흥미를 갖게 한다. 도입할 때는 선수 학습 내용이나 실물 자료를 등을 활용하게 되며 전형적인 용법으로 쓰인 예문을 노출시킨다. 다음은 실물 자료와 선수 학습된 문법인 ‘-을 것 같다’를 활용한 도입의 예이다. 추측의 ‘-겠-’은 이미 학습된 ‘-을 것 같다’나 ‘-은 것 같다’와 유사한 의미를 갖고 있으므로 ‘-을 것 같아요’을 ‘-겠-’으로 바꾸는 식으로 간단하게 도입을 할 수 있다. 이미 선수 학습된 내용이므로 학습자들은 ‘-겠-’의 의미를 쉽게 추측할 수 있다.

〈검색 결과〉

도입 접기

(1)
교사: (어려운 한국어 책을 보여 주며) 이 책이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학생: 어려워요.
교사: 이 책은 어려워요. 이 책은 **어렵겠어요**.

(2)
교사: 수지 씨는 한국에서 5년 동안 살았어요. 한국어를 잘할까요? 못할까요?
학생: 한국어를 잘해요.
교사: 네, 수지 씨가 한국어를 잘 할 것 같아요. 수지 씨가 한국어를 **잘하겠어요**.

▪ (1), (2)에서와 같이 학생들이 쉽게 추측할 수 있도록 상황을 교사가 직접 보여 주거나 그림이나 사진 등의 자료를 제시하는 것이 좋다.

② 제시

제시 단계에서는 의미 용법 정보를 우선 활용할 수 있다. ‘-겠-’은 아래에서 보듯이 핵심적인 내용이 ‘추측’이다. 그런데 ‘-겠-’의 의미도 모르는 초급 학습자에게 검색된 정보 그대로 ‘추측’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여 ‘-겠-’을 설명할 수는 없으므로 ‘추측’을 쉬운 말로 풀어서 ‘-을 것 같아요. 생각해요’ 식으로 의미를 전달할 수 있다.

〈검색 결과〉

의미와 용법 접기

-상황에 대한 **추측**을 나타내는 선어말어미.
-(동사나 형용사에 붙어) 다른 사람의 일이나 상황에 대해 추측함을 나타낸다. 자신의 의견이나 생각을 근거로 추측할 때 사용한다.

초급 수업의 제시 단계에서 예문 정보를 활용할 때는 목표 문법의 전형적인 쓰임을 보여 줄 수 있어야 한다.



〈검색 결과〉

예문

접기 ▲

대화 예문	가: 이번 시험에서 현우 씨가 1등을 했어요. 나: 와, 현우 씨가 장학금을 받았어요. 가: 미도리 씨, 오늘은 날씨가 흐려요. 나: 네, 곧 비가 오겠어요. 가: 어제 게임을 하다가 늦게 잤어요. 나: 그래요? 많이 피곤하겠어요. 가: 다음 주에 수지 씨 생일파티에 같이 갈까요? 나: 네, 좋아요. 재미있겠어요. 가: 남자 친구가 어제 꽃을 주었어요. 나: 기분이 좋았겠어요.
문장 예문	· 김밥이 너무 맛있어서 동생이 다 먹겠다. · 수지 씨가 시험이 끝나서 기분이 좋겠어요. · 왕밍 씨가 1등을 했으니 선물을 받았어요. · 주말이니 미도리 씨가 친구를 만나겠어요. · 현우 씨가 일이 많아서 바쁘겠다. · 부모님이 키가 크시니, 앤디 씨도 키가 크겠어요. · 내일이 시험이니 학생들이 열심히 공부하겠어요. · 도서관은 여름에도 시원하겠어요. · 그 배우가 나오는 것을 보면 영화가 재미있겠다. · 줄리아 씨가 음식을 많이 준비해서 힘들었겠습니다.

▪ ‘-겠-2’는 상황이나 행위에 대해 자신이 생각하는 바에 따른 추측을 나타내므로, 1인칭 주어를 제외한 모든 주어가 사용될 수 있다. 이때 ‘-겠-’은 과거, 현재, 미래 사실에 대한 추측의 뜻을 지닌다.
(예)

어제 백화점에 사람이 많이 **왔겠어요**. (o) : 과거에 대한 추측
지금 백화점에 사람이 많이 **있겠어요**. (o) : 현재에 대한 추측
내일 백화점에 사람이 많이 **오겠어요**. (o) : 미래에 대한 추측

위의 ‘-겠-’의 예문 중에서 수업에서 사용할 예문을 선별하고 유사한 예문을 만들어서 수업에서 활용할 수 있다. ‘공감 표현하기’ 기능과 연계된 ‘-겠-’을 제시하는 경우라면 위의 예문에서 ‘가: 남자 친구가 어제 꽃을 주었어요. 나: 기분이 좋았겠어요.’ 등이 수업에서 제시될 수 있다.

제시 단계에서 검색 결과의 형태 정보를 활용할 수도 있다. ‘-겠-’은 받침 유무와 관련 없이 하나의 형태로만 쓰이므로 형태 제시 단계에서는 받침이 있거나 없는 동사, 형용사들을 골고루 기본형으로 준 다음 ‘-겠-’이 쓰인 활용형을 만들도록 한다.

〈검색 결과〉

형태 정보				접기 ▲
① 동사나 형용사 어간 끝음절 모음의 받침 유무에 관계없이 ‘-겠-’을 쓴다.				
예)	읽- + -겠- + -다 → 읽겠다	좋- + -겠- + -다 → 좋겠다		
	작- + -겠- + -다 → 작겠다	오- + -겠- + -다 → 오겠다		
	사- + -겠- + -다 → 사겠다	바쁘- + -겠- + -다 → 바쁘겠다		
①	받침 ○	+ -겠-	읽겠다, 좋겠다, 작겠다	
	받침 ×	+ -겠-	오겠다, 사겠다, 바쁘겠다	

학습자들이 문법적인 오류를 만들어 내지 않도록 제시 단계에서는 제약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겠-’의 경우는 화자 자신에 대한 추측에 대해 1인칭 제약이 있음을 예를 들어 언급할 수 있다.

〈검색 결과〉

제약 정보		접기 ▲
① 자신의 의견을 근거로 다른 사람이나 상황에 대해 추측함을 나타내기 때문에, 주어가 1인칭인 경우 자신에 대한 추측의 뜻으로 사용되지 않는다.		
예) 저는 요즘 일이 많아서 힘들겠어요. (x) 저는 1등을 해서 기분이 좋겠어요. (x) 저는 어제 친구를 만나서 반가웠겠어요. (x) 저는 주말에 친구랑 같이 여행을 가서 재미있겠어요. (x)		
▪ 상황에 대한 추측의 의미를 나타낼 때는 1인칭 주어를 쓸 수 있다.		
예) 이렇게 하다가는 (제가) 수업에 늦겠어요. 저 사람처럼 운동하면 (나도) 날씬해지겠어요.		

제시 단계에서 검색 결과의 유사문법 정보도 활용할 수 있다. 유사 문법과 목표 문법의 비교는 유사 문법이 선수 학습되었을 경우나 학습자가 질문할 경우에 간략하게 다룬다. 추측의 ‘-겠-’은 흔히 ‘-을 것 같다’ 이후에 배우므로 학습자들이 두 문법의 차이를 묻는 경우가 있는데 아래의 검색 결과를 활용하여 설명한다.



〈검색 결과〉

유사 문법 접기

① '-겠-2)', '-을 것이다'

-겠-2)	-을 것이다
어떤 일이나 상황에 대한 추측을 나타낸다.	
추측의 근거가 말하는 이의 주관적 생각이나 판단에 있을 때 사용한다. 예) 제 생각에는 이게 좋겠어요. (o) 전에 먹어 봤는데 음식이 맛있겠어요. (x) 채소를 끓는 물에 넣으면 바로 익겠어요. (x)	추측의 근거가 말하는 이의 경험을 포함하여 다른 사람들의 객관적 생각이나 판단 혹은 일반적 사실에 있을 때 사용한다. 예) 제 생각에는 이게 좋을 거예요. (?) 전에 먹어 봤는데 음식이 맛있을 거예요. (o) 채소를 끓는 물에 넣으면 바로 익을 거예요. (o)

· '결혼해서 좋겠어요'는 객관적 근거를 통한 추측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주관적인 추측을 말하는 것인 데 반해, '결혼해서 좋을 거예요'는 말하는 사람이 어느 정도의 근거를 가지고 말하는 것이다.

③ 연습

연습 단계는 제시 단계에서 학습, 이해한 목표 문법을 학습자가 내재화하고 자동화하여 사용하도록 하는 단계이다. 목표 문법의 검색 결과에서 예문, 의미와 용법, 형태 정보, 문장 구성 정보, 제약 정보, 확장, 유사 문법 정보 등이 연습 문항 구성의 기초적인 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 흔히 연습을 구성할 때는 형태 정보를 고려하여 이형태의 환경이 골고루 들어가서 활용 연습이 충분히 되도록 한다. 그런데 '-겠-'의 경우는 이형태가 없으므로 추측의 의미가 분명하게 드러나는 전형적인 맥락을 구성하여 예문을 만들면 된다. 한편 '-겠-'이 몇몇 특정 문장형으로만 쓰이는 것이 아니므로 연계된 목표 기능을 고려하여 문장이나 대화를 만들도록 연습을 구성할 수 있다.

학습자들의 연습 결과를 확인할 때에는 제시 단계에서 소개한 제약 정보를 고려하여 학습자들이 '제가 요즘 시험 공부를 많이 해서 피곤했겠어요.'와 같은 비문법적인 문장을 만들지 않도록 하거나 비문을 만들었을 경우는 제약 정보를 다시 한번 확인하는 식으로 피드백을 줄 수 있다.

④ 마무리

마무리는 예문을 2-3개 만들면서 목표 문법의 수업을 정리하는 단계이다. 정리 예문은 이형태들이 있을 경우 이형태가 유형별로 하나씩 나오거나 전형적인 대화를 말해 보는 식으로 진행된다. 검색된 예문, 의미와 용법, 형태 정보, 문장 구성 정보 등을 고려하여 학습자들이 가장 전형적인 대화를 만들며 목표 문법의 의미 용법과 형태를 다시 한번 점검하도록 한다.

4. 마무리

이 글은 국립국어원에서 개발한 온라인 한국어교수학습센터의 주요 기능을 설명하고 특히 문법·표현 검색 결과를 한국어 교수 시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 구체적 방안을 제시하였다. 국립국어원은 한국어교수학습센터가 국내외 한국어 교원과 예비 교원에게 교수, 학습 자료 및 연수 환경을 제공하고, 교원 간 정보 교류의 장소를 제공한다는 본래의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자 한다.



국립국어원 개발 한국어 교육 자료 소개

- 한류 활용 한국어 교육 방송 프로그램 〈두근두근 한국어〉, 〈쌍쌍 한국어〉를 중심으로 -

김혜민

국립국어원 연구원

1. 머리말

국립국어원은 국내외 한국어 학습자와 교사를 지원하기 위해 대상별·목적별로 다양한 교육 자료를 개발하여 보급하고 있다. 그중 〈두근두근 한국어〉와 〈쌍쌍 한국어〉는 국립국어원 ‘한류 활용 한국어 교육 방송 프로그램 제작 및 국외 송출’ 사업을 통해 제작된 교육 자료로, 해외에서 인기를 끌고 있는 한류 콘텐츠를 활용하여 제작한 한국어 강좌 프로그램이다. 〈두근두근 한국어〉와 〈쌍쌍 한국어〉는 쉽고 흥미로운 한류 콘텐츠를 통해 해외 한국어 학습자들의 학습 동기를 고취하고, 단계별, 체계적인 교육과정을 반영하여 한국어 학습자의 학습 욕구를 유지시키고자 제작되었다. 각 프로그램의 개요는 다음과 같다.

프로그램명	방영 연도	편수	송출 기관
〈두근두근 한국어 1〉	2012~2013	12편	KBS World
〈두근두근 한국어 2〉	2013~2014	40편	KBS World
〈두근두근 한국어 3〉	2014~2015	20편	KBS World
〈두근두근 한국어 4〉	2015~2016	20편	KBS World
〈쌍쌍 한국어〉	2017	25편	YTN World

* 2017년 8월 현재 ‘한류 활용 한국어 교육 방송 프로그램 제작 및 국외 송출’ 사업(연구 책임자: 장소원 서울대 교수)을 통해 〈쌍쌍 한국어 2〉가 제작되고 있음.

〈두근두근 한국어〉와 〈씹씹 한국어〉는 다음과 같은 점에서 재외동포 대상 한국어 교육에 요긴하게 활용할 만하다. 첫째, 재외동포 한국어 학습자들이 흥미를 가질 만한 콘텐츠로 제작되어 한국어 학습 동기를 고취할 수 있다. 둘째, 상황에 따른 자연스럽고 실제적인 표현을 다루므로 실생활에서 사용되는 한국어를 보여주고, 한국어 표현 속에 담긴 한국어 문법 어휘 등을 쉽게 학습하도록 해 준다. 셋째, 정확한 발음과 현실 발음 등을 함께 들을 수 있어 발음 교육에 활용할 수 있다. 넷째, 한 회당 재생 시간이 길지 않고 인터넷으로 쉽게 시청할 수 있어 한국학교 수업이나 가정 학습 시 활용할 수 있다. 다섯째, 교사용 자료집과 단원별 연습지가 제작되어 있어 교사의 학습자 지도가 용이하다. 이에 이 글에서는 재외동포 한국어 학습자와 교사를 대상으로 〈두근두근 한국어〉와 〈씹씹 한국어〉의 특성과 내용을 소개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학습자와 교사가 한국어 교수 학습에 실제적인 도움을 얻게 되기를 기대한다. 이 글은 2012년부터 현재까지 진행되어 온 ‘한류 활용 한국어 교육 방송 프로그램 제작 및 국외 송출’ 사업 보고서와 사업 관련 문서를 상당 부분 참고하였음을 미리 밝혀 둔다.

2. 〈두근두근 한국어〉와 〈씹씹 한국어〉의 특성

앞서 머리말에서 〈두근두근 한국어〉와 〈씹씹 한국어〉의 활용 가능성을 제시하며 프로그램의 특성을 간략히 밝힌 바 있다. 여기에서는 〈두근두근 한국어〉와 〈씹씹 한국어〉를 교수 학습 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알아야 할 기본적인 특성을 보다 자세하게 소개한다. 〈두근두근 한국어〉와 〈씹씹 한국어〉는 세부적인 구성이나 내용 면에서 구별되지만, 기본적으로 다음과 같은 공통적 특성을 가지고 있다.

첫째, 각 프로그램은 K-POP, 드라마, 예능 프로그램, 영화 등 다양한 종류의 한류 콘텐츠를 다루고 있다. 각 프로그램에서 다루고 있는 콘텐츠의 종류와 예시는 다음과 같다.



프로그램명	콘텐츠 종류	콘텐츠 예시
〈두근두근 한국어 1〉	드라마, K-POP	드라마 '제빵왕 김탁구' K-POP 'Good-bye Baby' (미쓰에이) 등
〈두근두근 한국어 2〉	드라마, K-POP, 예능 프로그램, UCC(해외 한국어 학습자 제작)	드라마 '굿 닥터' K-POP '이름이 뭐예요?' (포미닛) 예능 프로그램 '개그 콘서트' 등
〈두근두근 한국어 3〉	드라마	드라마 '드림 하이'
〈두근두근 한국어 4〉	드라마	드라마 '성균관 스캔들', '연애의 발견' 등
〈쌍쌍 한국어〉	드라마, K-POP, 예능 프로그램, 영화, 뉴스	드라마 '연애 세포' K-POP '숨' (비스트) 예능 프로그램 '맛있는 녀석들' 영화 '좋아해줘' 'YTN 뉴스' 등

각 콘텐츠는 다양한 상황과 이에 따른 표현을 담고 있으며, 대체로 쉽고 재미있는 내용을 다루고 있어 학습자의 흥미를 유발할 수 있다. 프로그램을 1회부터 순차적으로 시청하지 않고도 원하는 단원을 선택하여 학습이 가능하므로, 교사나 학습자는 교수 학습하고자 하는 표현이 사용되었거나 흥미로워 보이는 콘텐츠를 자유롭게 선택하여 활용할 수 있다.

둘째, 교육을 위해 가공되지 않은 자연스러운 대화나 텍스트를 통해 실제로 통용되는 표현을 학습할 수 있도록 하였다. 재외동포 학습자는 이를 통해 한국어 어휘, 문법 등을 보다 수월하게 배울 수 있다. 〈두근두근 한국어〉의 경우 드라마의 한 장면이나 K-POP 일부분 등을 감상하게 한 후, 감상한 내용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제시하면서 각 상황에 따른 표현, 장면 속에서 사용된 어휘, 문법 등을 정리하였다. 〈쌍쌍 한국어〉의 경우 각 회차의 목표 표현을 잘 드러내는 장면을 회차당 3-4종류 정도 보이면서 중요한 표현들을 반복적으로 제시하고, 아나운서와 외국인 학습자의 대화를 통해 제시된 표현의 활용 예시를 보여 주었다. 이처럼 〈두근두근 한국어〉와 〈쌍쌍 한국어〉는 자연스러운 언어 사용의 맥락에서 표현을 제시하고, 이 표현에 담긴 학습 문형을 흥미롭게 제시하고 있어 재외동포 학습자들의 필요를 채워줄 수 있다.

셋째, 발음 교육 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두근두근 한국어〉와 〈쌍쌍 한국어〉의 진행자는 아나운서이므로 학습자에게 정확한 발음을 제시할 수 있다. 〈두근두근 한국어〉의 경우 남자 아나운서와 여자 아나운서가 함께 진행하여 두 성별의 목소리를 모두 들어볼 수 있으며, 〈쌍쌍 한국어〉의 경우 아나운서와 외국인 한국어 학습자가 함께 진행하여 둘의 발음을 비교해 볼 수 있다. 또한 프로그램에서 활용되는 다양한 콘텐츠를 통해 학습자가 한국어 현실 발음을 접하기도 용이하다.

넷째, 한 회당 재생 시간이 길지 않으며 인터넷으로 쉽게 시청할 수 있어 접근이 용이하다. 프

로그인 내에서 다루어지는 콘텐츠는 학습 목표에 맞도록 간명하고 뚜렷하게 편집되어 있다. 한 편당 재생 시간이 10분을 넘지 않으므로 수업 시간에 시청하거나 학습자가 스스로 시청하기에 부담이 없다. 또한 두 프로그램 모두 국립국어원 온라인 한국어교수학습센터 (<http://kcenter.korean.go.kr/>)나 유튜브에서 프로그램명을 검색하여 쉽게 시청할 수 있으므로 학교나 가정 등에서 활용하기 좋다.

자료나눔터

교수 참고 자료

- 교육 과정
- 지침서
- 연수 자료

한국어 교재

- 국립국어원 개발 교재 소개
- 초급
- 중급
- 고급

멀티미디어 교육자료

- 영상 자료
- 음성 자료

기초 연구 자료

전체 검색 홈 > 자료나눔터 > 검색기 > 전체 검색

씽씽 한국어 Q

나눔터 자료 검색
문법·표현 내용 검색
어휘 내용 검색
교수 자료 검색

자료나눔터 (17)



씽씽 한국어 - 12회 우리 약속했잖아요

기능: 통합 영역: 유형: 동영상 학습자 단계:

〈한국어교수학습센터 검색 예시〉

YouTube KR | 사이트 정보 보기 |

홈

인기

최근 본 동영상

YouTube Red 가입

인기 YOUTUBE

음악

필터 ▼ 검색결과 약 57,700개



두근두근 한국어 1회

hee min

두근두근 한국어 1회 - 드림하이 (Dream High) 11:07

두근두근 한국어 2회 - 제빵왕 김탁구 (Bread, Love and Dreams) 9:56

모든 재생목록 보기(동영상 12개)

YouTube KR |

홈

인기

최근 본 동영상

YouTube Red 가입

인기 YOUTUBE

음악

필터 ▼ 검색결과 약 12,000개



씽씽 한국어

동영상 99개

영성한국어 유튜브 채널입니다.

채널 구독 202

〈유튜브 검색 예시: 〈두근두근 한국어〉(‘KBS World TV’ 계정), 〈씽씽 한국어〉(‘씽씽 한국어’ 계정)〉

2017 한민교육연구 NAKS 통관 제32호

113

다섯째, 교사가 프로그램을 한국어 수업에 활용할 수 있도록 교사용 자료집이 한국어로 제작되어 있다. 각 자료집은 콘텐츠에 대한 소개글, 목표 문법의 의미와 활용 정보, 활용 가이드 및 교수 시 유의 사항, 콘텐츠 대본 및 가사와 함께 학습자를 위한 단원별 연습지를 포함하고 있다. <두근두근 한국어 2~4>, <씹씹 한국어>의 교사용 자료집은 온라인 한국어교수학습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pdf 형태로 내려 받아 인쇄할 수도 있다. 교사용 자료집의 내용은 다음 절에서 보다 자세히 살펴 보기로 한다.

The screenshot shows the homepage of the '국립국어원 한국어교수학습센터' (National Korean Language Acquisition Center). The navigation bar includes links for '온라인연수' (Online Course), '자료나눔터' (Resource Sharing), '정보나눔터' (Information Sharing), '나눔방' (Community), and '누리집 소개' (Introduction). The '자료나눔터' (Resource Sharing) section is active, displaying a search bar with the text '두근두근 한국어 교사용 자료집'. Below the search bar are filters for '나눔터 자료 검색' (Search in Resource Sharing), '문법·표현 내용 검색' (Search by Grammar/Expression), '어휘 내용 검색' (Search by Vocabulary), and '교수 자료 검색' (Search by Teacher Materials). A section titled '자료나눔터(3)' shows a preview of the '두근두근 한국어 4 교사용 자료집' (Two Hearts Korean 4 Teacher Materials) with details: '기능: 통합' (Function: Integrated), '영역: ' (Area:), '유형: 문서' (Type: Document), and '학습자 단계: ' (Learner Level:).

〈한국어교수학습센터 교사용 자료집 검색 예시〉

This screenshot shows a page from the '두근두근 한국어 2' teacher materials. The page is titled '22 다 잘됐으면 좋겠어' (If everything went well, I would like it). It includes a '학습 목표' (Learning Objective) section stating that students should be able to express their own opinions and the reasons for their opinions. The '목표 표현' (Target Expression) section lists the grammar point 'A/V-았/었으면 좋겠다' (A/V-If I had done that, I would like it) with examples like 'A/V-더니' (After A/V-ing, ...). A '표현 1' (Expression 1) section provides a sample dialogue: '지금 이 순간이 멈췄으면 해.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태준이가 열심히 요리하더니 유명한 요리사가 됐어요. 저코모 씨가 열심히 공부하더니 한국어가 많이 늘었어요.' Below this, a table shows the grammar point '자기가 희망하거나 바라는 것을 나타내는 표현이다.' (Expression for showing one's hope or wish) with examples: '가, 고로 끝나는 어간 + -았으면 좋겠다' (If I had done that, I would like it), '가다 → 갔으면 좋겠다' (If I had gone, I would like it), '하다 → 했으면 좋겠다' (If I had done that, I would like it), and '갈하다 → 갔으면 좋겠다' (If I had done that, I would like it).

This screenshot shows a page from the '두근두근 한국어 4' teacher materials. The page is titled '연습 2 A/V-(으)ㄴ/는 셈이다' (Practice 2 A/V-(e)N/Is as if). It includes a '※ [보기]와 같이 대화를 완성하십시오.' (※ Complete the dialogue like in the example.) section. The '보기' (Example) section shows a dialogue: '가: 이제 이것만 정리하면 돼요. 나: 수고하셨어요. 거의 다 정리한 셈이네요. (정리하다)'. Below this, two practice questions are listed: '1. 가: 오늘 너무 바빠서 아침에 빵 한 조각밖에 못 먹었어요. 나: 그럼 _____ (하루 종일 굶다) 배가 많이 고프겠어요.' and '2. 가: 발표 준비 다 했어요? 나: 네, 이제 PPT에 이름만 쓰면 되니까 거의 다 _____ (끝나다)'.

〈교사용 자료집의 내용〉

3. 〈두근두근 한국어〉와 〈쌍쌍 한국어〉의 실제

여기에서는 〈두근두근 한국어〉와 〈쌍쌍 한국어〉의 내용을 실제적으로 살펴 본다. 먼저 드라마를 다루고 있는 〈두근두근 한국어 4〉 11회를 살펴 보기로 한다. 해당 회차의 개요는 다음과 같으며, 영상의 모든 대사는 영어로 번역되어 제공된다.

단원명	학습 문형	문화	재생 시간
연애의 발견(1) - 무서움을 표현할 때 쓰는 말	A/V-(으)ㄴ/는 줄 몰랐다	정동길 (덕수궁 돌담길)	9분 57초
	A-기도 하고, A-기도 하다		

총 9분 57초의 재생 시간 중 초반 4분 정도는 드라마 ‘연애의 발견’ 영상으로 구성된다. 먼저 드라마에 대한 진행자의 간단한 소개가 나온 후, 학습 문형인 ‘A/V-(으)ㄴ/는 줄 몰랐다’와 ‘A-기도 하고, A-기도 하다’가 나오는 드라마 클립이 제시된다. 이때 학습 문형에 대한 언급이 따로 이루어지지 않으며, 학습자는 평소에 텔레비전을 보는 것처럼 자연스럽게 영상을 보게 된다. 클립이 끝난 후에는 진행자가 학습 문형이 사용된 표현을 화면에 띄워 설명하고, 학습 문형을 적용한 문장을 몇 가지 만들어 제시한다. 설명이 끝나고 난 후에는 진행자 두 명이 학습 문형을 사용하여 간단한 대화를 하고, 마지막으로 드라마 내용과 관련된 문화 내용을 제시하며 마무리된다. 이처럼 10분 이내의 영상 안에서 자연스러운 언어 활용 양상, 사용된 문형에 대한 설명, 학습한 문형을 사용한 문장 생성이 모두 이루어지기 때문에 학습자가 스스로 학습하는 것이 용이하다.

교사용 자료집을 참고하여 수업 시간에 영상을 활용할 수도 있다. 〈두근두근 한국어 4〉 자료집에는 학습목표가 제시된 후, 드라마 장면과 학습 문형이 사용된 표현이 간단히 소개된다. 다음으로 영상에 제시된 대화문을 재가공한 ‘대화문’과, 학습 문형을 학습자의 상황에 맞게 활용하여 만든 ‘표현’이 나온다. 교사는 이를 모범 대화로 학습자에게 제시해 줄 수 있다. 다음으로 나오는 ‘교사를 위한 도움말’은 학습 지도에 필요한 지침으로, 11회에는 학습 문형인 ‘A/V-(으)ㄴ/는 줄 몰랐다’와 ‘A-기도 하고, A-기도 하다’가 어떤 수준에 해당하는지, 이 문형을 어떻게 가르치는 것이 효과적인지, 학습자가 어떤 부분을 어려워 하는지 등을 기술해 두었다. 교사는 이 지침을 참고하여 수업을 진행한 후, ‘연습’ 부분을 학습자들에게 제시하여 학습 문형에 대한 연습을 유도할 수 있다. 이때 ‘연습’은 비교적 단순하고 기초적인 활용 연습이다. 마지막으로 ‘활용’이 있는데, 〈두근두근 한국어 4〉 11회에서는 인터뷰하기 활동이 ‘활용’으로 제시되었다. 교사는 ‘교사를 위한 활용 길라잡이’를 참고하여 확장된 연습을 유도할 수 있다. 교사용 자료집 뒤의 부록에는 영상 대본과 정답지가 있다.



〈두근두근 한국어 4〉 11회 영상

〈썸썸 한국어〉는 구성과 내용 면에서 〈두근두근 한국어〉와 다소 달라 활용 방식도 달라질 수 있다. 〈썸썸 한국어〉 5회를 통해 이를 실제적으로 살펴 보도록 한다. 해당 회차의 개요는 다음과 같으며, 영어 외에도 스페인어, 일본어, 중국어로 번역되어 있어 필요한 경우 활용할 수 있다.

단원명	학습 문형	재생 시간
재미있는 여행이 될 것 같아요	V-(으)ㄴ/는/(으)ㄴ 것 같다	7분 17초
	A-(으)ㄴ/는/(으)ㄴ 것 같다	

총 7분 17초의 재생 시간 중 초반 1분 정도는 학습 문형을 활용한 표현이 나오는 K-POP ‘숨’(비스트)의 뮤직비디오가 한글/영어 자막과 함께 제시된다. 다음으로 학습 문형인 ‘V-(으)ㄴ/는/(으)ㄴ 것 같다’, ‘A-(으)ㄴ/는/(으)ㄴ 것 같다’가 명시적으로 제시되고, 한국인 진행자와 외국인 한국어 학습자가 함께 등장하여 학습 문형을 활용한 짧은 대화를 나눈다. 이때 한국인 진행자가 무서운 시어머니로 등장하는 아주 짧은 영상이 잠깐 제시되어 대화의 촉매 역할을 한다. 대화가 끝난 후에는 학습 문형이 활용된 드라마 ‘연애 세포’ 클립과, 맨 처음 제시되었던 K-POP ‘숨’의 뮤직 비디오 클립이 다시 제시된다. 진행자는 각 클립이 끝날 때마다 클립에 사용된 학습 문형에 대한 상기, 드라마와 뮤직 비디오의 내용 설명, 새롭게 등장한 어휘에 대한 간단한 소개 등을 덧붙인다. 이 단계가 끝나고 나면 학습 문형과 이를 활용한 문장의 다시 한번 제시되고, ‘숨’ 뮤직 비디오로 영상이 마무리된다. 학습자는 자신이 학습해야 할 문형에 대한 확실한 자각을 바탕으로 영상을 보게 되며, 동일한 영상을 여러 번 봄으로써 반복 학습의 효과를 누릴 수 있다. 또한 같은

학습 문형을 다루는 서로 다른 영상 두 개를 함께 봄으로써 보다 다양한 맥락에서의 언어 사용을 관찰할 수도 있다.

〈씽씽 한국어〉의 교사용 자료집은 학습 목표와 목표 표현, 목표 표현 예문 및 표현에 대한 설명, 그리고 학습자를 위한 연습 문제로 구성되어 있다. 5회의 경우 ‘자신이 추측한 일을 말할 수 있다’라는 학습 목표 하에 목표 표현이 제시되어 있으며, 문형의 활용형, 예문, 가르칠 때 주의해야 할 점 등이 기술되어 있어 수업에 참고할 수 있다. 다음 ‘연습하기’는 기본적인 활용 연습이 주를 이루고 있다.



〈씽씽 한국어〉 5회 영상

교사와 학습자는 위의 내용을 염두에 두고 교수 학습 목적, 교수 학습 내용, 자신의 기호 등에 따라 자유롭게 콘텐츠를 선택할 수 있다.

4. 맺음말

지금까지 한류 활용 한국어 교육 방송 프로그램 〈두근두근 한국어〉, 〈씽씽 한국어〉의 특성과 내용을 살펴 보았다. 〈두근두근 한국어〉와 〈씽씽 한국어〉가 재외동포 한국어 학습자와 교사에게 유용하게 활용되고, 또한 앞으로 해외 한국어 학습자와 교사에게 도움이 되는 교육 자료가 더욱 다양하게 개발되기를 기대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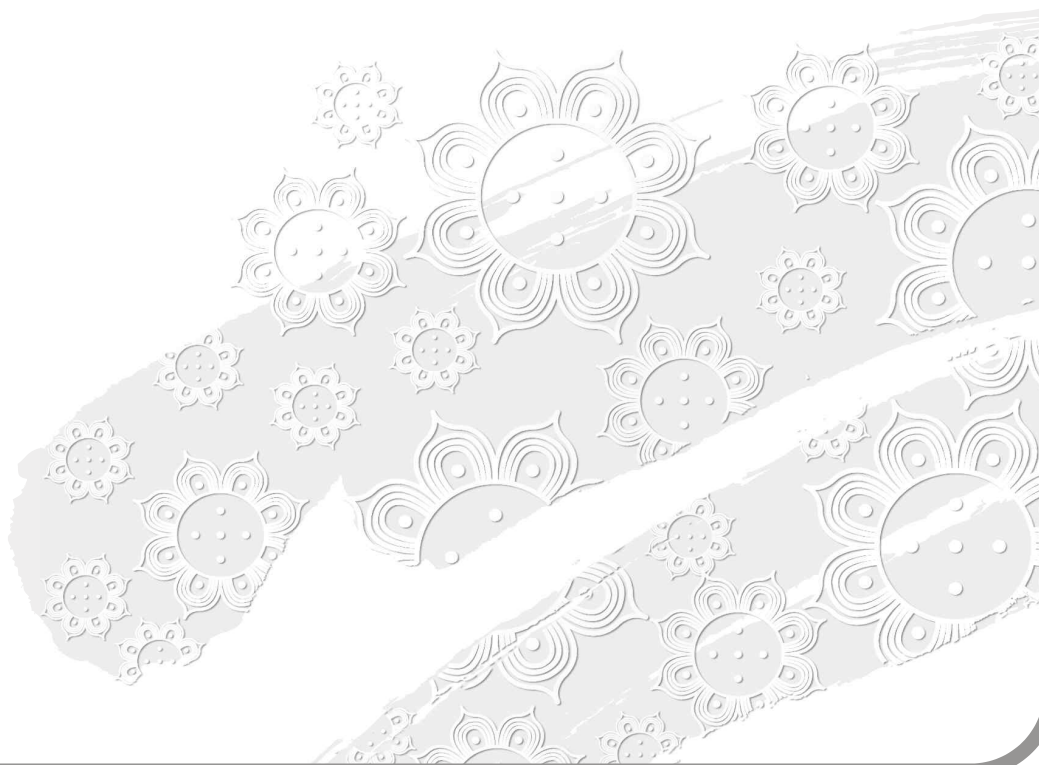




한인교육연구
Journal of Korean-American Education

이미지 메이킹

김경호 대인관계 역량강화 및 갈등해소를 위한
이미지 메이킹(Image Making) 전략



대인관계 역량강화 및 갈등해소를 위한 이미지 메이킹(Image Making) 전략



김경호

한국 이미지경영학회 이사장

I. 서론

인간의 삶은 만남의 연속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남과 더불어 살아가는 사회생활 속에서 우리는 싫든 좋든 수많은 사람들과 마주하게 된다. 그 가운데는 첫 만남에서부터 호감이 가는 사람도 있는 반면에 웬지 모르게 거부감을 주는 사람도 있다. 대인관계의 홍수 속에서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호감과 만족을 준다는 것은 결코 만만한 일이 아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무관심하거나 등한시할 수 없는 것이 바로 자신의 이미지(Image)이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이미지가 자기가 생각하는 대로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질 것이라고 생각하거나 기대한다. 그러나 그것은 거의가 요망사항일 뿐이다. 실제로 한국 기업체 임직원들에게 객관적 자아상을 발견하는 <API 이미지 분석 프로그램>을 적용해 보면 자신의 총체적인 이미지가 자신이 생각했던 것과는 전혀 다르게 비쳐지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 충격을 받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현상은 자기 이미지에 대한 무지와 편견 또는 잘못된 자기표현 방법 등으로 인해 발생된다. 그로 인한 폐해는 대인관계의 왜곡과 상호 오해를 부르게 된다. 이것은 비단 비즈니스 현장에서뿐만이 아니라 공동체에 소속된 남녀노소 모두에게 해당되는 일이다.

이러한 문제 인식은 [아브라함 매슬로우의 <인간의 욕구 5단계> 이론과도 맥락을 같이한다. 먹고 살아야 하는 생존의 욕구단계에서부터 이미지 메이킹이 요구된다. 이것은 인간뿐만이 아니라 살아있는 모든 생물들의 생존방식이기도 하다. 그리고 욕구가 점차 상승됨에 따라서 이미지 메이킹의 수준도 점차 발전하기 시작한다. 그리고 마침내 자기실현의 욕구에 이르러서는 자타가 공감하는 만족스러운 이미지로 완성되어 간다.

우리가 사회생활을 하는 가운데 자기 이미지가 중요한 이유는 대인관계와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이다. 또한, 더불어 살아가는 공동체 구조 속에서 바람직한 대인관계는 개인의 행복과 삶의 질을 결정하는데 직접적으로 기여한다. 이것은 사회 구성원에게 요구되는 능력 중의 하나가 되어 곧바로 자기 성취나 생산성으로 연결된다. 그리고 개인의 이미지는 곧 소속된 공동체와 국가의 이미지로 나타나게 된다는 것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인생은 선택이라는 말이 있다. 선택하는 권리는 자신에게 있으나, 그 결과는 자신의 인생을 결정한다. 개인의 이미지도 선택이다. 지금 보여 지고 있는 이미지는 과거의 선택의 결과현상에 불과하다. 그렇다면 현재의 선택이 미래의 모습을 바꿀 수 있다는 의미가 된다. 이러한 과정이 바로 이미지 메이킹이다. 이미지 메이킹은 무한경쟁 시대에서 대인관계의 역량을 강화시키고 갈등 해소를 위한 전략이다.

II. 본론

1. 이미지 메이킹(Image Making)의 이해

개인의 이미지(Personal image)는 내적 이미지(본질)와 외적 이미지(현상), 그리고 사회적 이미지(관계)로 구분된다.

내적 이미지(internal image)란 인간의 심리적, 정신적, 정서적인 특성 등이 고유하고 독특하게 형성되어 있는 상태로써 심성, 생각, 습관, 욕구, 감정 등의 유기적인 결합체를 의미한다. 따라서 내적 이미지는 한 사람의 이미지를 구축하고 형성해 내는 근간이며 본질이 된다.

외적 이미지(external image)란 인간의 외부로 나타나는 종합적인 느낌으로써 내적 이미지가 외모, 언행, 자세, 표정 등의 꾸밈 행동을 통하여 외부로 표현되는 현상을 말한다. 사람들은 이 현상을 보고 그 사람의 본질을 들여다보고 앞으로의 관계를 예측한다.

사회적인 이미지(social image)란 상황에 따라 표현되고 적용되는 관계를 의미한다. 그러므로 관계가 좋기 위해서는 관계의 전제조건인 현상이 좋아야 하고, 현상이 좋기 위해서는 본질이 좋아야 함은 말할 나위가 없다.

이러한 개인의 이미지가 어떠한 대상과의 만남에서 복합적으로 작용하는데, 그것을 효과적으로 컨트롤하는 것이 바로 이미지 메이킹이다.

이미지 메이킹(Image Making)이란 개인이 추구하는 목표를 이루기 위해 자기 이미지를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행위이자, 자기향상을 위한 개인의 노력을 통칭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이미지

메이킹이 형식적인 겉치레에 불과할 것이라는 인식의 오류에서 벗어날 필요가 있다.

자세히 보면 살아 있는 모든 생명체는 나름대로의 독특한 이미지가 존재한다. 그뿐만이 아니라 생존을 위한 이미지 메이킹의 노하우도 다양각색이다. 바다에 사는 물고기가 등이 푸른 이유는 물 위에서 날아다니는 천적에게 노출되지 않기 위해서라고 한다. 또한 물고기의 배가 하얀 이유도 물 아래 있는 적들의 눈을 피하기 위함이다. 하물며 만물의 영장인 인간에게 있어서의 이미지 메이킹은 바로 성공과 행복을 위한 존재 가치이자 경쟁력이다.

이미지 메이킹은 다음의 세 가지 차원에서 언급될 수 있다.

첫째, 참자기(True Self)를 발견하는 일이다. ‘자신의 이름 말고 자기를 제대로 설명할 수 있는 말은 무엇인가?’ 기업체 강의장에서 임직원들에게 자주 묻는 질문이다. 그런데 의외인 것은 자기 이름을 빼놓고 자신이 누구라고 자신 있게 말하는 사람이 없다는 것이다. 대부분 ‘나는 누구인가?’라는 스스로의 질문에 당황한다. 종이에 쓰고 지울 수 있는 글자 자기 말고는 자신에 대해 명확히 설명할 단어를 못 찾는 것이다.

사람들은 대부분 참자기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경우가 많다. 오히려 참자기와 거짓자기인 페르소나 사이에서 혼란을 경험한다. 그 결과는 불필요한 열등감에 빠져 자신을 무가치한 존재로 전락시키거나 자기과신으로 나타나게 된다.

개인에게 있어서 참자기는 나름대로의 독특하고 고유하며 특유한 개성과 가치를 가지고 있어서 우월과 열등으로 나눌 수 없다. 그러므로 스스로가 참자기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면 자신에 대한 왜곡된 이미지를 품게 된다. 더구나 스스로에 대하여 부정적인 이미지를 가지게 되면 그것은 자신이 처한 환경에 부적응하게 만드는 악순환을 부른다. 따라서 개인이 참자기를 발견하는 일은 만남의 이전 단계에서 우선적으로 확보되어야 하는 자기정보 요소이다.

둘째, 이미지 메이킹은 주관적 자아상과 객관적 자아상 간에 있어서 인식의 차이를 제거하는 일이다. 자신이 인지하고 있는 자기 이미지와 다른 사람이 보고 느끼는 이미지의 차이는 자신의 참자기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거나 타인의 오해와 편견에서 비롯되는 현상일 수 있다. 그것은 자신의 진가를 오해 없이 전달하는데 무리가 따르게 되고, 왜곡된 인식 차이가 깊어지는 결과를 초래하므로 반드시 제거해야만 한다.

셋째, 이미지 메이킹은 이상적 자아상을 구현하는 것으로써 현실적 자아 상태를 이상적 자아 상태로 끌어 올리는 일이다. 개인의 삶의 목표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자신이 추구하는 신분과 역할에 어울리는 최상의 이미지를 만들어서 최적화된 가치로 브랜드화해야 한다. 그렇지 못하면 자신의 가치 제고 및 목표달성에 무리가 따르게 된다.



2. 이미지 메이킹의 구성요소와 모델

모든 사람들은 자신의 비전을 따라 멋지게 성공하기를 원한다. 그리고 그 성공을 통해서 행복해지기를 소망한다. 성공을 하려면 최소한 다음의 몇 가지 성공의 조건을 충족시켜야만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첫 번째로 자신의 열등감을 극복하고 오히려 그것을 무기로 삼아 도전하는 일이다. 그리고 두 번째는 더불어 사는 사회 구조 속에서 다른 사람에게 자신의 첫인상이 어떻게 각인되고 있는가를 점검해야 한다. 세 번째는 자신의 통합적인 이미지가 호감을 주는 이미지인지, 아니면 비호감을 주고 있는지를 명확하게 발견하고, 공감소통 능력을 제고해야만 한다. 그것은 내적인 이미지를 가다듬는 일이고, 외적인 이미지의 통로를 개설하는 일이며, 관계적 이미지를 형성하는 기본 요인들이기 때문이다.

1) 첫인상에 승부를 걸어야 한다.

대인관계에서 호감도와 비호감도는 대개 2~3분 이내에 결정된다고 한다. 첫인상이 좋았다면 중요한 만남에서 절반의 고지를 획득한 것이나 다름이 없다는 이야기다. 첫인상이 중요한 이유는 자칫 한번 잘 못 비쳐지면 상대방의 기억 속에 오랫동안 각인되기가 쉽고 회복하기가 어렵다는 데 있다.

또한, 인간의 심리가 다른 사람에 대한 긍정적인 부분보다는 부정적인 부분에 더 집착하는 경향이 있다. 이러한 심리적 현상을 부정성의 효과(negativity effect)라고 한다. 이 말은 한번 구겨진 인상은 다시 회복하기가 힘들다는 말과 통한다. 따라서 잘 못 전달된 첫인상을 바꾸려면 오랜 시간이 소요될 뿐만 아니라 대단히 급격하고 충격적인 반전이 필요하게 된다.

세계적인 심리학자 로렌즈의 <오리새끼 실험>은 살아있는 생명체가 상호관계를 형성하는데 있어서 첫인상이 얼마만큼 중요한가를 설명하고 있다. 오리새끼는 부화하는 순간부터 여덟 시간에서 열 두 시간 정도 함께 있어 준 사람을 뒤따라 다니더라는 것이다. 처음 보게 되고 함께 있어 준 사람이 어미 오리로 각인 되어진다는 것이다. 이는 인간사회뿐만이 아니라 모든 동물들도 그 대상과의 신뢰감을 형성하는 시기가 있다는 의미가 된다. 따라서 첫인상을 어떻게 심어 놓느냐가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를 결정하는 가장 큰 변수가 된다..

첫인상은 대부분 시각에 의해 결정된다. 시각으로 받아들인 정보와 기존의 정보를 합하여 적당한 해석을 한 후, 그 인상을 확정하고, 그 다음의 행동을 결정한다.

Mehrabian은 인간의 평상적인 의사소통에 있어서 55%의 시각(복장과 외모 등)과 38%의 목소리(음색, 억양, 고저 등)와 신체 언어, 그리고 7%의 말하는 내용을 근거로 이미지 형성이 이루어진다고 하였다. 이는 시각적인 효과가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는가를 대변하는 것이다.

첫인상을 좋게 주려면 먼저 다음의 네 가지 특징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첫째, 일회성이다. 기회는 한 번뿐이라는 사실이다. 두 번째나 세 번째의 만남보다는 첫 번째 만났을 때의 모습이 오래도록 기억에 남게 된다. 첫 번째 들어온 정보가 인상적이고 질을수록 그 다음 번에 느껴지는 정보는 심리적으로 거부하기 때문에 좀처럼 입력되지 않게 된다. 이를 초두 효과(Primacy Effect)라고 한다. 먼저 들어온 정보가 나중에 들어온 정보보다 전반적인 인상 형성에 더욱 강력한 영향을 미치는 현상을 말한다. 따라서 첫인상을 좋게 주려면 단 한 번의 기회를 놓치지 않기 위해 만남의 목적에 맞도록 미리 준비해 두어야 한다.

둘째, 신속성이다. 순간적으로 각인된다는 뜻이다. 많은 실험 결과에서 나타나듯이 첫인상이 전달되는 시간은 불과 2초에서 3초 정도이다. 따라서 중요한 만남일수록 신속하게 승부를 걸어야만 한다. 상대방보다 먼저 관찰하고 대비하는 것도 호감을 얻을 수 있는 비결이 된다.

셋째, 일방성이다. 일방적으로 전달된다는 뜻이다. 나를 처음 보는 사람들이 나의 동의도 없이 함부로 느끼고 판단한다. 누구나 초면에는 상대방에 대한 나쁜 느낌을 말하지는 않지만, 자신의 기억 속에 틀림없이 입력해 둔다. 그러므로 자신이 다른 사람들에게 어떻게 보여지고 있는지에 대한 객관적인 이미지를 확보할 필요가 있다.

넷째, 연관성이다. 상상과 연상을 한다는 뜻이다. 어떤 사람을 만날 때 실제의 그 사람과는 전혀 상관없는 다른 사람을 떠올리기도 하고, 엉뚱하게 이미 자신이 익숙하게 기억하고 있던 사람 또는 사물과 연상해서 그것을 첫인상으로 입력해 놓는 것이다.

이 네 가지 특징을 살펴보면 첫인상이란 보여지는 사람에게 불리한 구조인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미리 준비하지 않으면 상대방에게 자신이 원치 않는 모습으로 각인될 소지가 다분하다는 것을 유념해야 한다.

그렇다면 첫인상을 좋게 주는 방법은 무엇인가? 다음의 네 가지 방법을 활용할 필요가 있다.

첫째, 자존감을 높여야 한다. 자존감이란 자신을 스스로 높이려는 마음인 자존심과 다른 자신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마음을 말한다. 스스로가 최고라고 과대 포장하거나 무가치하다고 비하하는 사람을 다른 사람이 좋게 평가할 리가 없기 때문이다.

둘째, 만나는 상황의 우선순위를 정하고 준비해야만 한다. 우선순위는 그 사람에 따라서 질과 양이 다를 수 있겠으나, 일반적인 만남에서는 얼굴, 복장, 자세와 태도 등을 우선적으로 꼽을 수 있다.

얼굴은 그 사람의 대표기관이자 서로가 가장 먼저 바라보는 곳이다. 따라서 언제나 밝고 친근하게 가꾸고 유지할 필요가 있다.

복장은 그 사람의 신분과 역할을 대변한다. ‘어리석은 사람은 외모를 무시한다’라는 말이 있다. ‘음식은 먹는 사람을 위해서 만들어야 하고, 옷은 보는 사람을 위해서 입어야 한다’라는 말도 있다. 옷을 잘 입어서 성공했다고 할 수는 없어도 옷을 잘 못 입어서 실수하는 사람들은 많다. 이

러한 실수는 자신의 가치를 높이는 데 무리가 따르게 된다.

자세와 태도는 그 사람의 내면 즉, 본질을 평가하는 척도가 된다. 자세란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모양을 말하고, 태도란 대상에 따라서 생각이나 감정이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을 말한다. 태도는 외부의 자극을 수용하는 틀 즉, 마음의 모양이기 때문에 평소에 넉넉하고 깨끗하게 가꾸어 놓아야 한다.

셋째, 첫인상의 헤게모니를 빼앗기지 말아야 한다. 바둑을 둘 때 먼저 두는 선수가 유리하듯이 첫인상에서도 상대방을 먼저 보는 것, 즉 상대방에 대해 미리 알고 있을수록 유리하다. 먼저 알면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 전략이 생기고 상대방에게 자신감이 있는 사람으로 비쳐질 수 있기 때문이다.

옛날 우리 선조들은 다른 사람을 평가할 때 신언서판(身言書判)을 중시했다고 한다.

시대에 따라 다른 사람에 대한 평가와 판단의 우선순위는 바뀌었어도 평가와 판단에 대한 결과는 동일하다. 누구나 먹고살만하고 잘나갈 때는 좋은 인상을 주기가 쉽다. 그러나 불경기 속에 모두가 힘들 때는 그렇지 못한 경우가 많다. 힘들고 살아가기가 막막해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좋은 이미지는 보는 사람들에게 잊지 못할 호감과 기대감을 안겨주는 법이다.

첫인상의 중요성과 효과성을 인지했다면 누군가를 만나기 전에 미리 계획을 세워야 한다. 첫인상은 준비하는 자의 몫이고 준비하는 만큼 효과가 나타나기 때문이다.

2) 열등감을 극복해야 한다.

열등감의 정체는 무엇인가? 우리는 살아가면서 원치 않는 장애물을 만나게 된다. 성공적인 삶을 위해 이미지 메이킹을 해 나가는 과정에서도 방해되는 장애물이 있기 마련인데, 그것이 바로 열등감이다. 주변을 보면 남들이 부러워할 정도로 좋은 조건을 소유하고도 열등감에 휘말려서 발전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보게 된다. 참으로 안타까운 현실이다.

열등감이란 말을 처음 사용한 심리학자는 아들러(Alfred Adler)이다. 열등감의 학문적 용어 해석으로는 자신의 발전 가능성에 대해 심리적, 정서적으로 불안정한 상태를 말하며, 표면적으로는 자신감의 훼손으로 나타나기도 한다. 성공하는 사람들에게 볼 수 있는 성향 중 하나는 넘치는 자신감이다. 그런데 이런 자신감을 위축시켜 포기를 유도해 내고 실패의 구렁이로 이끄는 묘한 감정이 열등감이다. 열등감은 생애 전반에 다양한 형태로 영향을 미치기도 하는데, 동일한 원인에서 형성된 열등감이라 하더라도 개인의 특성에 따라 다양한 모습으로 나타난다.

열등감의 유형은 크게 절대적인 요인과 상대적인 요인으로 나눌 수 있다. 절대적인 열등감은 선천적이거나 이미 바꿀 수 없는 상황으로 결정된 열등한 상태를 의미한다.

상대적인 열등감은 어떤 특정한 환경이나 상황에서 경쟁심과 남과 비교되는 부정적인 판단에서

비롯된다. 상대적인 열등감에 깊이 빠진 사람들은 반복되는 실패와 한계를 경험하게 되면 점점 깊은 불안감과 열등감에 휘말리게 되고, 자신을 비하하거나 자기혐오에까지 이르기도 한다. 자신의 장점보다 단점이 더 커 보이게 되어 결국에는 자신의 장점조차 잃어버리게 된다. 그리고 다른 사람과 비교하고 위축하게 되는 습관을 형성하게 된다. 이러한 열등감을 가진 사람들의 특성은 공격적 성향과 후퇴적 성향으로 나타난다.

공격적 성향은 자신이 도달하지 못한 목표를 평가절하 하거나, 자신의 업적을 과하게 높이 평가하여 우월감을 드러내려는 의도로 상대방의 업적을 낮게 평가한다. 일반적으로 허풍, 호언장담, 거만, 과장된 자기 자랑 등의 행동 특성을 나타낸다. 자신이 이루어야 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으로 인해 그런 특성으로 표출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반면 후퇴적 성향은 방어적인 방법을 동원한 행동으로써 자존감을 보호하고 권력과 가치, 명예를 유지하기 위한 소극적 행동 양식을 취한다. 이러한 행동은 더 이상 위신과 명망을 잃지 않고, 실패를 가져올 수 있는 위험을 피하기 위해 회피의 증상들로 나타내는 경우이다. 수반되는 행동들로는 방어, 두려움, 의심, 폐쇄, 소심, 낙담, 주저, 은거 등이 있다. 열등감은 자기 비하뿐 아니라 자기 과시에서도 나올 수 있는 감정이다. 이에 따라 공격적, 후퇴적 성향이 관계 속에서 과하게 드러날 때 대인관계가 성공적으로 형성되기 어렵게 된다.

다른 사람과 더불어 사는 현대 생활 속에서 열등감이 없는 사람은 거의 없다. 문제는 그 열등감을 어떻게 대처하고 극복해 나가느냐에 있다. 우리가 놓치지 쉬운 열등감 속에 숨겨진 두 가지 진실을 짚어보고 대처 방안을 찾아내면 열등감을 극복할 수가 있다.

사실 열등감은 결핍에 그 뿌리를 두고 있다. 그것을 극복하는 노력은 매우 창조적인 것이다. 없는 것을 채워가는 역동은 창의성의 원동력이 될 수 있는 것이다.

열등감에는 두 가지 사실이 숨어 있다.

첫째, 열등감 속에는 객관성이 없다는 것이다. 열등감은 주관적인 사고에서 나오는 부정적 자기 판단이라는 것이다. 자기 혼자만의 생각으로써 다른 사람은 전혀 모르고 있는데 자신만 느끼고 있다는 사실이다. 결국 열등감은 자기 자신이 만드는 것이다. 루즈벨트는 “당신이 동의하지 않는 한 누구도 당신을 열등하게 생각하지 않는다”라는 말을 남겼다. 열등감이라는 실체는 내가 동의했기에 내 안에 생겨난 감정임을 단적으로 나타내 준 표현이다.

둘째, 내 안의 열등감은 다른 사람에겐 전혀 관심과 의미가 없다는 점이다. 분명히 자신의 입으로 열등감을 말하기 전에는 아무도 알지 못했던 사실이다. 얼마나 안타까운 일인가? 열등감은 사실은 다른 사람이 나를 무시할까 염려되는 연약함에서 나오는 감정이다. 다른 사람은 아무도 관심이 없는데 자신만 힘들어한다면 억울한 일이다.

따지고 보면, 열등감에 시달리는 진정한 의미는 다른 사람이 자신을 무시하거나 좋아하지 않을 것이라는 두려움보다도 다른 의미가 숨어있다. 열등감을 핑계 삼아 자기 계발을 하지 않고 의욕

저하 또는 소심함에 머물러 발전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그 연약함으로 인해 타인을 탓하며 부정적인 방어기제들을 사용하는 것이다. 열등감은 때로 과거의 상처 받은 경험에 의해 형성되기도 하는데, 어떤 경우이든 그 열등감을 숨기려고 하는 행동이 다른 사람에게 나쁜 영향을 주기도 하고 오해를 불러일으키기도 한다.

그렇다면 이 고약한 열등감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의외로 간단하다. 그것은 내려놓으면 그만이다. 아무도 관심 없고, 심지어 알지도 못하는 감정에 사로잡혀 혼자서만 고생하지 말고 내려놓으라는 것이다. 상처 입은 맹수는 상처를 감추기 위해 더욱 포악해진다고 한다. 열등감에 얽매어 자신뿐만 아니라 여러 사람들을 힘들게 하지 말고 이제 그만 그 고통 덩어리를 통째로 내려놓아야만 한다.

또한, 열등감을 활용하라는 것이다. 개성시대에는 단점을 잘 활용하면 틀림없이 경쟁력을 가질 수 있다.

TV에 나오는 성공의 주인공들에게서 볼 수 있는 두드러진 특징은 ‘멋진 성공’이라기 보다는 ‘열등감의 반전’이 더 큰 감동을 준다. 열등한 조건이 그들에게 없었다면 그들에게 역동도 없었을 것이다. 못 배웠으니 더 노력했고, 가정 형편이 어려워니 더욱 열심히 일했고, 불우한 환경에서 자라났기 때문에 훌륭한 일을 찾아 기어코 해내게 되었다. 몸이 온전하지 못했기에 다른 사람보다 세 배 네 배 노력하여 다른 사람이 안 쓰는 몸을 기능적으로 훌륭하게 개발한 예도 얼마든지 볼 수 있다. 지금까지의 자신의 열등감을 어떻게 활용해서 지금부터의 강점으로 반전시킬 것인가를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3) 밝은 표정이 성공을 부른다.

세상 모든 사람들이 나를 만나기만 하면 기분이 좋아지고, 나에게 호감을 갖게 할 수 있다면 어떨까? 만약 그렇게만 된다면 비즈니스뿐만이 아니라, 협상 테이블이라든지 이성 관계에서도 항상 유리한 입장에 서게 될 것이다. 다른 사람들이 나를 좋아하게 만드는 방법이 있다.

내가 웃으면 거울도 웃고, 내가 찌푸리면 거울도 찌푸린다. 대인관계에서 나타나는 이러한 효과를 심리학에서는 거울 이미지 효과(mirror image effect)라고 한다. 이 말은 코넬대학교 브롬펜브레너 교수가 만든 용어이다.

거울은 자신이 표현하는 그대로 반사 되듯이 표현뿐만이 아니라, 자기가 가진 생각도 거울에 반사되듯 그대로 돌아온다는 주장이다. 그러니까 내가 상대방을 좋아하게 되면 상대방도 나를 좋게 생각하고, 내가 상대방에 대해서 거부감이나 불편함을 느끼고 있으면 상대방도 내게 똑같은 감정을 품게 된다는 원리이다. 만약에 내가 상대방을 싫어하는 감정을 가지게 되면, 어떤 상태로든지 싫어하는 감정을 표현하게 된다는 것이다. 숨기려고 해도 숨겨지지 않고, 미세한 제스처나

말투나 표정을 통해서 싫어하는 느낌이 드러나게 된다. 그런 감정은 곧바로 상대방이 감지하게 되고 결국 상대방도 나를 싫어하게 된다. 호감과 비호감의 차이가 여기서부터 나타나게 된다.

거울 이미지 효과를 가장 잘 나타내는 말이 성경에 있는 ‘대접 받고 싶으면 먼저 남을 대접하라’는 말이다. 이야말로 대인관계의 황금률이 아닐 수 없다. 고객이나 상대방에게 사랑을 받으려면, 또 설득이나 부탁을 잘 하려면 부탁하기 전에 먼저 상대방을 좋아하는 감정을 가득 품는 노력이 필요하다. 그리고 ‘나는 당신 편입니다’라는 싸인을 보내야 한다. 이것을 심리학에서는 〈호의 보답성의 원리〉라고 한다. 호의 보답성은 어느 한쪽이 호의를 베풀게 되면, 그 호의는 반드시 메아리처럼 다시 돌아온다는 원리이다. 이를 부메랑 효과라고 말하기도 한다.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나를 좋아하게 된다면 이보다 더 행복한 일은 없을 것이다. 이것은 호감 받는 대인관계를 위한 이미지 메이킹의 궁극적인 목적이기도 하다.

4) 차가운 표정 바꾸기

우리 주변에는 얼굴표정이 차가워서 손해를 보고 있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다. 그 중에는 자기가 얼굴표정 때문에 손해를 보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는 사람도 있지만, 자신의 얼굴표정이 차가운지조차도 모르면서 손해를 보는 사람들도 있다. 거울 속에 비치는 익숙하고 자기 선택적인 모습만을 보고 느껴온 결과이다.

자신의 표정이 좋은지 나쁜지를 진단해 보는 방법이 있다. 신호대기 중에 옆 사람을 말없이 쳐다봤을 때, 상대방으로부터 ‘왜 췌려봐?’ 라는 반응이 나왔다면 얼굴표정에 조금 문제가 있는 사람이다. 또, 엄마 품에 있는 어린 아기에게 다가가서 “까꿍~”했을 때, 그 아기가 방긋방긋 웃는다면 좋은 표정이지만, 눈을 피하거나 고개를 돌린다면 조금 문제가 있는 표정이다. 그런데 나와 눈이 마주칠 때마다 아기들이 ‘으앙~’하고 울어버린다면 자신의 얼굴표정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보면 된다. 또한 조용했던 골목길에 나만 지나가면 동네 개들이 모두 다 짖어댄다면 이건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니다.

동물도 좋고 나쁜 인상을 알아본다는 뜻이다. 막 태어난 아기들 중에서 인상이 험악하거나 췌려보고 있는 아기를 본 적이 없다. 태어났을 때의 모습은 선하고 아름다운 얼굴이었는데, 살면서 바뀐 것이다. 그러니까 다시 바꾸면 된다는 공식이 성립되는 것이다.

인상학에서는 지금의 그 인상은 과거에 어떤 생각과 표정을 주로 지었느냐에 따라 만들어진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우리가 사회생활을 하다 보면 웃을 일보다는 무표정하거나 화내고 인상 쓰는 일이 많은 것이 사실이다. 그러므로 사는 대로 놔두면 자동적으로 나쁜 인상이 만들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다.

얼굴 표정을 바꿀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은 무엇일까? 해부학적 통계를 보면, 한국인의 얼굴

표정을 만드는 안면근육이 약80개 정도가 있다고 한다. 그중에서 다른 사람에게 호감을 줄 때 움직이는 근육은 17개 정도라면, 거부감을 줄 때 움직이는 근육은 43개나 된다. 이 숫자가 주는 의미는 간단하다. 호감을 주기보다는 거부감을 연출하거나 오해가 발생할 확률이 훨씬 높다는 뜻이다.

이렇게 다른 사람의 눈에 비치는 자신의 얼굴표정을 진단한 후에는 얼굴 표정을 만드는 근육들을 호감 주는 모양이 되도록 강화시켜야 한다. 우선 차가운 눈빛 때문에 손해를 보는 사람들은 눈 주변의 근육을 운동하면 좋다. 일명 <안륜근 순화운동>이다. 눈썹을 위로 최대한 치켜 올렸다 내렸다를 반복하면 안륜근이 유연해져서 따뜻한 눈매로 바뀌게 된다. 또 눈을 가늘게 떴다가 크게 뜨는 것을 반복해서 연습하는 것도 차가운 눈매를 고치는데 도움이 된다.

눈매 관리가 되었다면, 그다음에는 입 주변에 있는 근육의 움직임을 살펴야 한다. 무표정으로 있을 때 입꼬리가 아래로 축 쳐진 표정은 별로 좋지 않다. 특히 웃을 때 입꼬리가 내려가면 비웃는 표정으로 보이기 때문에 입꼬리를 위로 올리는 훈련을 해야 한다. 미소 띤 상태에서 양쪽 입꼬리를 손으로 위로 올리면서 웃는 훈련을 하면 효과가 크다. 윗입술을 앞니 두 개로 살짝 물고 볼 근육을 위로 올리는 연습을 하는 것도 많은 도움이 된다. 이때 마음에서 우러나는 소리까지 “으흠~”하면 변화의 속도가 더 빠르게 나타난다.

5) 소통 능력을 결정하는 4가지 언어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말에는 네 가지 종류의 언어가 있다. <들리는 말>, <보이는 말>, <숨어있는 말>, <없는 말>이다. 분명한 것은 누구나 이 네 가지 말들 중에서 반드시 한 가지를 주로 사용하고 있다는 것이다. 자신은 주로 어떤 말을 선택해서 사용하고 있는지 점검할 필요가 있다.

첫째, <들리는 말>은 말 그대로 귀에 들리는 소리를 뜻한다. 이것은 입으로 전하고 귀로 듣는 형태의 가장 일반적인 소통방식이다. 그런데 문제는 가장 일반적인 소통 방식에서 가장 일방적인 소통의 모순이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이다. 말을 전한 사람들은 상대방이 도대체 말귀를 못 알아듣는다고 불평을 한다. 그런데 반대로 상대방은 무슨 말인지 도대체 이해가 안 된다고 반박을 한다. 상대방의 입장이나 상황을 전혀 감안하지 않은 채 서로가 자기 입장에서만 열심히 설명하거나 듣기 때문이다. 들리는 말의 한계가 여기에 있다. 상대방의 상황과 입장에서 알아듣고 이해하도록 말하는 것이 바로 ‘공감소통’이다.

둘째, <보이는 말>은 입으로 나오는 말 뿐만이 아니라, 표정이나 제스처, 자세와 태도 등을 통해서 전달되고 있는 비언어적인 메시지를 의미한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본의 아니게 누군가에게 실례를 했다면 바로 사과하는 것이 에티켓이고 매너이다. 그런데 실례를 범한 사람이 죄송하다는 말은 했는데, 표정이나 태도가 불량하다면 죄송하다는 사과가 통하지 않게 된다. 차라리 말은 안

해도 얼굴 표정이나 몸짓으로 죄송하다는 표현을 하는 편이 상대방의 기분을 환기시킨다.

소통에 대한 통계를 보면, 언어적인 메시지가 7%이고 비언어적인 메시지가 93%라는 법칙을 보더라도 들리는 말보다 보이는 말이 더욱 강력한 영향력이 있다는 것을 유념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보이는 말은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배려 소통’이라고 할 수 있다.

셋째, 〈숨어 있는 말〉은 말로는 표현하지 않는 가슴속 깊이 숨겨져 있는 본심을 의미한다. 예를 들어서, 바쁘게 일하던 아내가 소파에 누워서 TV를 보고 있는 남편에게 ‘여보, 뭐 해?’라고 했다면, 아내가 말하는 ‘여보, 뭐 해?’가 무슨 뜻인가를 얼른 알아차려야 가정의 평화가 온다는 이야기이다. 아내들이 말하는 ‘여보 뭐해?’라는 말속에는 3천 가지 이상의 심리적인 의미가 숨겨져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직장에서도 마찬가지이다. 상사가 ‘자네, 오늘 저녁에 바쁘는가?’라고 물어온다면, 그 말 너머에 있는 숨은 뜻을 간파할 줄 알아야 한다는 것이다.

직접 말을 하지 않아도 상대방이 스스로 알아서 말해 주기를 기다리는 ‘말 너머의 말’이 바로 ‘숨어 있는 말’이다. 상대방의 가슴속에 꼭꼭 숨어 있는 말을 찾아낸다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다. 그래서 그것을 찾아내는 소통 능력을 ‘존중 소통’이라고 한다.

넷째, 〈없는 말〉은 말 그대로 서로에게 아무런 의미나 가치가 없는 것을 의미한다. 자신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의미를 다른 사람이 몰라준다고 해도 서운하거나 토라질 이유가 전혀 없는 상태를 말하는 것이다. 출근시간에 지나가는 사람들이 내 생일을 몰라준다고 서운할 일은 전혀 없을 것이다. 그러나 만약에 모두가 내 생일을 알고 축하해 준다면 그것은 평생 잊지 못할 감격 이상의 이벤트가 된다. 그것은 전혀 기대하지도 않던 일이고, 일어나리라고 생각조차 하지 않고 있던 일 즉, ‘없는 말’이라는 것이다. 없는 말은 사회나 학교에서는 도저히 배울 수 없는 말이다. 다만 가정에서 어머니의 헌신적인 사랑과 섬김을 통해서 배워 온 말이다. 그래서 없는 말은 곧 ‘섬김 소통’인 것이다.

〈들리는 말〉, 〈보이는 말〉, 〈숨어있는 말〉, 〈없는 말〉 이렇게 네 가지 말은 뒤로 갈수록 점점 더 강력한 설득력이 있는 메시지가 된다는 사실이다. 따라서 듣고 보이는 저변에 숨어있는 말과 없는 말까지 알아내는 노력과 노하우가 필요하다. 이것이 상대방의 마음을 얻을 수 있는 일인 동시에 소통의 달인이 되는 길이다.

6) 태도가 무기이다.

인간의 성공과 실패 사이에는 대인관계라는 다리가 놓여 있다. 대인관계의 다리를 지탱하는 요소가 이미지이다. 그리고 이미지 형성에 강력한 영향을 미치는 요소 중에 하나가 그 사람의 태도(Attitude)이다. 우리는 사람을 대하는 모습에 대해 ‘친근하다, 성실하다, 겸손하다, 따뜻하다’라는 표현을 많이 한다. 반면에 ‘불손하다, 거칠다, 차갑다’라는 말들도 심심치 않게 쓴다. 이는 모두

그 사람의 태도에 대해 느끼는 표현들이다. 그러고 보면 자신의 가치를 높이는 것, 나아가서는 상대방의 마음을 움직이는 중요한 키 중의 하나가 사람을 대하는 태도라고 할 수 있다.

사회생활을 하는데 있어서 태도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아보려면, 좋은 태도를 필요로 하는 배경과 구조를 이해할 필요가 있다. 모든 공동체가 구성원들에게 요구하는 것이 있다. 첫째, 돈을 내라. 둘째, 돈이 없으면 땀을 내라. 셋째, 돈도 땀도 없으면 사표를 내라. 이 세 가지는 모든 공동체에 소속된 구성원이라면 반드시 내야만 하는 냉엄한 요구조건이다. 돈과 사표를 낼 것이 아니라면 내야 할 것이라고는 결국 땀밖에 없다. 여기서 땀이란 개인의 능력(talent)을 의미하는 것이다. 공동체에 속한 사람들이 발휘해야 할 능력은 세 가지이다.

첫째, 대인관계 능력이다. 관련된 사람들과의 관계를 어떻게 형성하느냐가 공동체 생활의 승패를 좌우하는 가장 중요한 열쇠가 된다. 대인관계 능력이 떨어지면 개인과 공동체의 목표를 달성하는데 무리가 따르게 되기 때문이다.

둘째, 업무수행 능력이다. 자신에게 맡겨진 업무를 얼마나 신속하고 정확하게 수행하느냐가 개인의 성과와 조직의 목표 달성에 크게 영향을 끼친다.

셋째, 문제 해결 능력이다. 어떠한 일을 한다는 자체가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이다.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미연에 방지하거나 봉착한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느냐가 개인의 능력으로 평가되기 때문이다.

대인관계 능력, 문제해결 능력, 업무수행 능력을 발휘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이 또 세 가지가 있다. 그것이 바로 각각의 능력에 따른 지식(knowledge)과 기술(skill)과 태도(attitude)이다. 지식은 단 시간 내에 습득하기에는 어려운 과제이다. 살아오는 동안 학습으로 형성되어지는 것이다. 그리고 한 분야의 전문적인 기술이 습득되려면 오랜 시간 동안의 반복과 훈련이 필요하다. 하지만 태도는 다르다. 이것은 마음먹는 즉시 행동으로 나타낼 수 있는 것이다. 태도란 외부의 자극을 수용하는 틀이다. 내면에 있는 틀의 모양에 따라서 외부에 언행으로 표출되는 것이다.

Ⅲ. 결론

아침에 눈을 뜨면서부터 우리는 누군가를 만난다. 중요한 사실은 어떤 사람과 만나고 누구와 사귀느냐에 따라 그 사람의 인생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분명한 것은 성공은 잘된 만남에서 시작되고 실패는 잘못된 만남에서 결정된다는 사실이다.

‘성공하려거든 성공한 사람들을 보라’는 말이 있다. 성공을 하기 위한 노하우와 특징들이 숨어 있기 때문이다. 물론 실패한 사람들의 경험도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한다. 성공하는 사람들에게겐

주로 여섯 가지의 이미지 특징이 나타난다. 첫째, 목표가 분명하다. 노력보다 방향이 우선이다. 목적지를 모르고 달리면 달릴수록 손해다. 둘째, 열린 마음을 가지고 있다. 다른 사람의 입장과 처지를 이해해 주며 적극적으로 지원해 준다. 셋째, 밝은 자화상을 가지고 있다. 미래에 자신이 멋지게 성공한 모습을 상상하면서 지금도 성공하는 삶을 살고 있다고 믿는다. 넷째, 적극적인 사람이다. 늘 긍정적으로 생각한다. 다섯째, 쓸모 있는 사람이다. 환경과 여건과 상황을 불평하거나 원망하지 않고 자신을 그것에 용해시킴으로 새로운 자신을 창조한다. 여섯째, 자기 그릇을 날마다 닦는 사람이다. 그릇 얼마나 크냐보다 얼마나 깨끗하냐가 중요하다.

개인에게 있어서 성공의 요인은 내부에 있다. 지금 성공인이 아니고, 성공인이 되려는 사람이라면 우선 성공하고 있는 사람처럼 보여져야 한다. 심리학에 밴드 왜건 효과(Band-wagon effect)가 그것이다. 이를 편승효과라고도 하는데, 사람들은 누구나 강한 자, 승리자, 성공자의 편에 서고 싶은 심리가 있다는 것이다. 이는 기대가치이론(Expectancy-value theory)으로 나타난다. 사람들은 상대를 선택할 때 상대의 매력 정도뿐만 아니라 성공 가능성에 대해 기대할 수 있는 정도를 고려해서 결정한다는 이론이다. 이러한 이론들은 성공인의 이미지는 보는 사람들에게 호감을 준다는 의미가 된다. 이러한 기대 심리가 많은 사람들에게 매력으로 비쳐지게 되고 사람들이 자신의 주변으로 다가오게 만드는 짙은 향의 묘약과도 같은 역할을 한다.

일생 동안 수없이 만나는 사람들에게 끌리는 인상으로 호감을 주는 일은 성공의 첫 번째 조건이다. 그리고 인맥의 네트워크를 구축하는데 유리할뿐더러 성공의 밑그림을 그릴 수 있는 에너지가 된다. 그러므로 자신의 내면의 가치를 어떻게 외부로 표현하고 나타내느냐가 대인관계의 성패를 가름한다. 대인관계에서 오는 갈등과 스트레스를 예방하고 모든 만남에서 호감과 만족을 주기 위해서는 이미지 메이킹 전략이 요구된다. 모든 성공이 대인관계에서 비롯된다면, 모든 만남은 이미지로 결정된다.

김경호(교육학 박사)

한국 이미지경영학회 이사장
이화여대 이미지컨설턴트 과정 주임교수
goldimage@hanmail.ne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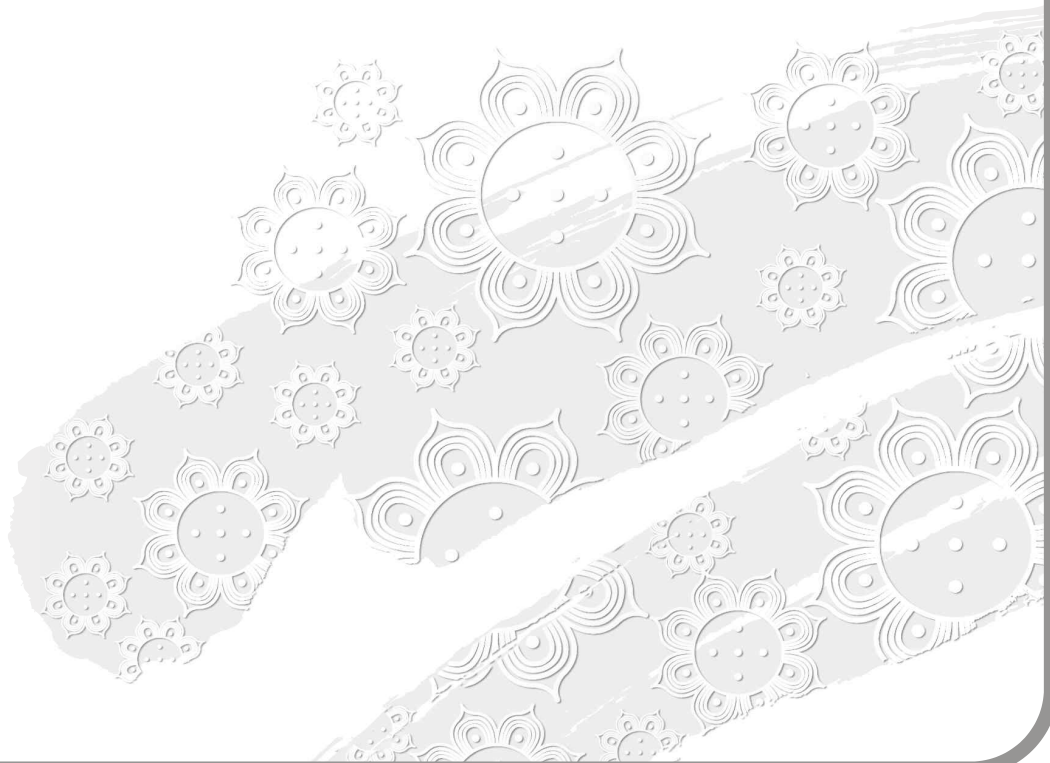


한인교육연구
Journal of Korean-American Education

기고문

.....

신문규 북미지역 한국어 교육과 발전과제



북미지역 한국어 교육과 발전과제

신문규

주미대사관 교육관



1. 문제 제기

재미한국학교협의회(NAKS, 이하 ‘협의회’라 한다)가 주최하는 제35회 학술대회와 총회가 “함께 꿈꾸며 도약하는 한국어교육”이라는 큰 주제 아래 8월에 개최되는 것을 진심으로 축하한다. 협의회가 1981년 창립된 이후 꾸준히 학술대회를 개최하여 한국어교육의 발전에 기여해온 것은 매우 소중하고 자랑스러운 것이다.

한국과 미국의 관계는 6.25 전쟁을 통해 ‘혈맹’관계로서 미국없는 한국을 생각하기는 쉽지 않을 만큼 밀접해졌다. 그렇지만 그 이전에 역사를 통해 위기의 한국민들은 미국으로 기회를 찾아, 나라의 독립을 위해, 성공해서 고향을 돕고, 가족을 돕기 위해 등등 미국으로 많이 이주해왔다. 현재 약 220만 명 이상의 한인들이 미국에 살고, 공부하고 있다.

미국사회이지만 다양한 민족과 언어들이 공존하고 있다. 주류사회로 성공해서 살아가기 위해서 철저한 영어위주의 교육을 시키기도 하고, 한인의 역사와 문화, 정체성을 유지하기 위해 한글교육을 쉼 없이 병행하는 가족, 사회도 있다.

어느 사회든지 현재가 중요하다. 하지만 현재는 과거를 떠나서 존재할 수 없고 현재와 관계하지 않은 미래는 존재할 수 없다. 현재 미국사회에서 행복하게 잘 사는 것은 중요하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의 말과 글, 역사, 문화 등에 대해 마음으로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어야 한다.

어느 미래의 선진국이든 다양한 인종과 언어들이 통합되거나 사용될 수 있는 다원화되고 다양

한 사회가 선진국의 조건의 하나일 것이다. 그래야 전체는 하나의 작은 구성에 기여하고 부분은 그 하나로서 전체에 근거가 되는 통합의 힘이라 생각한다.

이글에서는 현재 미국내 한국어교육의 현황을 짚어보면서 향후 현지에서 한국어교육의 확대와 발전을 위한 몇 가지 개인적 생각을 말하고 싶다.

2. 현황 및 실태

지난해 말을 기준으로 미국의 공립 초,중,고교에 한국어과목이 정규 또는 방과후 과정으로 채택된 학교가 197개교에 이르고 있다. 금년을 생각하면 그 숫자는 더 늘어날 것이다.

또한 잘 아시듯이 협의회가 중심이 돼서 운영하는 한국학교(한국 내 개념으로는 ‘한글학교’의 의미가 더 적합하다)가 1,000여개 이상이다. 협의회는 이외에도 다양한 의미 있는 교육과 연구 활동을 매년 풍부하게 하고 있다. 예를 들면 SAT 한국어 모의고사 및 문제집 발간, 교육과정 및 교과서 발간, 집중연수회와 차세대 교사 워크숍 등의 교사연수회, 학생들을 위한 말하기 대회 및 쓰기 대회 등이다.

한편 대학을 살펴보면 한국어과목이 외국어 과목으로 채택되어 운영되거나, 한국학센터가 설치되어 역사, 문화, 언어 등이 교육, 연구되고 있다. 최근의 한류 열풍 덕분에 많은 젊은이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예를 들면 조지 와싱턴대학에 금년 1월에 한국학중앙연구원이 지원해서 한국학센터가 개원하여 의욕적이고 다양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이런 기관에서 가르치는 분들의 지위 역시 매우 다양하다. 정규 공립학교 교사부터 대학의 교수, 그리고 파트타임 강사(교사 등) 등까지 여러 유형이며 이런 지위를 얻기까지 받은 교육이나 자격 등도 매우 다양한 실정이다.

특히 고교에서의 한국어 교육과 대학의 한국어 교육 또는 한국학과 어떻게 미래지향적으로 연결시키냐의 문제가 중요하다. 배움이 그 자체로서 즐겁고 행복한 것은 사실이지만 현재의 세계는 실용을 중시해야 든든한 미래가 열릴 수 있다. 그리고 교육의 질 보장의 핵심은 가르치는 교사, 교수의 능력과 열정 그리고 기자재와 밀접히 연결되어 있다. 이 부분에 대해 현재 현황을 축적하

고 미래지향적 방향으로 계속 이끌어가는 것이 중요하다.

현지 한국어 교육과 관련하여 한국에서 지원하거나 관계하는 기관 역시 매우 다양하다. 중앙부처로는 교육부, 외교부, 문화체육관광부 등이 있으며 국립국제교육원, 재외동포재단, 국립국어교육원, 한국어교육재단, 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교류재단 등과 순수 민간차원의 많은 단체와 후원자들도 있다.

3. 향후 발전 과제 제안

우선은 좋은 선생님들이 한국어 교육에 관심을 갖고 함께 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적절한 유인정책과 잘 정비된 교육과 연수가 필요하다고 본다. 교사 자격기준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함께 만들고 이를 제도화해야 한다. 그리고 연수를 통해 교육과정을 선생님들이 우수한 수준으로 만들어 활용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

공립학교 한국어교육 채택의 획기적 전기를 마련하기 위해서는 고교에 한국어 과목이 AP 과목으로 채택되는 것이 시급하다. 최근의 상황은 긍정적 요인도 있지만 결코 좋은 여건은 아닌 것으로 안다. 채택요건의 하나인 한국어 개설 학교수에 대해 더 많은 수를 요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학교 현장과 교육계라고 본다. 학보모들이 좀 더 이 문제에 관심을 갖고 지속적인 건의(appeal)를 통해 현장에서 필요하다는 입장(bottom-up)이 충분히 축적되고, 관련기관도 협업을 통해 지속 노력(top-down)해야 한다. 이런 역할을 협의회에서도 충분히 해줄 것으로 확신한다.

그리고 대학에서 이루어지는 한국어 교육과 한국학 전공에 대한 지역별, 학교별 장점과 특성에 대한 상세한 정보(Mapping)들이 누적되고 관리되어야 한다. 이것은 고교의 한국어 교육과 대학 교육이 적절히 연계되어 학생들에게 도움이 되고 더 나아가서 AP 시험 채택 가능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본다.

현지 한국어 교육을 지원하고 있는 한국의 많은 기관에 대해 현장의 수요자 입장에서 관련기관의 역할분석, 합리적 분담, 필요한 경우 업무의 조정과 통합 등 효율적 지원방안에 대한 의견이 발전적으로 제시되어야 한다.

우리 민족, 우리 한인들의 성장 동력으로 부모의, 조상들의 자녀교육에 대한 관심과 열정이 중요한 하나였음을 확신한다. 이제부터 이민 3세대, 4세대 이후에 자녀들에게 한국어 교육이 필수이고 배워할 과제임을 인식하여 한다.

“빨리 가려면 혼자가고 멀리 가려면 함께 가자”는 격언을 기억하면서 과거를 잊지 않고 배우면서 현재 역량을 함께 힘을 합쳐 다하고, 희망의 미래를 함께 꿈꾸며 만들겠다는 의지로 한국어 교육에 힘써주신 여러분 모두에게 고마움을 표합니다. 감사합니다.

NAKS 및 14 지역협의회 창립 연혁

번호	협의회 명칭	창립일	도시	초대 회장
*	재미한인학교협의회 창립	1981. 04. 18	Washington D.C.	주하성
1	워싱턴지역협의회 창립	1984. 03. 23	Washington D.C.	염영일
2	중서부지역협의회 창립	1985. 03.	Chicago, IL	김기원
3	동북부지역협의회 창립	1985. 05. 11	New York, NY	허병렬
4	뉴잉글랜드지역협의회 창립	1989. 10. 14	Boston, MA	김영집
5	남서부지역협의회 창립	1989. 11. 18	Houston, TX	하인태
6	동남부지역협의회 창립	1990. 11. 03	Atlanta, GA	김경숙
7	서북미지역협의회 창립	1991. 03. 01	Seattle, WA	오계희
8	북가주지역협의회 창립	1991. 03. 02	San Francisco, CA	정희상
9	하와이지역협의회 창립	1991. 03. 03	Honolulu, HI	조성천
10	플로리다지역협의회 창립	1991. 03. 16	Miami, FL	정대용
11	미시간지역협의회 창립	1992. 03. 21	Detroit, MI	남영림
12	콜로라도지역협의회 창립	1992. 03. 28	Denver, CO	선창균
13	동중부지역협의회 창립	2000. 09. 30	Philadelphia, PA	김정근
14	중남부지역협의회 창립	2007. 10. 13	Indianapolis, IN	김용순

역대 이사회 임원

순위	이사장	임기	부이사장	총무이사	감사
초대	오학근	1981년 4월 ~ 1982년			고일석, 고충흠
2대	주하성	1984년 11월 ~ 1987년 8월			이춘재, 정금조
3대	강경식	1988년 9월 ~ 1991년 8월		류기창	김일호, 김치경
4대	허병렬	1991년 9월 ~ 1994년 8월	김치경 (김은자)	류기창 (김은자)	김숙자, 김송희
5대	황보철	1994년 9월 ~ 1997년 8월	이광자	이경이	김근순, 김정오
6대	서문원	1997년 9월 ~ 2000년 8월	김기봉 (임금진)	조동렬 (김근순)	김정태, 이휘자
7대	이상오	2000년 9월 ~ 2003년 8월	김홍준	남경숙	남영림, 이광호
8대	최경수	2003년 9월 ~ 2006년 8월	정원팔	심형란	이광자, 이휘자, 이내원
9대	김홍준	2006년 9월 ~ 2009년 8월	이내원	오금옥	홍태명, 조신숙, 정삼숙
10대	이내원	2009년 9월 ~ 2010년 8월	김수라	이호순	심상연, 홍태명
11대	이광호	2010년 9월~ 2013년 8월	장동구	이호순	문성록, 허낭자, 김대영, 심형란
12대	장동구	2013년 9월~ 2015년 8월	김대영	김미경	신현주, 심운섭, 홍승희
13대	고은자	2015년 9월~ 현재	신은주	황희연	길병도, 황현주

역대 협의회 임원진

순위	년 대	회장	부회장	총무 사무총장	재무	편집장	간사
제1대	1981.4~1984.10	주하성 Harold Chu	강경식 서문원 백예원	이서구			
제2대	1984.11~1986.8	강경식 Kyung Sik Kang	서문원 김치경 염영일	이영장	고익곤		
제3대	1986.9~1988.8	서문원 Moon Won Suh	고익곤 김유미	김기봉	김영균	류기창	
제4대	1988.9~1990.8	허병렬 Grace Huh	황보철 이상오 정금조	김기봉	이휘자		
제5대	1990.9~1992.8	황보철 Charles C. Hwangbo	남영림 김기봉 김일호	류기창	이휘자	허병렬	
제6대	1992. 9~1994.8	김기봉 Kibong Kim	김정오 이경이 류기창	이광자	김근순	허병렬	
제7대	1994. 9~1996.8	이상오 Sang-O Rhee	함혜란 김홍준 장혜경	방정웅	이휘자	허병렬	
제8대	1996.9~1998.8	최경수 Kyungsoo Choi	방정웅 이광호 박규영	명계웅	임선자	허병렬	김정태 (기록)
제9대	1998.9~2000.8	방정웅 Jung Woong Bang	이광자 임선자 손창현	장동구	심운섭	허병렬	

순위	년 대	회장	부회장	총무 사무총장	재무	편집장	간사
제10대	2000.9~2002.8	임선자 Suncha Lim Lee	김정태 김근순 강용진	심운섭	심수목	허병렬	
제11대	2002.9~2004.8	이광호 Kwang-Ho lee	장동구 남경숙 심운섭	김정근	이경이	이영주	이민노
제12대	2004. 9~2006.8	손창현 Chang Hyun Son	정삼숙 심용휴 김정근	이민노	권옥순	이영주	손애자 최희윤 심수목
제13대	2006. 9~2008.8	김정근 JungKeun Gim	전수경 권옥순 이민노	남일	심형란	심수목	오선미 김진형
제14대	2008. 9~2010. 8	이민노 Paul M. Yi	김대영 신현주 남일	정용철	심형란	윤미자	오선미 고은자 엄재윤
제15대	2010.9~2012.8	심용휴 John Y. Shim	강상인 강남옥 최미영	남상엄	오금옥	김인숙	심정균 김에스더 이현진
제16대	2012.9~2014.8	강용진 Yongjin Kang	강남옥 문윤희 선우인호	김선미(전)	송지은(전) 한순용(후)		노옥남 김금자 이정현(전)
제17대	2014.9~2016.8	최미영 Miyong Kim	김정자 김인숙 이승민	오정선미	유미순	황정숙	한희영 권예순 김원구
제18대	2016.9~현재	이승민 Seungmin Lee	장은영 오정선미 유미순	황정숙	김미경	김윤희	김선형 윤한나 지수경

역대 학술대회 및 총회 개최지

회차	연도	날짜	개최 도시	개최지 지역 협의회	주제	장소
제1회	1981	4월 (창립 총회)	Arlington, VA	워싱턴	N/A	Hyatt Hotel
제2회	1984	11월	Arlington, VA	워싱턴	N/A	Hyatt Hotel
제3회	1985	11월 30일	New York, NY	동북부	N/A	Holiday Inn
제4회	1986	9월 06일	Chicago, IL	중서부	N/A	Hyatt Lincolnwood
제5회	1987	8월 30일	Baltimore, MD	워싱턴	N/A	Omni Int'l Hotel
제6회	1988	8월 27일	New York, NY	동북부	21세기로 가는 한인 2세 무엇을 가르쳐야 하나	Marriott Hotel
제7회	1989	8월 25일 ~ 26일	Chicago, IL	중서부	교육과정 정립으로 효과적인 2세교육을 하자	Hyatt Hotel
제8회	1990	8월 24일 ~ 25일	Arlington, VA	워싱턴	한국의 얼을 심는 뿌리교육을 하자	Holiday Inn
제9회	1991	8월 23일 ~ 24일	Houston, TX	남서부	한민족의 얼을 심는 뿌리교육을 하자	Double Tree Hotel
제10회	1992	8월 28일 ~ 29일	Baltimore, MD	워싱턴	재미한인교육 재검토	BWI Marriott
제11회	1993	8월 27일 ~ 28일	New York, NY	동북부	향상하는 한국학교, 성장하는 꿈나무들	Holiday Inn
제12회	1994	8월 19일 ~ 20일	Chicago, IL	중서부	세계화 시대의 2세교육	Radisson Hotel
제13회	1995	8월 25일 ~ 26일	Los Angeles, CA	미주한국학교 협의회와 공동주최	21세기 지도자는 창의적인 2세교육으로	Omni Angeles Hotel
제14회	1996	8월 09일 ~ 10일	Seattle, WA	서북미	2세 교육창달은 한국 고유문화 전승으로	Pacific Lutheran Univ
제15회	1997	8월 07일 ~ 09일	Chicago, IL	중서부	21세기를 이끌어 나갈 세계인으로서의 2세 교육	Chicago Marriott
제16회	1998	8월 13일 ~ 15일	Atlanta, GA	동남부	차세대 한국어 교육의 최대효과는 교육과정의 표준화로부터	Atlanta Airport Marriott
제17회	1999	7월 29일 ~ 31일	Dallas, TX	남서부	한국 교육의 창조성 재발견	Harvey Hotel

회차	연도	날짜	개최 도시	개최지 지역 협의회	주제	장소
제18회	2000	8월 03일 ~ 05일	San Francisco, CA	북가주	새 역사를 창조하는 교육 공동체	Clarion Hotel
제19회	2001	7월 23일 ~ 25일	Arlington, VA	워싱턴	새천년의 한인학교	Hyatt Regency Crystal City
제20회	2002	7월 18일 ~ 20일	Philadelphia, PA	동중부	새 시대를 여는 교사	Hyatt Regency
제21회	2003	7월 23일 ~ 25일	Honolulu, HI	하와이	다가을 100년과 차세대 교육	Hyatt Regency
제22회	2004	7월 22일 ~ 24일	Atlanta, GA	동남부	미래를 위한 교육과정의 확립	Atlanta Marriott Gwinnett Place
제23회	2005	7월 21일 ~ 23일	Houston, TX	남서부	차세대를 위한 올바른 정체성과 지도자 교육	Hyatt Regency Houston Airport
제24회	2006	7월 20일 ~ 22일	Denver, CO	콜로라도	세계속의 한류 문화와 창조적인 정체성 교육	Hyatt Regency Tech Center
제25회	2007	8월 02일 ~ 04일	Detroit, MI	미시간	세계화 시대의 한국어 교육과 교사의 역할	Hyatt Regency Dearborn
제26회	2008	7월 17일 ~ 19일	Boston, MA	뉴잉글랜드	차세대 지도자 교육과 교사의 역할	Sheraton Framingham Hotel
제27회	2009	7월 22일 ~ 24일	Orlando, FL	플로리다	한민족 정체성 확립과 세계를 향한 인재교육	Rosen Center Hotel
제28회	2010	7월 22일 ~ 24일	Seattle, WA	서북미	한국어, 한국문화의 세계화와 한국학교 교사 전문성 향상	Hyatt Regency
제29회	2011	7월 14일 ~ 16일	San Francisco, CA	북가주	교과과정 확립과 전문성을 향한 도약	Hyatt Regency
제30회	2012	7월 24일 ~ 26일	Reston, VA	워싱턴	학술대회 30년의 교육적 성과와 미래의 방향	Hyatt Regency Reston
제31회	2013	7월 18일 ~ 20일	Honolulu, HI	하와이	이민 110년과 한국학교	Hilton Hawaiian Village
제32회	2014	7월 03일 ~ 05일	Indianapolis, IN	중남부	봉사와 전문성	JW Marriott Hotel
제33회	2015	7월 16일 ~ 18일	Teaneck, NY	동북부	미래를 향한 창의적인 차세대 교육	Teaneck Marriott Hotel
제34회	2016	7월 14일 ~ 16일	Denver, CO	콜로라도	한국어 교육의 현지화 및 차세대 교육	Renaissance Denver Stapleton Hotel
제35회	2017	8월 10일 ~ 12일	Atlanta, GA	동남부	함께 꿈꾸며 도약하는 한국어 교육	Atlanta Marriott Marquis

북미지역 한국교육원 공동 사업 개요

1. 한글학교 지원

- 한글학교 교재 및 교과서 보급
- 한글학교 지원금 및 각종 업무 지원

2. 한국어 보급

- 해외 초중고 한국어 채택 개설 및 확대
- 한국어 강좌 운영

3. 한국 유학 홍보

- 정부의 체계적인 유학 지원
- 67년 이래 148개국 6,556명에게 장학금 지급

4. 대한민국 정부 초청 외국인 장학생 모집

- 학부 장학생 매년 60-70개국 약 110명
- 대학원 장학생 매년 110-140개국 약 300-700명

5. 한국어 능력시험(TOPIK) 시행

- 정부 인증 한국어능력시험 시행(매년 1회 혹은 2회)
- 재외동포 및 외국인의 한국어 학습 방향 제시 및 한국어 보급 확대

6. 정부초청 영어봉사장학생(TaLK) 선발

- 한국내 농산어촌 초등학교 방과후 교실 원어민 강사로 활동하고, 한국 문화 체험
- 영어를 모국어로 사용하는 국가의 국적자(미국 영주권자 이상)로 4학기 이상 수료한 자

7. 국제교육 교류

- 시도 교육청 교류 방문 활동 지원
- 한미 교육 관계기관 간 국제 교류 활동 지원

8. 해외 교육 정보 수집



한인교육연구 통권 제32호

발행인: 이승민

편집인: 김윤희

발행처: 재미한국학교협의회

The National Association for Korean Schools

발행일: 2017년 8월 1일

인쇄: Design Do, Inc. 디자인두

Copyright ©2017 The National Association for Korean Schools, All rights reserved.

재미동포 학생들의 정체성 교육을 실현하는

재미한국학교협의회

The National Association for Korean Schools

www.naks.org



9 781947 581012 1 7811
ISBN 978-1-947581-01-2